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가정학 박사학위 논문

『음식디미방』의 저자 장계향의 생애에
나타난 생태체계와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

A Study on the Ecological System and Family
Resilience through Jang Gye-hyang's life,
the author of 『Eumsikdimibang』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김지현

『음식디미방』의 저자 장계향의 생애에
나타난 생태체계와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

A Study on the Ecological System and Family
Resilience through Jang Gye-hyang's life,
the author of 『Eumsikdimibang』

지도교수 정민자

이 논문을 가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01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김지현

김지현의 가정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김 영 주 인

심사위원 전 호 태 인

심사위원 허 은 정 인

심사위원 고 영 삼 인

심사위원 정 민 자 인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24년 01월

<감사의 글>

37호관 논문방에서 바라보던 창밖의 풍경은 저에게는 자유의 상징이자 다가갈 수 없는 환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통해 봄의 벚꽃과 불꽃 같던 여름의 열기, 노을이 지는 모습과 낙엽이 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연구에 몰두하느라 창문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날도 있었습니다. 창을 통해 들려오는 학생들의 생기 넘치는 목소리와 자유로움은 제게 부러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고 ‘아, 나에게도 저런 시간이 다시 오려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논문을 쓰는 과정은 힘들었던 만큼 즐거움도 컸습니다. 자료를 찾고,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세상에 없던 나만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실과 바늘로 한땀 한땀 곱게 수를 놓아 그림을 그려가는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특히 연구 대상인 장계향의 일생과 업적, 그의 정신세계를 따라가면서 저는 진심으로 장계향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었고 한 인간으로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장계향을 연구 대상으로 만난 건 정말 커다란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논문방 동기인 전영화, 임은숙, 석미진 선생님, 서로 힘이 되어 무사히 과정을 마치게 되어 기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해결해주었던 학과사무실의 최연재 조교님, 고마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격려해 주시고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김영주 교수님, 전호태 교수님, 허은정 교수님, 고영삼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 지도 덕분에 논문이 더 탄탄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도교수이신 정민자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 지 막막했을 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느껴졌을 때 기댈 수 있었던 교수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지도하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제야 비로소 가족학자가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 저의 빈 자리를 이해하고 묵묵히 응원해 준 든든한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치고 힘들어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는 엄마의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손의 감촉이 잊히지 않습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에 도움을 주었던 모든 분들, 미처 다 언급하지 못했지만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왔고 창밖의 나무들은 잎을 다 벗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논문방을 떠나면서 이곳에서 지냈던 시간이 앞으로 많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김지현 올림

국 문 초 록

『음식디미방』의 저자 장계향의 생애에 나타난 생태체계와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김지현
지도교수 정민자

본 연구는 조선 중기의 여성으로 최초의 한글조리서인 『음식디미방』의 저자 장계향의 생애에 나타난 생태체계와 가족 레질리언스를 통하여 오늘날 가족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가족이 본래의 제 기능을 찾기 위해 필요한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갈암 이현일이 집필한 『정부인 안동장씨실기』와 아버지 장홍효의 공부록인 『경당일기』 등 1차 자료와 『음식디미방』, 장계향과 관련 주요인물에 관한 연구논문과 도서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17세기에 여중군자라 불렸던 장계향은 시대적 상황과 자녀의 상실이라는 역경 속에서도 7명의 아들을 현자로 키웠으며, 시덕과 친가 부모님에게 소홀함 없는 효도를 하였고 몰락해 가던 양가 집안을 명문가로 부흥시켰다. 또한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귀천의 차별 없이 돌보는 등 애민사상을 실천하였다. 퇴계 이황의 경 사상을 평생에 걸쳐 실천 수행하였으며 그 정신은 자녀들에게 이어져 재령 이씨 가문 영해파가 영남지역 퇴계학맥의 적통을 계승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장계향과 재령이씨 가문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400여 년의 시간을 넘어 현재까지 후손들에게 그 정신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와 가문을 분석한 결과, 장계향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날로 낮아지던 조선 중기에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성리학자였던 아버지에게 학문을 배울 수 있었고 지경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성장하였다. 시아버지 이함은 자신의 공간을 열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하는 등 평생을 교화와 구제라는 사회적 실천에 힘썼다. 장계향은 친가와 시가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수행과 사회적 실천에 힘썼다.

둘째, 생태체계를 분석한 결과, 장계향이 여중군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요인에

는 개인적인 특성의 발현과 아버지 장홍효, 시아버지 이함, 남편 이시명 역시 성리학적 지경의 삶을 추구하는 환경적 영향이 있었다. 또한, 수 차례의 전쟁과 가혹한 기후재난으로 발생한 참혹한 기근은 장계향이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구빈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장계향이 자식, 아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통한 실천수행과, 자녀교육에 있어서 술선수범하는 것 그리고 애민 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셋째,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한 결과, 친가와 시가 모두 높은 레질리언스가 존재하였다. 신념체계 중에서 이데올로기 부분이 친가와 시가에서 공통적인 양상을 보인다.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 남편과 장계향은 모두 일신의 영달보다 자기수양, 구휼활동, 후학 양성 등에 보다 큰 가치를 두었다. 조직과정에서 친정아버지 장홍효의 융통성은 장계향과 이시명의 혼인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퇴계의 학맥이 재령 이씨가문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융통성으로 장계향은 혼인한 후에도 친정부모에 대한 효도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의사소통과정에서 장홍효의 명료하고 개방적 정서표현은 장계향의 자식교육에도 그대로 이어졌고, 장계향과 이시명 부부는 대화를 통해 상호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평적 부부관계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음식디미방』은 장계향이 자손들을 위해 남긴 조리서로 당대의 식생활과 조리방법, 식재료 등의 음식문화를 엿볼 수 있는 훌륭한 사료이다.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조리서이자, 아시아에서 여성이 쓴 가장 오래된 조리서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음식디미방』은 유교사회 조선에서 남성들의 영역인 학문의 울타리 밖에서, 여성만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음식의 조리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낸 실용학문의 결과물이다.

장계향의 전인적인 삶에서 나타난 모습은 현모양처, 시인, 화가, 서예가, 교육자, 사상가, 과학자, 사회사업가이다. 국가적으로 참혹한 현실과 여성에게 평등하지 않은 시대적 상황에서도 장계향은 항상 깨어 있는 정신상태와 단정한 몸가짐과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는 지경(持敬)의 태도로 성인(聖人)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였다.

장계향을 여성으로서의 의무에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간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의 가치를 지나치게 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장계향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남편을 내조하며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 가문을 부흥시켰다는 점 때문에 당시의 성리학적 여성관에 따라 현모양처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군자로서의 삶에 성공한 여성이라고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장계향이 보여준 자애로운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가정교육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신분의 차이를 넘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소통한 것과 고통받는 이들을 헌신적으로 보

살핀 것은 오늘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러한 점에서 장계향은 과거의 어느 시대에 살았던 여성 위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익히며 실천해야 할 교육적 롤 모델로 주목되어야 한다.

주제어: 장계향, 생애사, 생태체계, 가족 레질리언스, 『음식디미방』.

목 차

<감사의 글>

<국문 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6
II. 이론적 배경	7
1. 생애사 연구	7
1) 생애사 연구의 개념	7
2) 생애사 연구의 선행연구 고찰	9
2. 생태학적 체계이론	12
1)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개념	12
2)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선행연구 고찰	14
3. 가족 레질리언스	17
1) 가족 레질리언스의 개념	17
2) 가족 레질리언스의 구성요인	20
3) 가족 레질리언스의 선행연구 고찰	25

Ⅲ. 연구 방법	28
1. 연구대상	28
2. 자료수집	32
3. 자료분석	35
4. 연구절차	37
Ⅳ. 연구 결과	39
1. 장계향의 생애와 가문	39
1) 생애	39
2) 가문	52
2. 장계향의 생태체계 분석	61
1) 개인체계	61
2) 가족체계	66
3) 사회체계	74
3. 장계향의 가족레질리언스 분석	79
1) 신념체계	79
2) 조직과정	84
3) 의사소통과정	89
Ⅴ. 결론 및 제언	95
1. 결론	95
2. 제언	101
참고문헌	103
부록	114
ABSTRACT	130

표 목 차

<표 1> 가족 레질리언스 구성요인	24
<표 2> 연구대상자 선정 이유	31
<표 3> 장계향 생애 연구를 위한 참고문헌	32
<표 4> 연구 진행과정	38
<표 5> 장계향의 시가(媿家) 현황	46
<표 6> 장계향의 주요 연보	51
<표 7> 장계향 가문을 중심으로 본 퇴계 학맥 계보	60
<표 8> 『음식디미방』의 음식 분류	128

그림 목 차

[그림 1] Kemp의 생태체계 모형에 의한 분류	14
[그림 2] 경당고택	40
[그림 3] 장계향의 글씨(鶴髮詩)	42
[그림 4] 송하 맹호도	43
[그림 5] 낙화(인두화)	43
[그림 6] 학발첩(鶴髮帖)	44
[그림 7] 전가보첩(傳家寶帖)	44
[그림 8] 충효당 종택 편액	45
[그림 9] 충효당 종택 전경	45
[그림 10] 두들마을의 석계 고택	48
[그림 11] 석천서당	50
[그림 12] 장계향 비	50
[그림 13] 이시명과 장계향의 묘소	51
[그림 14] 장계향 가계도	59
[그림 15] 『음식디미방』의 표지와 내용	116
[그림 16] 『음식디미방』 권두 한시	118
[그림 17] 『음식디미방』 권말 필사기	11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은 변화와 위기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급격한 것으로 체감되고 있다. 가족의 변화도 새로운 것은 아니고 모든 시대에 걸쳐 가족은 항상 변화되고 있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급’하고 ‘격’하게 느껴지는 것인데, 이는 변화의 속도와 폭이 빠르고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에서 오는 1인 가구의 증가와 혼인율의 저하, 1984년에 합계출산율 1.7482명을 기록한 이후 2022년에는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고(통계청, 2023), 이혼율의 상승, 다문화 가족의 등장, 노령층의 급속한 증가 등의 변화는 한국인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변화의 원인은 단순히 외부적, 형태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가족 내적인 가치관의 변화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강유진, 2014).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족의 변화는 늘 일어났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의 변화는 결혼과 가족에 관련된 과거의 개념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변화보다 심층적이고 또 본질적이다.

더구나 2019년 12월에 시작되어 전 세계적 재앙이 된 코로나19의 발생은 개인과 가족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격리, 재택근무, 비대면 온라인 학습의 시행 그리고 보육기관에서의 아이돌봄이 제한을 받게 되면서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가족의 정신건강이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구나연, 2023).

코로나19로 인한 자녀 돌봄의 시간이 늘어나고 재택근무로 인해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김지현, 최영준, 2021) 여기에서 파생되는 심리적인 불편함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처럼 가족 가치관과 가족의 형태에서 드러나는 변화는 가족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에 위기감을 주고 있다.

가족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면서 개인과 가족의 삶의 중심축인 동시에, 전체 사회체계로까지 확장되어 사회 전반의 작동원리로써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손승영, 2006). 이러한 면에서 사회의 위기는 곧 가족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동시에 가족의 위기는 곧 사회의 위기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주의는 지

금까지 우리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정의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이다.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서구사회와 달리 개인 영역에서의 독립성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는 일상생활이 영위되고 정체성이 구성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으로서의 가족이 갖는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소현숙, 2021).

우리나라는 근대화의 과정을 겪으며 개인은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족관의 집단 중심적 가치관이 저항을 받기 시작했고 서구의 개인주의적 관점이 수용되면서 전통적 가족관계가 큰 도전을 맞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로 가족을 위해 구성원이 일방적 희생을 요구당하는 부당함은 감소했지만 오늘날의 가족은 이전 시대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불행을 느끼고 있다(이현지, 2004).

가족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는 역경으로 작용하여 가족해체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역경을 이겨내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오늘날에도 가족은 한국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인은 가족을 위한 삶을 살고,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가족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고 가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시기이다.

가족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마다 다른 반응과 결과가 나오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가족의 강점 즉, 가족 레질리언스를 살펴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족의 위기대처 능력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려는 가족 레질리언스에 의해 그 차이가 드러난다(김현정, 2023).

Garnezy(1991)는 가족 구성원에게 닥친 위기나 역경의 상황으로부터 가족과 개인의 발달과 회복을 돕는 중요한 기제로 가족 레질리언스를 들었으며, 가족의 레질리언스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스트레스로 가족체계 내에 혼란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전으로의 균형을 회복하고 가족이 성장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기능의 결핍으로 인한 부적응적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벗어나 가족의 적응과 긍정적인 면에 무게중심을 두고 연구되었으며(양옥경 외, 2002), 가족을 하나의 역동적인 단위로 보았다.

따라서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자원을 동원하여 가족에게 닥친 내·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하며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겠다(이영경, 2014). 본 연구는 현시대 가족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모범적인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위인의 생애에 나타난 업적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생태체계 그리고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분석하여 가족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도구로 삼고자 한다.

가정은 인간이 출생하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이웃, 사회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곳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Bronfenbrenner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1970년대에 생태학적 접근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생태체계적 관점은 인간의 성장기에 개인과 가족을 둘러싼 생태환경과의 상호작용 경험이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가족에게 배운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사회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는 양육자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자녀의 신념과 행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윤경원, 2018). 따라서 양육자는 자녀의 성격 형성, 대인관계의 질,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행동 규범과 가치, 도덕성 등 자녀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가장 중요한 롤 모델로서의 역할(이정숙, 2016)을 담당해야 한다.

김밀양(2014)에 의하면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지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로 개인과 사회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미시체계이고 개인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 기능적이고 구조적으로 변화한다. 환경과 개인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이며 순환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활한 가족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 내적 요소와 가족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가족과 개인의 안정과 욕구 충족이 가능해진다. 생태체계적 관점은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등으로 분류되고 가족 레질리언스에 영향을 주는 생태체계 변인은 개인체계, 가족체계, 사회체계 등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고 가족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이 필요한지 위인의 생애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1999년 11월에 장계향(정부인 안동 장씨)을 ‘이 달의 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이후 경상북도는 2008년부터 여중군자 장계향을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경북의 대표적 여성인물로 선양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그 일환으로 장계향 아카데미 운영, 워크숍 개최, 홈페이지의 구축, 도서 편찬, 표준영정의 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의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장계향에 관한 학계의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신경진, 2013).

조선 전기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고려시대의 사회적 관습인 남귀여가혼이나 구분상속, 윤희봉사 등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선 후기에서와 같은 남녀차별 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조선 중기까지 혼인한 여성은 친정에서 가지고 온 재산과 친정과의 유대가 남아있어서 어느 정도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권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전쟁 중 많은 노비가 죽거나 도망치게 되자 한정 재산인 토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양반들은 자신의 가문과 신분을 지키기 위해 경제력이 분산되는 것을 막

으려고 했다. 때문에 상속에서 딸을 배제하게 되었고, 경제력의 상실로 여성의 권리는 점차 낮아지게 되었다.

상속에 대한 제도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남성들은 자신들의 가문과 신분을 지키기 위해 여성을 철저히 배제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예학의 발달은 재산과 제사 상속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17세기 전반까지 학문적 차원으로 발전되었던 예학은 17세기 중반에 사림이 정계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정책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강조된 것이 『소학』 교육과 『주자가례』의 장려와 보급이다. 특히, 『소학』은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결정되었다. 또한 공자의 말을 빌려 “부인은 남에게 복종하는 자이다. 이런 까닭에 독단으로 판단하는 의(義)가 없고, 세 가지 따르는 도(道)가 있으니,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 감히 스스로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여성의 삶을 남성에게 종속시켜 버렸다.

17세기에 여중군자라 불리며 전인적 삶을 살았던 장계향은 이처럼 어지러웠던 사회상과 가족의 상실을 겪으면서도 7명의 아들을 현자로 키워냈으며, 시덕과 친가에 소홀함 없는 효도를 다 하였고 몰락해가던 가문을 일으켜 세웠다. 또한, 연이은 전쟁과 기근으로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을 신분의 차별 없이 헌신적으로 돌보는 등 애민사상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로 쓰여진 조리서인 『음식디미방』¹⁾을 저술하는 업적을 이루었다.

장계향은 아버지 장흥효를 통해 이어받은 퇴계의 경 사상을 실생활에서 실천하였으며 자리아타의 정신과 극기복례의 의식을 널리 확산시켰다. 장계향은 자신의 시를 통하여, 때로는 글을 통하여, 때로는 그림을 통하여 경 사상을 드러내었으며, 그 정신은 자손들에 의해 이어져 재령 이씨 가문이 퇴계 학맥의 주류가 되게 하였다 (윤정미, 2015).

아버지 장흥효의 가르침대로 시부모를 받들고 남편을 보필하며 7남 3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었고 아들들을 모두 학식과 덕망 높은 학자로 성장시켜 영남학파의 기틀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신경진, 2013). 특히 삼남인 갈암 이현일을 비롯하여 이상일, 이휘일, 이승일, 이정일, 이용일, 이운일 등은 학문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하여 조선의 칠현자(七賢子)로 불렸다.

또한, 남편 이시명과 아들 이상일, 이휘일, 이현일, 이승일, 그리고 손자인 이재와 이만 등 7명은 벼슬을 하지 않았으나 뛰어난 학자라 하여 칠산림((七山林)으로 일컬어지는 명예를 누렸다. 이러한 가문의 영광 뒤에는 장계향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1) 부록에 수록되었음

장계향의 아버지 경당 장홍효는 퇴계의 학문대통을 학봉 김성일·서애 유성룡·한강 정구로부터 이어받아 자신의 외손자인 존재 이휘일·갈암 이현일에게 물려주었고, 이들 형제는 다시 이현일의 맏아들인 밀암 이재에게 물려주었으며, 밀암 이재는 다시 외손자인 대산 이상정과 소산 이광정 형제에게로 학통을 전승하여 영남학파의 맥을 형성하였다(백태한, 2001). 퇴계 이황의 학맥이 한 가문의 자손들에 의해 대대손손적통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경진(2013)도 ‘학맥과 학통 그리고 혈맥이 겹치고 이어지는 그 중심에 장계향이 우뚝하게 서 있다는 점에서 장계향의 학덕과 부덕이 가문의 가학을 이루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장계향의 생애를 보면 좁게는 가정의 울타리에서, 넓게는 인척과 이웃들 가운데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을 묵묵히 도왔던 봉사자로서의 면모가 보인다(신경진, 2013). 이타적인 성품과 애민사상의 사회적 실천은 아버지 장홍효의 가르침과 시아버지인 운악 이함의 영향이 발현된 것이었다. 이러한 가문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 제조회사인 삼보컴퓨터의 창업자 이용태(1933~)는 운악 이함 종가의 17대 종손이다. 명문가의 종손이지만 가난한 집안의 맏이였던 이용태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독학으로 서울대 물리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하였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미국 유학을 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거쳐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다.

어린 시절에 그는 할아버지에게서 늘 “사람들과 사귀거나 일을 할 때는 네가 지고 밀려야 한다(최효찬, 2008).”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용태는 우리나라 최초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회사인 두루넷과 무선호출 서비스 회사인 나래이동통신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몇 개의 학원을 설립하는 등 교육사업에도 크게 성공하였지만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사업을 멈추었다.

‘힘이 있으되 그 힘을 다 쓰지 않고, 재물이 있으되 뽐내지 않아야 한다’는 집안의 가풍을 따랐기 때문이다. 장계향과 재령 이씨 가문의 후손답게 그는 구순의 고령에도 퇴계학연구원 이사장과 박약회 회장을 맡고 있다. 박약회는 논어의 ‘박문약례(博文約禮)’ 즉 ‘널리 학문을 배우고 익혀 예를 실천한다(최효찬, 2008)’라는 구절에서 이름을 따서 만든 유학자들의 단체로 청소년과 군인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과 실천을 장려했던 장계향의 자녀교육 방식은 몇 세기의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도 그 정신이 그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장계향의 생애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연이은 전쟁과 국가적 수모, 그리고 혹독한 기후 재난 시대에 살면서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여성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자세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일견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친가와 시가 두 집안을 당시 사회의 기둥 역할을 하는 가문으로 일으켜 세웠으며(박광용, 1999), 오랜 세월을 걸쳐 명문가로 존경받는 업적을 이루게 했다.

장계향이 이렇게 훌륭한 품성을 지닌 인물로 성장하고 평생에 걸쳐 전인적 삶을 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댁과 친가의 가르침과 가족의 레질리언스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계향의 생애를 통해 그의 생태체계와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하여 오늘날의 가족 위기에 맞서, 가족의 건강성 회복이라는 과제에 당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지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현 시대 가족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모범적인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위인의 생애에 나타난 업적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생태체계 그리고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분석하여 가족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도구로 삼고자 한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장계향의 생애와 가문은 어떠한가?

- 1-1. 장계향의 생애는 어떠한가?
- 1-2. 장계향의 가문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장계향의 생태체계는 어떠한가?

- 2-1. 장계향의 생애에 나타난 개인체계는 어떠한가?
- 2-2. 장계향의 생애에 나타난 가족체계는 어떠한가?
- 2-3. 장계향의 생애에 나타난 사회체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장계향의 생애에 나타난 가족레질리언스는 어떠한가?

- 3-1. 장계향의 생애에 나타난 가족의 신념체계는 어떠한가?
- 3-2. 장계향의 생애에 나타난 가족의 조직과정은 어떠한가?
- 3-3. 장계향의 생애에 나타난 가족의 의사소통과정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생애사 연구

1) 생애사 연구의 개념

생애사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로 한 개인의 삶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고 고찰하여(송가영, 2023) 그 속에서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연구방법이다. 사회과학과 문화인류학 등의 분야에서 사회현상 및 인간행동에 관한 연구방법으로 활용되던 질적 연구방법은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천정웅, 2019).

박용순 외(2012)에 의하면 질적연구는 일반화의 한계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각적 자료의 수집, 특정한 시기의 특정한 현상이나 사건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하고 현상에 대한 원인과 연구참여자들의 내면에 있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춘양, 김영순, 2020).

생애사 연구는 1920년대~1930년대에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사회학부에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사회적 조건을 탐색했던 것이 그 기원이다. 급격히 이루어지는 변화 속에서 인간의 삶의 모습들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론적 모델에서 연구문제와 가설을 세우고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비교하던 지금까지의 양적 연구방법은 현시대의 다양한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현상과 사건들이 발생하는 특수한 조건들을 탐색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이론과 연구방법에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flick, 2009; 천정웅, 2019 재인용).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미시적 삶을 거시적 맥락에 연결함으로써 개인의 삶에 담겨 있는 상호 주관성과 맥락성을 밝혀 사회현상과 특정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해석하는데 유용하다(Cole & Knowles, 2001; 이동성, 2015 재인용). 개인 삶의 시간성을 기초로 하여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통해 의미를 이끌어 내는 생애사 연구는 사회과학과 인문학 분야 등에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민성은, 김영천, 정정훈, 2015).

생애사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생애 경험을 사회적인 조건과의 관계 안에서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유발하는데 적합하

다(전수연, 2022). Dulmen(1997)은 인간의 개인화 과정에는 정치적 상황, 사회의 발전, 경제적 확장이 연결되어 있고, 개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는 시대의 변화 속에 놓여 있는 개인의 삶과 행위의 맥락 속에서 규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이 주제인 생애사 연구는 언제나 사회적, 문화적 및 역사적 맥락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이동성, 2013). 김영천과 한광훈(2012)은 생애사 연구란 “개인적인 창문을 통해 공적인 맥락을 발견하여 이야기로 기술”하는 연구방법으로 시간을 중요한 축으로 삼아 개인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함축하고 있는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목소리에 집중하여 “평면적으로 삶의 경험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의 이야기의 맥락을 이루고 있는 사회구조를 시간성의 차원에서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애사 연구를 이루고 있는 원리는 첫째, 개인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사회학적으로 해석하고, 둘째, 삶의 이야기의 전경인 시간성에 초점을 두고, 셋째,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세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김영천, 한광훈, 2012).

또한, 박성희(2016)는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삶의 각 시기마다 나타나는 경험이 축적된 복잡하고 역동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삶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개인의 정체성을 재인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생애사 연구방법의 특징이라고 제시하였다.

생애사 연구의 방법론적 특징을 보면 맥락성, 내러티브, 관계성, 인간화로 압축될 수 있다(이동성, 2013). 첫째, 맥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생애사 연구에서 맥락이란 물리적, 제도적 환경과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부모와 또래 등의 타자를 포함하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의미한다(이동성, 2013). 생애사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자료에 들어 있는 삶의 이야기 보다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시간적인 맥락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상호작용하는 시간의 고리에서 나타난 사건에 대해 연구대상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선택하였는지, 또한 그것이 삶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시간성을 중시한다(한경혜, 2005).

둘째, 내러티브라는 특징을 가진다. 생애사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고유한 자신만의 이해방식과 의미방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때의 핵심은 이야기의 사실성이 아니고 그 내러티브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데 있다(Dhunpath, 2000). 개인의 실제적인 행위와 사고는 해석과 재해석이라는 역동적 과정을 거쳐서 내러티브적으로 구성되게 된다((Dhunpath, 2000).

셋째, 관계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생애사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이다. 생애사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에 친밀성과 진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성을 강조하는데 친밀성이란 상호 간의 배려와 우정의 질, 진정성이란 연구참여자에 대한 연구자의 책임감을 의미하고 있다(이동성, 2013).

넷째, 인간화라는 특징을 가진다. 생애사 연구는 연구의 과정을 인간화할 수 있다. 개인을 사회적 행위주체로서 추정하는 생애사 연구는 여성이나 장애인, 사회의 하위계층과 같은 주변인들의 목소리에 주목(Thompson, 1988)하고 있으며, 반영성에 기초하여 참여자의 삶의 경험에 대하여 공감을 일으키게 한다. 그리고 생애사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배려와 존중과 민감성은 개인적·실천적 요소인데 엄격하게 통제되고 기술되기보다는 진정성 있게 느껴지고 체험되는 인간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Cole & Knowles, 2001).

양적연구방법은 연구의 객관성을 대상으로 하는 대신, 질적연구방법의 한 가지인 생애사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주관성과 인식성, 실존성 등을 근거로 하게 된다. 통계적, 일반적 규칙을 찾아내는 양적연구방법은 사회가 변함없는 상태로 한결같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생애사 연구는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사건성, 과정성 그리고 변화성을 강조한다(박성희, 2002).

그러므로 생애사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사회적인 조건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이 구성하여 이를 토대로 연구참여자의 삶에 대한 성찰을 유발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다(전수연, 2022).

2) 생애사 선행연구 고찰

생애사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인생에 질문을 던지며 해답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삶의 역사와 문화를 마주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개인 삶의 상태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발전해가는 과정까지 보여준다(조용환, 1999).

생애사 관련 선행연구 중에 우선 생애사 연구동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강숙희(2013)는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제공하는 1992년~ 2013년의 생애사 연구논문을 검색하여 학위논문 242편 및 교육학 분야의 학위논문 29편을 분석하였다. 교육학 분야의 학위논문에서 생애사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은 2000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관해 연구하는 교육학의 특성상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자료만으로는 연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앞으로 생애사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김남웅(2019)은 ‘한국 특수교육에서의 생애사 연구 동향분석’에서 한국특수교육 분야 생애사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0년~ 2017년까지 연구논문 64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64편의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시대별로는 2008년 이후에 생애사 연구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었고, 연도별로는 2013년 이후 학위논문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연구대상은 장애인과 장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으며, 넷째, 장애 영역별로는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연구주제는 장애인의 생애사가 37.5%인 24편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의 양육경험이 17.2%인 11편, 중도장애인의 삶이 15.6%인 10편 등으로 나타났다.

김가연과 홍성희(2022)는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관련 연구에서 2000년부터 2022년 6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에 관해 수행된 질적연구 중 총 33편을 분석하였는데 그중 87.9%인 29편이 생애사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밝혀냈다. 또한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학이 10편, 다문화교육학이 7편으로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주제별 분포는 결혼이주여성의 학습 경험과 기타 주제가 각각 6편, 정체성과 적응이 각각 5편, 결혼과 이혼에 관한 연구가 4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연(2022)은 ‘예술가-교사(teaching artist)의 정체성 구축에 관한 생애사 연구’에서 예술교육의 경험이 예술가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스며들어 그들이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는지를 파악하였다.

여러 가지 연구방법 중에서 특히 생애사 연구방법을 택한 이유는 거시적인 현상과 미시적인 현상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고 사회구조가 개인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재복(2023)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60세 이후에 진로를 전환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삶의 이야기를 생애사 연구방법으로 살펴보았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생애의 어느 주기보다 노년기에 자신에게 더욱 집중하며 존재하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순신의 생애에 관한 연구를 한 정치영(2007)은 이순신이 가졌던 최고경영자로서의 청렴함과 인사관리 능력, 정치적 감각 등을 분석하여 오늘날 우리사회에 필요한 지도자상과 리더십을 제시하고 있다. 조신희(2015)도 이순신의 홍익인간 리더십을 미국의 12가지 리더십 이론과 비교하며 4백여 년 전 실현된 이순신의 리더십은 시대적으로 앞서 있고 미국의 모든 리더십 이론을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공직자와 군인의 교육에 이순신의 홍익인간 리더십 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안중근의 생애에 관해 연구한 한복희(2019)는 가족 레질리언스 및 가족 생애사 분석을 통해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함으로써 인본주의적 철학과 세계 평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 인물로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고난을 극복하는데 가족의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배경에는 가문의 상무정신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정희(2020)는 성직자이며 의사, 교육자인 이태석 신부의 생애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태석 신부는 아프리카의 오지인 톤즈에서 주민들의 친구이자 스승으로 진정한 사랑과 섬김, 베품의 삶을 실천한 인물이었다.

김현정(2023)은 화가 이중섭의 생애를 연구하였는데 근현대 화가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지원과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고 비록 이중섭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가족 사랑을 예술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대중들로 하여금 그의 작품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여성 위인들에 대한 연구를 보면, 강민수(2011)는 신사임당의 정서적 능력의 특징을 정서지능 이론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정서능력이 전 생애에 걸쳐 계발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는데, 그는 학교 교육에서 지적능력의 계발 못지 않게 정서능력의 계발과 함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명아(2018)는 허난설헌의 삶을 통해 그녀가 겪었던 고난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좌절감을 살펴보고 고난을 이겨내는 내면의 힘은 무엇이었는지, 현대인들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하였다.

2. 생태학적 체계이론

1)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개념

생태체계이론은 일반체계이론과 생물학에서 사용되는 생태학 이론을 결합한 것으로(심재필, 2022) 하나의 체계는 그 체계와 다양한 여러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인간의 문제행동의 구조와 근원을 체계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김규리, 2021). 생태체계적 관점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인간생활의 지속적인 과정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생태학이란 ‘생물과 그들 환경 사이의 작용과 반작용 그리고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윤태경, 2020; 양외금, 2022; 김현정, 2023)으로 독일의 생물학자인 Haeckel (1866)이 처음으로 생태학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생태학에서는 유기체와 환경 양자 간에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핵심으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전미숙, 2017).

생태학적인 관점은 ‘환경 속에서의 인간’을 강조한다. 인간과 환경은 상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전체적인 인간관을 지향하고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는 상호 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귀착되는 결과로 본다(전미숙, 2017). 즉, 인간의 행위를 환경적 욕구와 개인의 욕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생태체계적 관점은 초기에는 주로 자연 생태계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 체계로 정립되었으나 곧 심리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도입되었다(이명순, 2006; 전미숙, 2017 재인용). 개체와 그 개체를 포함하는 것들은 모두 체계로서 하나의 것으로 간주되며 연결되어 있는 각 체계들은 다시 여러 하위체계를 구성하여 서로 연관되는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학자들은 생태체계적 관점에 입각하여 다양한 환경체계들을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는데 모델들은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Bronfenbrenner(1979)는 ‘인간은 주위의 밀접한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생태학적 관점에 일반적인 체계이론을 결합하여 인간발달을 분석하고 설명하면서 ‘생태학적 체계이론(Ecological System Theor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한 인간의 환경을 다양한 체계로 구분하였으며 환경과 인간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의존적으로 변화하는 구조를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그리고 거시체계(macrosystem)로 구분하였다(김밀양, 2014).

첫째, 미시체계는 생태학적 환경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며 개인이 밀접히 접촉하게 되는 가장 가까운 체계로(장정문, 2018) 인간의 발달과정에 개인이 독특한 물리적, 물질적인 특성을 가진 환경 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역할과 활동 및 대인관계의 유형을 말한다. 미시체계 내에서 자녀와 부모, 교사, 친구와 같은 요인들 간에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둘째, 중간체계(mesosystem)는 발달과정에서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들 간의 상호관계(interaction)로 이루어진다. 가족이나 직장, 소집단 등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미시체계들을 연결하는 체계이다. 미시체계에서는 역할 간의 활동이나 상호작용이 한 장면 내에서 일어나지만, 중간체계에서는 각 과정들이 장면 간의 경계에서 발생하므로 개인이 속한 장면들을 서로 연결하는 일차적 또는 직접적 사회조직망(김규리, 2021)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외체계(exosystem)는 중간체계가 확장된 것으로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발달하는 개인이 속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경을 의미한다(조희금 외 2013). 예를 들면 아동이 개체일 때 부모의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망 등을 꼽을 수 있다.

넷째, 거시체계(macrosystem)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며 생태체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다(김환철, 2020). 개인이 속한 사회의 신념이나 제도의 일반적인 형태로서 정치, 경제, 사회, 법, 문화, 관습 등의 환경적 요소를 말한다(윤태경, 2020). 거시체계는 발달과정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환경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의 세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장현희, 2019), 이 체계가 지니는 시대정신이나 풍토는 개인의 신념 및 행동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Belsky(1980)는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 생태학 모형을 토대로 하여 환경체계를 개체발생적 체계(개인적 특성), 미시체계(가족), 외체계(지역사회), 거시체계(문화)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는 생태체계이론을 적용하여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개인과 미시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개인변수는 개인적 특성인 유전과 개인의 발달로 보았고 미시체계는 개인을 둘러싼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을 중심으로 보았다. 외체계는 지역사회로 보고 있으며 거시체계는 문화로 보았다. Belsky(1980)는 아동학대와 방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해 이와 같은 문제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Kemp(1998)는 Belsky의 모델을 보다 단순화시켜 체계의 수준을 미시체계(개인의 특성), 중간체계(가족, 환경), 거시체계(지역사회)의 3가지 수준, 즉 개인체계, 가족체계, 지역사회체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Kemp(1998)의 모형은 미시수준에는 개인적 수준의 변수들(개인적 행동, 성격, 개인적 동기, 정신병리학적 측면) 등을 포함하였고, 중간수준에는 가족체계 내에서 기능하는 것들을 포함하였으며, 거시수준에는 지역사회와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였다(송영달, 손지아, 박순미, 2010).

[그림 1] Kemp의 생태체계 모형에 의한 분류



본 연구에서는 Bronfenbrenner(1979)와 Belsky(1980)의 모형을 보다 단순화하여 제시한 Kemp(1998)의 이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체계들을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Kemp(1998)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장계향의 생태체계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미시수준의 개인체계, 중간수준의 가족체계, 거시수준의 지역사회체계로 하여 분석하였다.

2)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는 조선의 여중군자라고 일컬어지는 장계향의 생애에 관하여 생태체계이론을 통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생태체계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 중에서도 특히 가족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장애아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탐

색(윤종희, 김리진, 하수민, 2006)'에서 일상적으로 장애아의 양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를 통해, 장애아를 둔 가족 삶의 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에 적용되는 생태학적 접근은 가족 구성원의 기능과 능력이 생태체계의 지원으로 강화될 수 있고 역기능이 순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였다.

양주희(2009)는 발달장애 아동 가족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들의 영향력을 생태체계 요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 미시체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고, 중간체계 변인으로는 결혼 만족도와 비장애 자녀의 조력 정도 및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거시체계에서는 장애 자녀로 인해 차별을 받아야 했던 경험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알코올중독자의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하여 연구한 권혜민(2018)은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설명하는 데 있어 미시체계가 가장 중요한 변인이며,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가족 레질리언스와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는 중간체계의 변인은 가족 간 대화시간과 가족의 여가활동, 가족 스트레스, 종교활동, 단주친목 참석이라고 분석하였다. 거시체계에서는 사회적 편견, 음주문화 허용도가 가족 레질리언스와 상관이 있었으나, 전체 생태체계 변인들 중에서 가족 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김밀양(2014)은 가족의 위기생활사건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혼남녀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파산, 신용불량, 실직, 가족 구성원 간의 심각한 갈등과 가정폭력, 성폭력, 구성원의 사망 등이 가족을 지속적으로 위기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적인 사건 자체보다는 긍정적인 위기대처 능력이 가족의 회복탄력성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임이 검증되었다.

위기상담 사례에 드러난 위기가족 유형들의 생태체계를 분석한 장정문(2018)은 한 개인의 예상치 못했던 위기 상황은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족원과 사회 전체로 영향을 미치고 위기 유형별로도 취약성을 보이는 체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기가정의 체계적 특성을 파악하여 위기유형 별로 적절한 지원과 개입을 해야 하며 이러한 지원과 개입은 전 생태체계 내에서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심유화와 정미경(2015)은 기혼 직업군인 262명을 대상으로 직업군인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생태학적 모든 체계는 직업군인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생태체계는 미

시체계 변인군이였다. 이 연구를 통해 미시체계가 직업군인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생태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탐색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한부모 가정 내의 학습자 아동의 생태체계에 관한 연구에서 류은진과 옥정(2021)은 한부모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애착과 문제행동, 발달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대상 아동의 가정, 치료자와 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치료놀이와 발달영역별 중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대상 아동은 치료놀이를 통하여 양육행동에 익숙해지고 정서의 표현이 증가하였으며 엄마와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친근함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행동의 감소와 인지 및 학습과 사회성 영역에서 발달의 지표가 뚜렷이 향상되었다. 변화요인은 대상아동에 적합한 성취수준과 훈육법을 엄마와 공유하고, 치료놀이를 통하여 애착관계를 재경험하게 하고, 반복된 연습 및 대상아동에 대한 돌봄을 지역 사회 체계에서 보완한 것이다.

심재필(2022)은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생태체계에 관한 연구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생태체계 요인과 직무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은 사회·문화 환경적 요인을 제외한 모든 생태체계 요인들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과 가장 상관이 높은 요인이었으며, 이어서 가족의 지지, 직무 여건, 노인복지정책 신뢰,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의 순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 및 가족으로부터 긍정적 지지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재가급여기관 요양보호사들은 직무여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직무만족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현정(2023)은 ‘화가 이중섭 생애에 나타난 작품경향과 생태체계 및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에서 이중섭의 생태체계를 개인체계, 가족체계, 사회체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족체계의 분석 결과, 이중섭은 친가 외가 모두 경제적으로 부유하였으며 가족들이 서로 지지하고 지원하였다. 하지만 중년 시기에 크나큰 사회체계의 역경, 경제적 결핍, 친구의 배신 등으로 외로운 죽음을 맞게 된다.

비록 훌륭한 재능을 타고나고 가족의 지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거시체계의 위기와 역경은 피할 수 없었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가족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체계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생태체계적이론의 선행연구를 통해 생태체계적 구조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형, 유형의 환경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장계향의 삶과 거기에서 이루어진 업적을 가능하게 했던 가족과 교육, 공동체, 사회와 시대적 상황 등을 다각도로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가족 레질리언스

1) 가족 레질리언스의 개념

레질리언스(Resilience)는 ‘환경 시스템에 가해진 충격을 흡수하고 그 시스템이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 변화나 교란에 대응하는 생태계의 재건 능력’(다음 어학사전, 2023)을 의미하는 단어로 정신적 외상과 역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유용한 개념(김현정, 2023)이다. 심리학, 사회학, 정신의학, 생물학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심리학 분야에서는 인생의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여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인간의 능력으로 사용되고 있다(한선영, 2015).

이렇듯 레질리언스란 개인에게 닥쳐온 위험과 불확실한 조건들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동적인 기제를 의미하며 ‘회복 탄력성’ 또는 ‘적응 유연성’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Greene, Galambos, and Lee(2004)는 회복 탄력성에 대해 ‘개인으로 하여금 역경과 불행을 쉽게 회복하거나 적응하게 하는 능력으로 상당한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고, McCubbin(2001)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산물’, ‘압력하에서도 유능감의 유지’, ‘외상으로부터의 회복’,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적응 유연성에 대하여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강점과 약점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능력(Luthar, Cicchetti & Becker, 2000)’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외에 학자에 따라 탄력성, 심리적 건강성, 회복력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레질리언스에 대한 초기 연구는 스트레스, 역경, 어려움 등을 개인이 지닌 결점 중심의 병리적 관점 또는 문제 중심 접근으로만 바라보았으나 차차 개인의 강점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하게 되었고(배은경 외, 2017),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거나, 같은 종류의 역경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받는 영향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레질리언스는 위험요인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김진숙 외, 2013). 레질리언스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취약성을 인식하였을 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레질리언스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었으나 개인을 둘

러싸고 있는 환경체계와의 상호 작용과 환경의 영향의 맥락에서 가족에게로 좀 더 시야가 확대되었다.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 스트레스와 그 대처에 관한 연구에 기원을 두고 있다. 가족학자들은 전환과 위기의 시기에 왜 어떤 가족은 탄력적으로 잘 대처하고 극복하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성장까지 할 수 있는 반면에, 왜 어떤 가족들은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쉽게 무력해지고 파괴되는지에 관한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의 생애주기에 맞게 되는 역경과 고난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며, 가족이 불행한 사건과 위협에 닥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힘이다(Herrman et al., 2011). 즉, 어려움의 시기에도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힘이며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역경으로 인해 흔들릴 때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레질리언스 연구의 초석을 다진 학자라고 할 수 있는 Walsh(1998)는 레질리언스의 개념에 대해 ‘취약하지 않음’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 효과적으로 맞서 ‘잘 견뎌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상처 입거나 곤궁에 처한 상태를 수용하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가족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고 극복한다는 적극성을 뜻하고 있다.

Antonovsky(1987)는 ‘건강성(salutogenesis)’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여 위기 가족에 대하여 ‘심각한 위험상황에 처하여 손상을 입은 가족’이라는 관점이 아닌 ‘성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도전받고 있는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가족의 잠재력을 보고 긍정적 방향으로 시각을 전환시켰다.

가족 레질리언스는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트레스에서 견디고 불리한 조건에서 일어나는 능력(윤수희, 2005)이다. 개인과 가족을 함께 성장시켜 가족관계 속에서 최선의 것을 도출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과 성장에 대한 잠재력을 회복시켜 준다(김안자, 2009). 박혜란(2014)은 가족 레질리언스는 개인 레질리언스와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들이 고난을 극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게 해주는 가족 특성의 조합이라고 보았다.

정민자(2016)는 한 가족이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뎅이처럼 회복하여 본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능력이라고 가족 레질리언스를 정의하였다. 또한, 역경에 대한 긍정적 적응과 회복,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보호요인들이 작동하는 과정(조원섭, 2017)이다. 가족 레질리언스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족의 자원과 탄력성과 회복력에 주목하며 가족의 관계적 측면을 강조한다(Walsh, 2002).

가족이 어떻게 위기상황에 맞서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완화 시키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족을 재조직하는지 등 역경을 극복하는 일체의 과정이 대처와 적응의 핵심이다(Walsh, 2002). ‘위기에 직면한 가족’이라는 시각이 아니라 ‘잠재력을 가진, 도전받는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위기상황에 취약한 가족의 결속을 강화하고 개입하는 예방적 접근을 통해 성장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백지은, 원종숙, 김성길, 2019).

Walsh(2002)에 의하면 가족 레질리언스는 단지 생존하는 차원을 넘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거나 벗어나는 것을 포함한다. 레질리언스가 가진 특성은 가족이 고통스러운 상처로부터 치유되도록 돕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게 하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결국 가족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한 점에서 레질리언스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타인들과의 상호의존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가족과 관련된 연구에서 학자들이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해 내린 정의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적응할 수 있고 변화에 직면하여 분열을 방지하도록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가족의 특성이자 차원이며 속성이다(McCubbin & McCubbin, 1988). 이것은 스트레스에 직면한 가족의 적응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처와 인내, 생존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강조한다(McCubbin & Tompson, 1993).

둘째,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이 역경에 처하여 대응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강점이다(Hawley, 2000).

셋째, 가족 레질리언스는 불리한 조건과 상황을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견뎌내며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딛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다(Valentine & Feinauer, 1993).

넷째, 역경을 견디고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극복하는 능력이다(Wolin & Wolin, 1993).

위의 정의에서 나타난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공통된 특징을 보면 위기 상황에서 표면화되고, 탄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병리적 관점이 아닌 건강성의 관점에서 가족을 조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족 레질리언스는 위험을 회피함으로써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의 상황에 맞서기 위해 보호요인들에 대한 성공적인 적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역경의 상황에서 벗어나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Benzies & Mychasiuk, 2009). 이러한 가족의 레질리언스는 개인의 생애 초기에서부터 형성되어 일생에 걸쳐 지속된다.

Walsh(2002)는 가족 레질리언스 이론에서 가족을 레질리언스의 잠재적인 자원으로

로 여기고 가족의 스트레스보다는 가족 적응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가족 과정을 강점 관점을 통한 발달적 차원에서 구조적·기능적으로 설명하여 역동적 실체인 가족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2) 가족 레질리언스의 구성요인

가족 레질리언스의 정의는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 또는 관심 주제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므로 가족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내용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이선애, 2004). McCubbin과 McCubbin(1988)은 초기에 가족의 문제 해결과 대처전략, 내구력, 의사소통, 응집력, 사회적 지지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후 가족 형태, 가족 도식, 가족 자원, 가족 기능, 문제 해결과 대처, 사회적 지지 등으로 일부 수정하기도 하였다(McCubbin, McCubbin & Tompson, 1993).

Silliman(1994)은 의사소통, 응집성, 적응성, 영성, 연결성, 위임, 시간, 공유, 효율성 등의 요인을 제시했었고 Cowan과 Schulz(1996)는 응집력, 유연성, 공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과 신념체계를 가족 레질리언스의 요소로 보았다. Lin(2000)은 영적 지지와 긍정적인 수용을 구성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Walsh(2002)의 가족 레질리언스 이론은 가족의 신념체계, 가족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Walsh(2002)는 가족이 이러한 세 가지 주요요인에 유의한다면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취약점을 감소시킬 수 있고, 역경에서 벗어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레질리언스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Walsh(2002)의 이론은 가족 과정의 차원에서 레질리언스를 구조적, 기능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가족의 역동적인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Walsh(2002)의 가족 레질리언스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Walsh(2002)가 제시한 가족 레질리언스의 핵심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의 신념체계

신념체계는 가족 레질리언스의 본질과 정신으로 모든 가족기능의 핵심이다. 신념체계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과정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는 가치, 확신, 태도, 편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념은 행동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행동의 결과로 신념은 더욱 강화될 수 있거나 때로는 변화되기도 한다(Walsh, 2002).

가족의 신념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족이 대처하는 방식을 통해 그 신념이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실패로 끝나게 할 것인지를 가늠하게 한다. 신념체계에는 ‘역경에 대한 의미 부여’, ‘긍정적 시각’, ‘이데올로기(초월과 영성)’의 세 가지 하위요소가 포함되어 있다(Walsh, 1998).

① 역경에 대한 의미 부여

가족에게 닥친 위기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며 레질리언스의 핵심요소이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가족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응집력이 높은 가족은 위기 상황을 하나의 도전으로 인식하고 변화를 위한 계기로 수용하게 된다. 가족은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서로에게 충성과 믿음을 지속할 때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다(변영인, 2006).

② 긍정적 시각

불굴의 인내, 용기와 격려, 희망, 낙관주의, 적극적인 정복감을 의미한다. 레질리언스가 높은 가족은 고난과 역경을 도전으로 인식하고, 그것들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정복하기 위해서 위기에 적극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가족들은 가족의 가능성과 가족 강점을 확신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며 스스로 노력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고난과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희망을 갖지만 변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다. 가족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격려와 용기가 필요하다.

③ 이데올로기²⁾

역경을 뛰어넘는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며, 삶에서의 더 큰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정수경, 2010). 삶에서 불가피하게 맞는 고통스러운 시기와 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초월하는 가치와 신념이 필요하다. 종교와 영성은 역경에 직면한 가족에게 초월적인 의미와 평안함을 주고, 치유와 회복으로 가는 강력한 자원이 된다(Walsh, 2002). 레질리언스가 강한 가족은 문제의 원인을 순환적 관점에서 보며 성공이나 실패는 노력에 달려있고, 완전한 성공 또는 완전한 실패는 없다고 본

2) Walsh(2002)의 이론에서는 ‘초월과 영성’으로 명기하고 있으나 본 연구 대상 인물들의 사상인 성리학의 이념과 상충하는 용어라는 의견이 있어 본 고에서는 ‘이데올로기’로 대체하여 표기하였음.

다(박지현, 2009).

(2) 조직 과정

가족의 조직과정은 가족 단위의 통합을 지지하고 관계를 정의한다. 또한 행동을 규제하고 내적·외적 규범을 유지하며 문화 및 가족의 신념체계에 의해 강화되는 것으로 융통성, 연결성, 사회 및 경제적 자원이라는 하위요소들을 통해 형성된다(정수경, 2010).

① 융통성

뜻하지 못한 환경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조직과정에서 가족은 안정성과 변화 사이의 역동적인 조화를 통해 생활 도전에 맞서 변화를 허용하면서도 안정된 가족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탄력성이 높은 가족은 필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지속성과 의존성을 가진다. 가족체계 안에서 융통성은 개인과 가족이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조직된다(Sixbey, 2005).

② 연결성

가족 구성원이 자율적인 동시에 연합하고 상호지지하며 상호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족이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동시에 자신의 역량이나 가치가 길러지고 강화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③ 사회 및 경제적 자원

가족이 내·외적 환경과 인적 자원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다. 레질리언스가 강한 가족은 개방체계를 유지하며 외부로부터 유용한 자원을 끌어들이고 있다. 위기의 상황에 이들은 주변의 다양한 사회 및 경제적 자원을 적절히 사용하여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정수경, 2010). 확대된 친지와 사회적 네트워크는 실질적인 원조와 정보, 서비스, 지지, 교제와 휴식을 제공하고 안전감과 결속력을 증진시킨다(Walsh, 2002).

(3) 의사소통과정

의사소통과정은 가족이 상호작용하는 필수적인 가족 기능으로 사회·경제적, 실제적, 도구적 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정보의 교환이다(Epstein et al., 1993; Walsh, 1998; 김경순, 2010 재인용). 좋은 의사소통은 일상의 가족 기능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역경의 시기에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Sixbey, 2005). 의사소통과정은 명료성, 개방적 정서표현, 상호협력적 문제해결의 세 가지 하위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① 명료성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언행을 의미하는 것이며 가족 구성원들은 위기의 순간에 명확하고 개방적인 의사전달로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다. 이처럼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가족의 의사소통과정은 위기로 인해 발생한 상처에서 빨리 치유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김미옥, 2001).

② 개방적 정서표현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서로의 의견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개방적인 정서표현이 가능한 가족은 희망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슬픔과 고통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서를 공유할 수 있다. 건강한 가족은 구성원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비난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과 감정에 스스로 책임을 진다.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상쇄하며(Walsh, 1998) 위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기능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김경순, 2010).

③ 상호협력적 문제해결

갑자기 닥친 위기나 지속적인 도전을 다루어야 하는 가족에게 필요한 요소이다.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가족이 문제를 예방하고 미래의 위기와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정민자, 유순희, 2013; 정민자, 윤선아, 2014; 정민자, 윤경원, 2016). 기능적인 가족은 위기 상황에서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 원인을 구체화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협상,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정수경, 2010).

<표 1>가족 레질리언스 구성요인(Walsh, 1998; 양옥경 외 역, 2002)

신념체계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협력의 가치:관계에 기초한 레질리언스 ·가족생활주기의 방향: 역경과 고통의 개념화 및 정상화 ·결속감: 의미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관리할 만한 도전으로서의 위기 ·위기, 고통, 회복의 평가: 개방 대 억압
	긍정적 시각 ·적극적인 주도성과 인내 ·용기와 격려하기 ·희망적, 낙관적 관점의 유지: 불평등을 극복하는 자신감 ·강점과 잠재력에 초점두기 ·가능한 것의 정복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의 수용
	이데올로기(초월과 영성) ·보다 큰 가치들과 목적 ·영성: 믿음, 친교, 의식들 ·영감 : 새로운 가능성 계획 ·변화: 위기로부터의 학습과 성장
조직과정	융통성 ·안정성과 변화의 균형 ·혼란 중의 지속성, 의존성
	연결성 ·상호지지, 협력, 책임을 통한 강점 ·개인적 욕구, 경계의 존중 ·강력한 리더십: 아동과 상처입기 쉬운 가족구성원에 대한 양육, 보호, 안내 ·재결합, 고통스러운 관계의 화해 탐색
	사회 및 경제적 자원 ·확대된 친지와 사회적 지지의 동원: 모델들과 멘토들 ·중요한 지역사회망 확립 ·재정 보장 확립: 일과 가족 긴장의 완화
의사소통과정	명료성 ·명확하고 지속적인 메시지(말과 행동들) ·애매한 정보의 명료화: 진실 찾기/진실 말하기
	개방적 정서표현 ·광범위한 감정공유(기쁨과 고통; 희망과 공포) ·상호 감정이입: 차이에 대한 관용 ·자신의 감정, 행동에 대한 책임: 비난 피하기 ·유쾌한 상호작용: 유머

	<p>상호협력적 문제 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 스트레스 요인, 대안 및 억압 규명하기 ·창조적인 브레인 스토밍: 자원 ·공유된 의사결정: 협상, 공정성, 상호관계 ·갈등해결 ·목적에 초점두기: 구체적인 단계 밟기 ·성공 위에 세우기: ·실패로부터 배우기 ·예방적 자세: 문제예방, 위기의 전환, 미래의 도전에 대한 준비
--	--

3) 가족 레질리언스의 선행연구 고찰

가족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가족 레질리언스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가족 레질리언스는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견뎌내어 불리한 조건에서 일어나는 능력(윤수희, 2005)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성장시켜 가족관계에서 최선의 것을 도출하여 구성원 모두의 생존능력과 성장에 대한 잠재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김안자, 2009)이다.

또한, 가족 레질리언스는 개인 레질리언스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구성원들로 하여금 역경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가족 특성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박혜란, 2014). 조원섭(2017)은 가족 레질리언스는 역경으로부터의 긍정적 적응과 회복,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보호요인들이 작용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족 레질리언스 논문은 1999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했다(박혜란, 전귀연, 2012). 초기에는 연구주체가 대부분 장애인 가족에 대한 것으로 주로 고난과 역경에 처한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점차 가족 레질리언스 개념을 일반가족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연구대상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빈곤 가족, 다문화 가족, 치매나 만성질환자 가족, 한부모 가족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연구형태도 양적 연구에서 질적연구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박혜란, 전귀연, 2012).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가족과 부부를 대상으로 한 가족 레질리언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재혼가족과 이혼여성 한부모 가족(안순옥, 2008; 임유미, 2007), 알코올중독자 가족(안연선 외, 2010; 홍정남, 2007; 황동섭, 2013), 정신분열병 환자 가족(이민아, 2006; 이은희, 2000), 장애아동가족(김미옥, 2001; 오승아, 2002), 만성질환아 가족(기화, 정남운, 2004; 이선애, 2004), 치매노인 부양가족(유용식, 2007; 윤수희, 2004; 조영선, 2005) 등과 같이 가족관계와 가족 구성원의 삶에 변

화와 회복을 요구하는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우리 사회에 다문화 가족의 증가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가족 내의 스트레스에 관점을 두고 있으며 일부는 가족 건강성과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해 다루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나 가족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강현옥, 황혜원, 2009; 이미경, 2018; 이은희, 2009; 이은희, 옥경희, 2012; 이정란, 2012)에서는 가족 스트레스의 대응자원으로 가족 레질리언스를 꼽고 있다(백지은 외, 2019).

선행연구들에서 보듯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정신질환이나 중독 문제, 투병, 문화적 갈등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 역경에 처한 가족의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가족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과 대처에 대한 개입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강점과 잠재력에 초점을 둔 접근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족 레질리언스를 향상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주목할만한 인물의 생애를 통해 그들의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하고 그들의 가족 강점을 발굴해 본받고자 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윤경원(2018)은 마리 퀴리를 활용한 ‘가족 레질리언스 향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에서 과학자 마리 퀴리의 가족 레질리언스에 나타난 특성과 성격강점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가족 레질리언스 향상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와 자녀의 긍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지현(2018)은 신사임당의 생애사를 통해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하였는데 신사임당 원가족의 신념체계에서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와 초월과 영성이 두드러졌고 조직과정에서는 풍요로운 사회 및 경제적 자원이 많았으며, 가족 의사소통과정은 양성평등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생애와 가족 레질리언스를 연구한 한복희(2019)는 안중근이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 수많은 위기를 겪었으나 가문의 정신적 유산을 바탕으로 가족과 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힘입어 독립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정희(2020)는 가톨릭 수도자로서 평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간 이태석 신부의 생애를 통해 그의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하였다. 이태석 신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헌신적 사랑과 형제의 우애 속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가정 공동체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족의 영성과 종교적 관계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서현실(2021)은 ‘빌 게이츠 생애에 나타난 성격 강점과 가족 레질리언스 및 가족 정서체계 연구’를 분석하였다. 빌 게이츠의 가족은 신념체계 중에서 긍정적 시각과 초월과 영성이 두드러졌고, 조직과정에서 연결성과 사회 및 경제적 자원이 풍부했

으며 의사소통과정에서 명료성과 개방적 정서 표현이 뚜렷하였다. 또한, 상호협력적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 가족 레질리언스를 증진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김현정(2023)은 ‘화가 이중섭 생애에 나타난 작품경향과 생태체계 및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에서 화가 이중섭의 가족 레질리언스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중섭은 Walsh(2002)의 가족 레질리언스 이론 중 모든 하위요인들이 존재하였다. 신념체계에서는 역경에 굴하지 않는 신념과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이 드러났고, 조직과정에서는 경제력과 가족의 지원 등 이중섭이 예술가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가족 자원이 있었다. 의사소통과정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끊임없는 애정표현,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처럼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의 적응성과 안정을 강조하는 특성과 관련되며, 가족 구성원은 서로 지지하고 사랑하며 친밀감이 형성되어 상호 간의 믿음과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고 긍정적 보상으로 강화하게 된다. 형제자매간에 결속력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꺼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가족 레질리언스는 어린 시절부터 개발 및 형성되어 일생에 걸쳐 지속된다(이경미, 2010).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문화관광부에서는 1999년 11월에 장계향을 ‘이 달의 문화인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신사임당이 1992년 5월에 초충도를 그린 조선의 화가로 문화인물에 선정된 데 이어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선정된 것이다. 유교의 영향으로 남녀 차별의 폐해가 심했던 조선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넘어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을 꼽자면 신사임당(1504~1551)과 임윤지당(1721~1793) 그리고 장계향을 들 수 있다.

신사임당은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학자이며 현모양처이고 임윤지당은 조선 후기의 인물로 ‘윤지당 유교’를 저술한 성리학자이다. 장계향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며 신사임당과 임윤지당의 업적을 모두 이룬 전인적 인물로 조선시대에 유일하게 당대에 여중군자라고 불린 여성이었다(박희택, 2015).

조선시대의 다른 여성 위인들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지기는 하였지만 역사적 기록과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계향은 효녀이며 현모양처로, 높은 학문적 소양과 탁월한 예술적 재능을 가졌으며 교육과 봉사에도 커다란 행적을 남긴 인물이다(김시범, 2014).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어머니상을 꼽으라면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인물은 신사임당이다. 신사임당은 예술적 재능과 학문이 뛰어나며 가정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남편에 대한 지혜로운 내조, 그리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 인물로 지금까지도 칭송받고 있다.

그러나 장계향은 문인이자 명필가, 학문과 덕행으로 자녀를 교육한 어머니,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을 지극하게 섬긴 여성이면서 최초의 한글 조리서 ‘음식디미방’을 저술하는(허철희, 1996) 등 뛰어난 업적과 인품을 지닌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장계향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참혹하다고 여겨지는 전쟁인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인 1598년(선조 31년)에 경상북도 안동의 금계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경당 장흥효(1564~1633)는 퇴계 이황의 심학 학통을 계승한 조선 중기의 대학자였다. 장계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효녀로, 어진 아내로, 또한 훌륭한 어머니로서 전인적 인간상과 성인의 삶을 지향하고 평생에 걸쳐 실천하였다.

조선의 학자 권두인은 “장 부인은 유문에서 가르침을 받아 엄숙하고 단아하며 학

식이 있어 ‘여성군자’로 일컬어진다”라고 장계향의 아들 이현일이 저술한 ‘갈암 행장’에 기록하고 있다(신경진, 2013). 여중군자란 사대부 가문의 여성 중에서 학식이 풍부하고 부덕이 있다고 인정받은 여성을 일컫는 개념으로서 조선시대에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찬사라고 할 수 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장계향은 다섯 살 때 아버지 장홍효가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외우기도 했다. 어린 딸의 총명함을 본 장홍효는 딸에게 성현들의 말씀을 가르쳤으며 군자가 되기 위한 기본서인 『소학』과 중국의 역사서 『십구사략』 등을 읽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선 중기 사회는 아무리 양반가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여자가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이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였다. 여성에게 주어진 최선의 가치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에게는 현명한 아내, 자식에겐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집안의 화목을 유지하고 가문의 대소사를 원만히 수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장계향은 15세에 스스로 학문에 대한 열망을 놓고 병약한 어머니를 대신하여 집안을 꾸려나가는 일에 열중하게 되었다.

장계향은 혼인하기 전이나 혼인 후에도 부모와 친척, 이웃 등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마음과 변함없는 행실로 대하였고, 남이 보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닦아나갔다. 19세에 아버지 장홍효의 주선으로 아버지의 제자인 이시명에게 재취로 혼인한 후에는 남편의 전처소생인 1남 1녀를 자신이 낳은 자식과 한치의 다름없이 정성을 다하여 양육하고 교육하였다.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기보다는 평범한 딸이자 가정주부로서 친정과 시가 두 집안 모두를 당시 사회공동체의 기둥이 되는 가문으로 일으켜 세웠고 10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 냈다(심진희, 2015). 남편 이시명과는 결혼생활 내내 늘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으며 남편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는 협력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였다.

자녀들에게는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착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라고 가르치며 학문보다는 실천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였고 자신도 성리학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여 교훈으로 삼게 했다. 장계향의 이러한 삶의 철학은 자신과 가족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흉년으로 나라에 기근이 들었을 때 장계향은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죽과 밥을 지어 먹였고 아픈 사람들을 직접 치료하였으며 노인과 고아들을 데려다 보살폈다. 수동적으로, 찾아오는 이들만을 구제한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음식과 땀감을 나눠주었으며, 중병에 걸린 노비를 위해 죽을 만들어 직접 떠먹이며 간병하는 등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73세 무렵에는 조리백과서인 『음식디미방』을 저술하였는데 ‘장계향 선양회’에 의하면 이는 한글 최초의 백과서이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조리서이다. 또한 아시아에서 여성이 쓴 최초의 조리서이다. 『음식디미방』은 장계향이 어린 시절부터 직접 보고 배워 익힌 음식의 조리법을 쓴 것으로 당시 양반가의 식생활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이 기록이 후대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랐던 장계향은 『음식디미방』의 권말에 다음과 같은 필사기를 남기며 당부하였다.

이 책을 이렇게 눈이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 자식들은 각각 베껴 가되, 이 책을 가져갈 생각일랑 절대로 내지 말며, 부디 상하지 않게 간수하여 빨리 떨어져 버리게 하지 말아라(백두현, 2006).

17세기 이후 지금까지 장계향은 시대를 거슬러 훌륭한 여성의 표상으로 존경받고 있으며 장계향에 대한 연구(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9; 2011; 심진희, 2015 재인용)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장계향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김형수(1972)의 ‘석계부인 안동장씨에 대하여’로 볼 수 있다(홍필남, 2003). 심진희(2015)에 따르면 2008년부터 경상북도가 여성인물 선양사업을 통해 장계향의 업적을 널리 알리는 등 재조명함에 따라 경상북도의 위대한 어머니이자 본받을 여성 인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장계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한글 최초의 조리서인 『음식디미방』과 관련된 연구(이난수, 2014; 남권희 외, 2017; 김업식, 2018; 심지윤, 2021; 한학중, 2022)와 장계향의 인성과 군자적 삶의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성리학과 관련된 연구(김춘희, 2012; 최재목, 2014; 김영순, 2015; 장선희, 2020)가 있다.

장계향의 생애를 살펴본 결과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서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 병약한 어머니를 대신한 주부로서의 역할, 전실 자식을 포함한 10명의 자식을 교육시키고 사회적·시대적 고난과 역경들을 수용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애민의 삶을 살아온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계향의 효 사상과 현명한 어머니이며 교육자, 실천하는 봉사자의 모습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허물어지지 않았던 가족의 레질리언스가 오늘날 현대 가족의 생활과 태도에 반영될 수 있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는 장계향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표 2> 연구대상자 선정 이유

<p>장계향 선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중군자: 1999년 11월에 문화관광부의 ‘이 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됨 ·저술가: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조리서인 『음식디미방』을 씀 ·어질고 바른 어머니: 자애와 훈육으로 10남매를 훌륭히 키움 ·교육자: 제주보다 선행을 강조함 ·사상가: 1627년 정묘호란 때에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자고 호소함 ·사회사업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속에서 나라가 돌보지 않는 가난한 이들을 보살핌(애민사상) ·서예가: 조선시대 학자 정윤목(1571~1629)이 극찬함 ·예술가: 시인(학발시 외 시 8편이 전해지고 있음) ·화가: 송하 맹호도, 산수화
----------------------	---

(출처: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구성하였음)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대상인 장계향의 생애와 가족, 그의 업적을 연구하기 위해 선행 연구논문과 도서, 장계향 선양회와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 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장계향과 관련된 문헌으로는 장계향의 시와 서예 등의 작품과 당대에 저술된 장계향에 관한 문헌 그리고 현대에 이루어진 장계향의 생애와 업적에 관한 연구자료(장선희, 2020) 등이 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검색하여 장계향의 생애와 예술세계, 가치관, 성리학 적 삶의 모습 등을 분석한 선행연구와 장계향의 저서인 『음식디미방』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수집하였다. 또한 장계향의 업적과 관련한 기념사업과 교육 연수, 일반인 체험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을 방문하여 장계향과 관련된 유물과 유품을 관람하였고 장계향이 임종 때까지 거주하였던 경북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을 답사하여 석계고택을 둘러보면서 장계향의 생전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장계향 관련 생애와 업적에 관한 선양·홍보와 교육·학술 사업 단체인 장계향 선양회에서 추천하는 장계향 관련 도서와 교보문고, 알라딘 등의 인터넷 서점을 검색하여 장계향의 생애, 『음식디미방』, 아버지 경당 장홍효의 저서 『경당일기』, 삼남인 갈암 이현일과 후손들이 장계향에 관해 저술한 국역 정부인안동장씨실기를 수집하였다. 이외에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과 장계향 선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주로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3> 장계향 생애 연구를 위한 참고문헌

학 술 논 문	<p>김형수. (1972). 石溪夫人 安東張氏에 對하여. 여성문제연구, 2, 229-263.</p> <p>이효지. (1984). 要錄의 調理學的 考察. 韓國 生活 科學 研究, 2, 73-83.</p> <p>정형지. (2003). 조선시대 기근과 정부의 대책. 梨花史學研究, 30, 231-257.</p> <p>김시범. (2014). 여중군자 장계향의 생애 고찰을 통한 만화기획 방향성 연구. 문화산업연구, 14(2), 11-22.</p> <p>최재목. (2014). 聖人을 꿈꾼 조선시대 여성철학자 張桂香. 양명학, 37, 143-175.</p> <p>도문학, 허만세. (2015). 노인자살의 생태체계요인에 대한 탐색연구. 社會科學研究, 31(2), 45-72.</p> <p>박희택. (2015). 기획논문:여성선비의 덕성과 맥락. 퇴계학과 유교문화, 56, 83-126.</p> <p>정혜경, 윤경수, 김미혜. (2015).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에 나타난 조리법 비교.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30(1), 41-53.</p> <p>최영성. (2018). 『홍범연의洪範衍義』를 통해 본 존재存齋·갈암葛庵의 학문. 국학</p>
------------------	---

	<p>연구, 35(2018), 9-41.</p> <p>최은주. (2019). '장계향' 연구 및 활용 성과와 지역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 재 탐색. 충청학과 충청문화, 27(1), 241-267.</p>
학위 논문	<p>홍필남. (2003). 安東 張氏의 藝術世界. 경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p> <p>김춘희. (2012). 장계향의 여중군자상(女中君子像)과 군자교육관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p> <p>김복희. (2013). 17世紀 張桂香의 生涯에 나타난 意識과 禮節의 現代的 照明.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p> <p>신경진. (2013). 장계향의 생애와 한시세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p> <p>심진희. (2015). 17세기 張桂香의 生涯에 나타난 價値觀의 現代的 照明.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p> <p>윤정미. (2015). 張桂香의 『음식디미방』 書體美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p> <p>김수정. (2019). 장계향의 삶과 인성 리더십 교육.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p> <p>장선희. (2020). 장계향의 삶과 철학에 나타난 자아실현 과정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p> <p>심지윤. (2021).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선택적 재현과 관광자원화. 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p> <p>임계성. (2021). 조선후기 여성인물전과 여성문집의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p>
단행본	<p>안동청년유도회. (1996). 정부인 안동장씨. 정부인안동장씨기념사업회.</p> <p>안동청년유도회. (1999). 위대한 어머니 : 정부인 안동장씨. 안동청년유도회.</p> <p>백두현. (2006). 음식디미방 주해. 글누림.</p> <p>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2). 장계향학 문헌자료. 경북여성정책개발원.</p> <p>장흥효. (2012). 국역 경당일기. 한국국학진흥원.</p> <p>정동주. (2014). 여중군자 장계향 행실기. 장계향 선양회.</p> <p>홍순희. (2016). 장계향 삼종지도3.0. 계명대학교 출판부.</p> <p>남권희, 박록담, 백두현, 주영하, 배영동, 차경희, 임기영, 장윤수. (2017). 음식 디미방과 조선시대 음식문화. 경북대학교 출판부.</p> <p>이재호 (2018). 국역 정부인 안동장씨 실기. 국역 정부인 안동장씨 실기 간행소</p> <p>천정웅 (2019). 질적연구방법 : 총론. 양서원</p> <p>한복려, 박준희, 이소영, 임승정, 장소영, 정라나, 진선미, 최순아. (2022). 다시 보고 배우는 음식디미방. 궁중음식문화재단 선일당.</p>
온라인	<p>황상익. (2013. 05. 21). 수명이야기(1). 다산포럼.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 <p>장계향선양회. http://www.janggyehyang.or.kr/bbs/content.php?co_id=jlife</p> <p>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https://www.yyg.go.kr/jghcenter/jgh</p> <p>경상북도. (2020). 지정문화재 현황. 문화재자료 제658호. https://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culture/page.do?mnu_uid=5111&cmd=2&id=002541</p>

통계청. (2023). 인구상황판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Detail.do>

다음 사전. (2023). 레질리언스.

[https://dic.daum.net/search.do?q=%EB%A0%88%EC%A7%88%EB%A6%](https://dic.daum.net/search.do?q=%EB%A0%88%EC%A7%88%EB%A6%AC%EC%96%B8%EC%8A%A4)

[AC%EC%96%B8%EC%8A%A4](https://dic.daum.net/search.do?q=%EB%A0%88%EC%A7%88%EB%A6%AC%EC%96%B8%EC%8A%A4)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장계향이 여중군자로 인정받는 위인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명문가로 존경받는 가문을 일구어낼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장계향의 생애와 생태체계, 가족 레질리언스를 문헌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생애사 연구는 주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심층면접과 관찰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이 연구의 대상인물인 장계향은 현재 생존하지 않으므로 문헌을 통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분석은 질적연구의 한 방법으로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문헌분석은 20세기 초반부터 이루어졌다. Robinson과 Reed(1998)는 “문헌연구는 연구주제와 관련해서 이미 알려진 학술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연구방법 중의 하나”라고 정의한 바 있다(민영천 외, 2015).

미국의 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트는 2차대전이 종전된 후 일본 관련 문헌과 그림, 영화, 연설문과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과의 면담(김영천 외, 2015)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여 『국화와 칼』이라는 일본인의 국민성에 관한 연구서를 발표하였고, Thomas와 Znaniecki(1958) 또한 폴란드 농민들의 미국 이민에 얽힌 역사를 문헌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김영천과 정상원(2015)에 따르면 문헌 중에서 개인의 삶이 기록된 일기나 편지, 회고록과 자서전 등이 개인적 문서에 포함된다. 장계향 관련문헌으로는 장계향의 저서와 시편, 서간 등의 작품과 당대 장계향에 관한 문헌, 현대에 이루어진 장계향 관련 연구자료 등이 있다. 이렇게 수집한 문헌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장계향의 생애를 분석하였다.

Bronfenbrenner(1992)는 생태체계 분석에서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고 참아내며 성장하는 존재라고 보고 인간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호조절하며 발전하는 과정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김현정, 2023). Belsky(1980)는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 생태학 모형을 토대로 하여 환경체계를 개체발생적 체계(개인적 특성), 미시체계(가족), 외체계(지역사회), 거시체계(문화)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Kemp(1998)의 모형은 미시수준에는 개인적 수준의 변수들(개인적 행동, 성격, 개인적 동기, 정신병리학적 측면) 등을 포함하였고, 중간수준에는 가족체계 내에서 기능하는 것들을 포함하였으며, 거시수준에는 지역사회와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였다(송영달, 손지아, 박순미, 2010). 본 연구에서는 Bronfenbrenner(1979)와 Belsky(1980)의 모형을 보다 단순화하여 제

시한 Kemp(1998)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장계향의 생태체계를 분석하였다. 즉, 장계향의 생태체계를 개인체계와 가족체계 그리고 사회체계로 나누어서 장계향의 생애에 영향을 주었던 환경들을 분석하였다.

가족 레질리언스에서는 Walsh(2002)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장계향 가족의 신념 체계와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의 핵심요인을 각 요소별 하위요소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으며 생애사적 관점으로 장계향이 살았던 조선 중기의 시대적 상황과 가족사건을 정리하고 장계향의 가족 레질리언스를 분석하였다.

4. 연구절차

생애사 연구 절차는 크게 연구대상의 선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 해석과 글쓰기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연구대상의 조사 선정에서, 장계향은 경상북도 영양의 대표적인 인물로 신사임당과 더불어 조선시대의 뛰어난 여성 위인으로 존경받았던 인물이다. 부모에게는 총명하고 효성 깊은 딸이었으며 혼인 후에 남편에게는 현명한 아내, 자녀에게는 자애로우면서 훌륭한 교육자 역할을 하였다.

그는 여성의 학문적 자유나 대외적 활동이 쉽지 않았던 시대에 살면서도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는 집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애민정신을 실천하였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수용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여 가치있는 삶을 충실히 살고 간 장계향은 사회에 어른이 존재하지 않는 현 시대에 필요한 참여어른이요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장계향을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선정하였다.

둘째, 자료 수집의 단계에서는 장계향의 생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장계향과 관련한 선행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인터넷 자료, 단행본 등을 검색하였다. 기록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주로 장계향 선양회, 안동청년유도회,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계명대학 출판부 등 비교적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간하거나 추천한 문헌들을 바탕으로 하였고 장계향의 아버지인 경당 장홍효, 장계향의 3남인 갈암 이현일, 장계향의 남편인 석계 이시명 선생과 관련된 자료도 포함하였다. 또한 장계향이 저술한 음식디미방과 관련하여 최초의 한글 조리서로서의 가치와 장계향의 서체를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원전, 주해 등을 함께 수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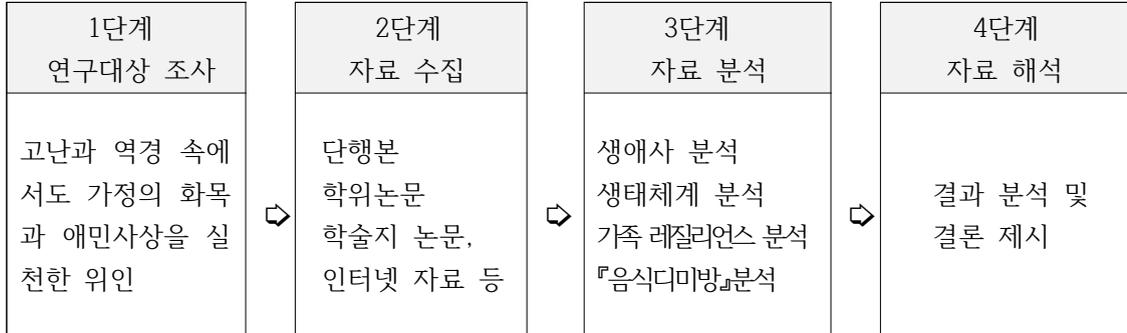
셋째, 자료 분석의 단계에서는 수집한 문헌들을 이용하여 장계향이 살았던 조선시대의 사회상, 가문과 생애를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장계향이 여성이면서 당대에 군자로 추앙받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의 생태체계 즉, 개인체계와 가족체계 그리고 사회체계가 장계향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성장기와 혼인 이후 장계향과 그의 가족에게 닥쳤던 고난과 역경의 시기에 가족 레질리언스가 어떻게 발현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장계향의 저서인 최초의 한글 조리서 『음식디미방』에 담긴 내용과 역사적 가치, 장계향의 저술과정을 살펴 보았다.

넷째, 자료 해석의 단계에서는 장계향의 생애에서 나타난 생태체계와 가족의 레질리언스 그리고 『음식디미방』에 관해 분석한 자료를 연구자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결론 부분에서는 장계향의 생애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현대의 가족들이 교훈으로 삼아 배울 수 있는 점

은 무엇인지를 찾아보았다.

<표 4> 연구 진행 과정



IV. 연구결과

1. 장계향의 생애와 가문

1) 장계향의 생애

(1) 성장기

장계향에 대한 기록은 『정부인 안동 장씨 행실기(行實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장계향의 아들 갈암 이현일이 쓴, 어머니에 대한 기록인 『정부인 안동 장씨 행실기(行實記)』는 이현일이 기사환국(1689년) 시기에 이조참의가 되었을 때, 갑술환국(1694년) 귀양 중에, 이조참판이 되었을 때(1690년) 쓴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에도 후손들에 의해 내용이 계속 추가되었다(심진희, 2015).

장계향은 선조 31년(1598년) 11월 24일에 안동부 금계리에서 아버지 장홍효와 어머니 안동 권씨 사이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안동부 금계리는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장계향의 부모가 결혼한 지 18년 만에 얻은 귀한 딸로 아버지 장홍효는 ‘기특하게 사랑하였다’고 『정부인 안동 장씨 행실기(行實記)』에 기록되어 있다. 장계향의 아버지 장홍효의 호는 경당으로 퇴계 이황의 학통을 이어받은 학봉 김성일에게 사사한 성리학자였다. 학봉 김성일의 사후에는 서애 유성룡(1542~1607)과 한강 정구(1543~1620)에게 학문을 배웠다. 따라서 퇴계 이황의 심학은 학봉 김성일과 서애 유성룡, 한강 정구에게서 경당 장홍효로 이어졌고 장홍효를 통해 장계향에게도 가르침이 이어졌다.

장계향이 태어날 무렵은 임진왜란(1592~1598)이 막바지에 이르고 이어서 발생한 정유재란(1597년)으로 인하여 나라는 피폐해지고 백성들의 삶은 팍팍하였다(장선희, 2020).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과 기후변화³⁾에서 오는 흉년으로 백성들은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는 반면에 권문세가의 무사안일과 탐욕은 극에 달하는 시기였다.

장계향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효심이 깊으며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였다. 아버지

3) 조선시대 기후변동은 크게 세 시기의 소빙기로 나누어진다. 1511년~1560년까지는 소빙기 제1기로 여름이 한랭하고 겨울은 이상난동이 있었고, 제2기는 1641년~1740년대로 여름은 한랭하고 가을이 심했으며, 1801~1850년까지는 제3기로 비가 많았고 저온기후를 보였다(정형지, 2003).

[그림 2] 경당고택(안동 금계리)



장홍효는 이런 딸을 기특히 여겨 유교사회의 필수적인 도덕규범을 담아놓은 유교 입문서인 『소학(小學)』과 중국의 역사서인 『십구사략(十九史略)』을 가르쳤는데 장계향은 애씀 없이 그 뜻을 깨우쳤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배우고 익힌 것을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 직접 체험하고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 힘썼다. 장계향의 총명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선생(장홍효)께서 일찍이 문인 소자(文人小子)들과 원회운세(元會運世)⁴⁾의 운수를 말하게 되자, 이 학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조금 뒤, 돌아와 안방에 들어와서 부인(장계향)을 불러서 그 학설을 물으니, 부인은 나이가 열 살 남짓한데도, 잠시동안 말없이 잠잠히 앉아 있다가 그 수를 낱낱이 세어서 대답하므로, 선생이 아주 기특하게 여겼대(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장홍효는 열살 남짓한 어린 딸을 틈나는 대로 데리고 앉아 성현들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것은 훗날 장계향의 군자적 삶에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다. 아버지에게서 지경(持敬)과 수신을 배웠고, 타고난 총명함에 아버지의 공부법을 본받아 문예적 기법과 안목, 역사에 대한 의식, 인생과 우주의 원리에 대한 기반을 다지면서 성리학자로서의 면모가 다듬어졌다(최재목, 2014).

장계향이 참혹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현실을 수용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한 배경에는 퇴계의 경(敬)사상이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 퇴계의 학통을 이어받아 실천한 장홍효에게서 배운 성리학과 심학이 바탕이 되어 경(敬)의 정신으

4) 일년(一年)이란 단위 보다 더 높은 우주 변화의 단위에 <원(元)>이 있다는 학설. 중국 북송 오자(北宋 오자)의 한 사람인 소옹(邵雍:1011-1077)이란 유학자가 쓴 황극경세(皇極經世)의 이론.

로 인간존중과 인간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덕성이 빛을 발하였다(박근화, 2019).

장계향의 재능은 학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조선 중기에 『청풍자문집』을 저술한 학자로 유명한 정윤목(1571~1629)은 장계향이 쓴 『적벽부』의 초서체를 보고 “필세가 굳세고 강하므로 동방 사람의 서법과는 같지 않으니 중국 사람이 손수 쓴 필적이 아닌가.”하며 놀라워하였다(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이 시기에 장계향은 학발시(鶴髮詩), 경신음(敬身吟), 성인음(聖人吟), 소소음(蕭蕭吟)의 한시를 남겼다. 그중의 하나인 ‘학발시’는 멀고 먼 변방으로 끌려가는 외동아들을 보며 슬픔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가난한 팔순 노모의 모습을 보고 지은 시로 조선 중기 양민들 삶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장계향은 어린 나이였지만 그 장면을 보며 노파의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고 있다. 장계향은 자신이 느꼈던 애통함을 계기로 전 생애에 걸쳐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보살피는 것을 삶의 과제로 삼게 되었다(설흔, 2020).

학발시 3장(鶴髮詩 三章)

鶴髮臥病	백발 늙은이가 병들어 누웠는데
行子萬里	아들을 떠나면 변방(邊方)으로 떠나보내네
行子萬里	아들을 떠나면 변방으로 떠나 보내니
曷月環矣	어느 달에나 돌아올 것인가
鶴髮抱病	백발 늙은이가 병을 지니고 있으니
西山日迫	서산(西山)에 지는 해처럼 생명이 위급하네
祝手干天	두 손바닥을 마주 대고서 하늘에 빌었으나
天何漠漠	하늘은 어찌 그렇게도 반응이 없는고
鶴髮扶病	하얀 늙은이가 병을 무릅쓰고 억지로 일어나니
或起或踣	일어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네
今尙如斯	지금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絕据何若	아들이 옷자락을 끊고 떠나간다면 어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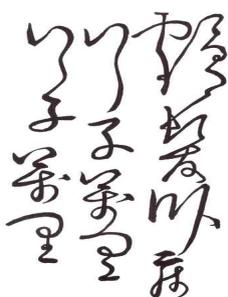
(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학발시에는 다음과 같이 장계향이 쓴 주(註)가 남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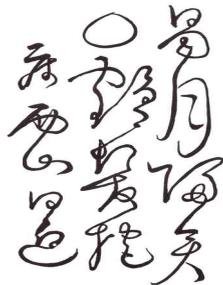
“이웃 마을 여인의 남편이 변방의 수자리를 떠나가니, 80세가 된 남편의 어머니는 기절했다가 다시 소생했으나, 슬퍼한 끝에 거의 생명을 잃을 뻔하였다. 내가 이런 말을 듣고서는 그들의 사정을 슬피 여겨 이 시를 짓게 되었다(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장계향의 문학적 재능은 외조부인 권사온(1514~ ?)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윤정미, 2014). 권사온은 사위인 장홍효와 딸 안동 권씨를 위해 지은 시 ‘송장행원환가(送張行原還家)’를 남겼다. 장계향이 남긴 시에는 여타의 여성 문인들과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 장계향의 시에는 사랑이나 그리움 또는 자연풍경의 묘사나 즐거움, 효심에 관한 표현은 찾아보기 힘들다(홍필남,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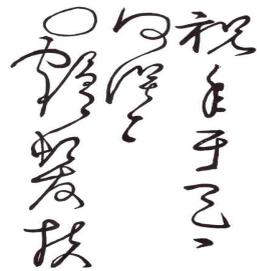
[그림 3] 장계향의 글씨(학발시)



<其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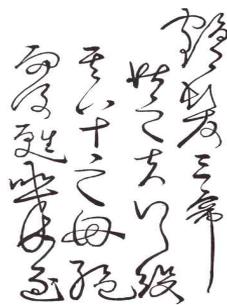
<其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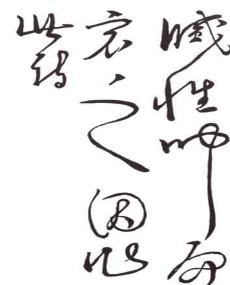
<其 3>



<其 4>



<其 5>



<其 6>

장계향의 시는 어린 시절에 지은 4편과 노년기에 지은 5편 등 모두 9편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시편들의 바탕에는 인간적인 수양과 옹고 바른 학문의 수업, 인격도야(홍필남, 2003) 등 장계향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시했던 정신세계가 깃들여 있다. 이 시기에 장계향은 그림에도 재능을 보여 ‘송하맹호도(松下猛虎圖)’와 ‘낙화’라는 작품을 남겼다. ‘송하맹호도’는 용맹한 호랑이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한 작품이

고 ‘낙화’는 인두로 지져서 그린 그림인데 채령 이씨 가문이 직접 소장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림 4] 송하맹호도



[그림 5] 낙화(인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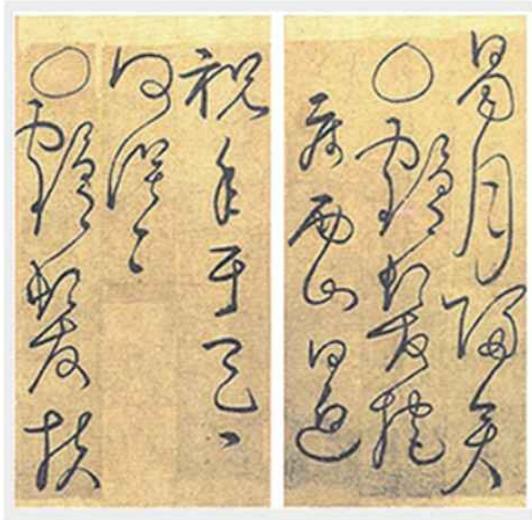
그러나 점차 성장하면서 장계향은 “시를 짓고 글자를 쓰는 것은, 모두가 여자가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글씨를 쓰고 시를 짓는 것을 스스로 그만두게 되었고 자신의 작품들을 태워버려 아버지 장흥효가 간직한 몇 외에는 아쉽게도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다.

“또 문필까지 통달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장과 정묘한 필적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놀라게 한 것도 또한 많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나이 겨우 15세가 되자, 이런 일은 여자가 마땅히 할 일이 아니라고 여기고는 딱 끊어버리고서 다시는 하지 아니했으니, 부인이 자기 재능을 숨기어 감추는 덕과 정숙하고 조용한 성품은 이런 일에 있어서도 또한 알 수가 있겠다(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장계향의 시편 소소음과 성인음은 아버지 장흥효가 간직하고 있다가 손자들에게 건네주었는데 후에 남편인 석계 이시명이 글로 옮겨 쓰고 며느리 박씨가 수를 놓았다. 이것을 전해져오는 다른 시편들과 묶어 『전가보첩(傳家寶帖)』이라고 이름 지었고, 학발시 3장은 별도로 묶고 제목을 『학발첩(鶴髮帖)』이라고 썼다(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전가보첩과 학발첩은 훌륭한 인품과 덕행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정부인 안동장씨와 관련된 자료로 의미가 있음을 인정받아 2018년 2월 22일 경상북도의 문화재자료 제658호로 지정되었다(경상북도, 2018).

[그림 6] 학발첩(鶴髮帖)



[그림 7] 전가보첩(傳家寶帖)



아버지 장홍효는 당대에 인정받은 학자였으며 그에게 가르침을 받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의 집은 많은 손님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그만큼 여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장계향의 어머니 안동 권씨는 병약한 사람이었다(김춘희, 2012). 잦은 손님치레는 힘에 겨웠고 게다가 결혼하고 17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조바심과 장씨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데 대한 미안함으로 힘들어했다.

권씨는 중년 무렵 장질부사에 걸려 앓아눕게 되었다. 장계향은 오랫동안 병석에 누운 어머니를 위해 밤낮으로 울면서 모시었고 음식을 일일이 손수 장만하여 드시게 하였다(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열일곱 살이던 장계향은 병석에 누운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 살림과 손님 접대를 맡게 되었고 어머니의 병이 나은 후에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다.

(2) 혼인 이후

충효당 시절

장계향은 19세 되던 해인 병진년 1616년(광해 8년)에 석계 이시명(1590~1674)과 결혼하였다. 이시명은 본관이 재령으로 의령 현감을 지냈던 운악 이함의 아들이다. 1612년(광해 4년)에 생원 진사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들어갔지만 광해군의 폭정을 겪고 과거를 단념하여 성균관을 나왔다. 그 후에 퇴계 문하의 학봉 김성일과 서애 유성룡의 가르침을 받은 장홍효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이시명은 27세로 장계향보다 8살 위였고 이미 9년 전에 광산 김씨와 결혼하여 1남 1녀가 있었으나 두

해 전에 사별하였다.

장흥효가 그토록 아끼던 외동딸을 몰락해가는 집안에, 그것도 재취로 시집을 보낸 것이다. 당시 장흥효의 학문과 덕행은 지역에 널리 알려져 많은 제자가 모여들었고 이시명도 장흥효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있었다. 장흥효는 이시명이 자신의 학문을 계승할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했고 궁극적으로는 학문적 적통(嫡統)을 계승하여 후세에 빛낼 수 있다고 믿어 특별히 아끼고 가르치는 제자였다.

훌륭한 제자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장흥효로 하여금 나이도 많고 이미 자식도 있는 할아버에게 19살의 귀한 외동딸을 시집보내는 용단을 내리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신경진, 2013).

[그림 8] 충효당 종택 편액



[그림 9] 충효당 종택 전경



당시 시가의 상황은 큰 아주버니는 일찍 죽고 손윗동서와 슬하에 5남매가 남아 있었다. 게다가 둘째 아주버니도 죽고 그 아내도 남편을 따라 자결을 하였다. 김춘희(2012)에 의하면, 『정부인안동장씨 실기』의 내용을 토대로 장계향의 가계도를

헤아려 보았을 때, 시아버지 이함 이하 그 당시 시가의 현황은 다음과 같았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였다.

<표 5> 장계향의 시가(媿家) 현황(김춘희, 2012)

-
- 시아버지(운악 이함), 시어머니(진성 이씨)
 - 큰 시아주버니(시청)의 아내(손윗동서), 자식 2남 3녀
 - 둘째 시아주버니(시형)의 아내(손윗동서), 자식 1남
 - 시동생 시성
 - 죽은 광산 김씨(이시명의 전처)가 낳은 1남(상일) 1녀
 - 노비 15명 정도
 - 형편이 어려운 일가친척과 사랑채에 머무는 손님 10여 명
 - 이시명과 장계향 내외 등 40여 명이 함께 살았던 것으로 추측됨
-

이와 같은 사정으로 장계향은 셋째 며느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맏며느리 역할을 해야 했다. 장계향은 시부모님을 섬기는데 성심을 다하였고 매사를 삼가 조심하는 예절이 갖추어져 있었다. 남편 이시명과의 관계에서도 60여 년을 사는 동안 부부가 서로 손님을 대접하듯 정중하게 대하였으며 모든 일을 남편과 상의하여 승낙을 받고서야 행하였다(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또한, 전부인 광산 김씨가 낳은 1남 1녀를 자신이 낳은 자식과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였으며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아끼고 돌보아주었다.

그러한 마음 씀씀이는 가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는데 집에서 부리는 어린 노비들을 마치 자식처럼 보살폈고, 혹시 병을 앓는 노비가 생기면 손수 음식을 만들어 먹이기도 했다. 또한 주위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아픔처럼 여겨 음식과 옷가지 등을 가져다 주며 도왔고 이러한 선행을 남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였다.

결혼 후에도 장계향은 1년에 한 번씩 친정을 오가며 친정 부모님의 안위를 살피고는 했다. 1622년에 친정어머니 안동 권씨가 세상을 떠나 이버지 장홍효가 홀로 남게 되자 장계향은 3년 상을 지내기 위해 친정에 머물렀다. 아내와 사별하고 아들도 없이 홀로 늙어가는 아버지를 위해 장계향은 장홍효를 안동 권씨와 재혼시켰고 장홍효는 예순을 훨씬 넘은 나이에 두 번째 부인에게서 3남 1녀를 얻었다.

계모인 안동 권씨는 장계향보다 세 살 어렸고 집안 살림이 서툴렀다. 장계향은 1624년까지 친정에 머무르며 새어머니에게 경당 가의 살림을 가르쳐주고 3년 만에 시가로 돌아왔다. 1633년에 친정아버지가 70세로 세상을 떠나자 새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인근으로 데려와 집을 짓고 살도록 하고 평생 친정 식구들을 돌보았다.

이러한 장계향의 효심에 관해 아들인 갈암 이현일은 “사람들은 선군자(先君子)의 의리를 장하게 여기면서도 부인의 효심을 칭찬했던 것이다”라고 기록하였다(정부인 안동장씨실기, 2018).

장계향의 나이 35세인 1632년 6월 15일에 시아버지 이함이 돌아가셨다. 당시 이함의 재산은 농사가 1만 석지기였고 농사짓는 일손이 3백여 명이나 되는 큰 살림이었다. 그때까지 집안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운영했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는 삼종지도에 따라 아들의 뜻을 따라야 했다. 그러나 이시명이 3년 시묘살이를 하게 되어 결국 충효당의 살림은 장계향이 맡게 되었다. 장계향은 영해 지방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는 큰 살림을 실수 없이 운영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법도있게 행하였다.

1636년(인조14년) 12월에 병자호란이 발발했다. 중국의 변방에 살던 민족인 여진족이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후에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었다. 청나라는 조선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하였었고 적대적 관계인 명나라를 치기 위해 조선에 군량과 병선 등의 지원을 강요하였다.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 때에 원군을 파병해 준 명나라에 대한 고마움에 승명사상이 지배적이었고, 상대적으로 청나라는 오랑캐로 여기고 있었다. 명나라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조선은 청나라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청태종은 이를 빌미로 1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 땅을 침략하였다. 그때 장계향의 나이 39살이었다. 청나라의 침공 소식을 들은 장계향은 크게 한탄하며 마을 사람을 모아놓고 제나라 사람인 노중련(기원전305년경~기원전245년)의 고사를 이야기하였다.

“저 진이라는 나라는 예의를 버리고 단지 싸움터에서 적의 목을 많이 베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잔인무도한 침략주의 국가이다. 만약 진왕이 중국을 군림한다면 나는 그런 임금 밑에서는 살 수 없으니 동해를 밟아 죽을 뿐이라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충열인가!”(김구현, 1999).

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병으로 나서자고 호소하였다.

석보춘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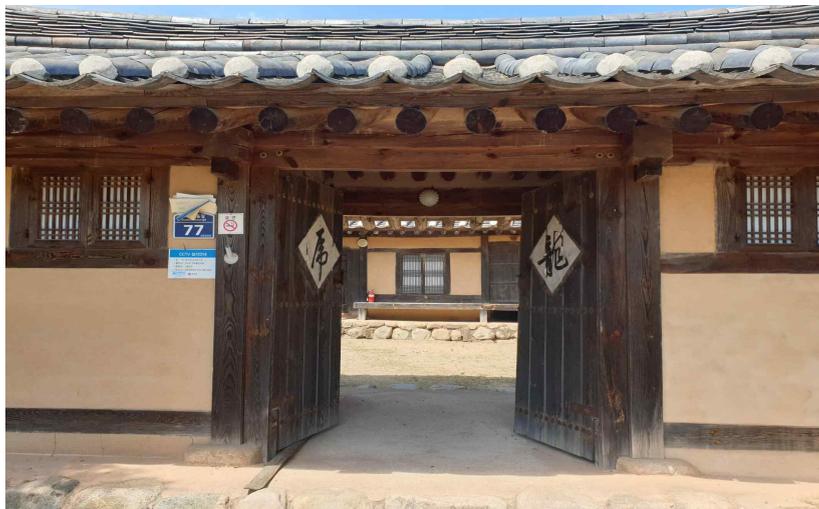
1640년 장계향의 나이 43세에 내외는 시어머니 진성 이씨와 아들 현일, 송일, 정일, 용일, 둘째 딸 명이와 노비들을 포함하여 30여 명의 대식구를 이끌고 영양 석

보촌으로 이사를 한다. 10여 년 전에 잠시 머물기 위해 흙담으로 지었던 초가집 다섯 채에 다시 역새를 엮어 덮는 등 약간의 손질을 해 두었었다.

이시명과 장계향은 영해 본가를 떠나면서 모든 재산을 그곳에 두고 왔다. 본가에 서 나오기 3년 전에 이미 큰 조카인 이상일에게 충효당의 재산을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이시명이 전에 과거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가 상으로 주신 땅 십여 마지기만을 가지고 50이 넘는 나이에 본가를 하였다.

석보로 이사한지 얼마 안되어 재앙이 시작되었다. 한여름에 우박이 내릴 정도로 서늘한 날씨가 오랫동안 이어져 모든 농사를 망쳤다. 연이은 이상기후에 따른 흉년으로 사람들은 기근으로 허덕이게 되었고 이시명의 식솔들도 굶주리게 되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장계향은 인근의 산을 개간하고 도토리나무를 심고 가꾸었으며 노비들과 함께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와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을 베풀었다.

[그림 10] 두들마을의 석계고택



1642년 겨울에 이시명의 노비들이 살던 처소에서 일어난 불로 초가집 다섯 채가 모두 불타 잿더미가 되었고 살림살이가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타버렸다. 30여 명의 식솔들이 한겨울 추위 속에 길에 나왔게 된 것이다. 소식을 듣고 놀란 자식들이 옷과 이불을 가지고 뛰어오자 장계향은 각자 흩어져 살던 자식들이 모인 것만을 기뻐하며 불행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았다.

장계향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6남 2녀이고 전부인이 낳은 1남 1녀가 있었다. 장계향은 전부인 광산 김씨가 낳은 1남 1녀를 지극한 사랑과 훈계와 깨우침으로

키웠다. 아들 상일은 학자로 키웠고 딸은 여국현에 시집을 보내 훌륭한 부녀로 마을에서 이름났다. 결혼시킬 때도 자신이 낳은 자녀보다 더욱 풍족하게 혼수를 마련 해주었다.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서도 깊은 애정과 엄격함을 보여 “너희들이 비록 글 잘한다는 명성이 들린다 해도 나는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선행을 했다는 것을 들을 때 나는 기뻐 잊지 않을 것이다(정부인장동장씨실기, 2018).”라고 말하고 있다. 공경함과 게으름, 의리와 의욕의 차이 등 성현의 말씀을 알기 쉽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효제충신의 정신을 자식들에게 늘 강조하였다.

장계향의 외현손인 대신 이상정(1711~1781)은 이에 대해 ‘부녀가 거처하는 안방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고금에 드문 일’이라고 평가하였다. 장계향의 이러한 교육관은 자녀들에게만 해당하지 않았다. 가문의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에게도 옛 성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바르게 살도록 끊임없는 가르침을 주었다.

*“선행은 사람들이 다 하고자 하는 바이다. 지금 어린아이에게도 가르키면서 말하기를 ‘네가 착하다’고 하면 아이가 기뻐할 것이고, ‘네가 착하지 못하다’고 하면 아이가 성을 낼 것이니, 선행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은 사람들 마음이 다같이 그렇게 여기는 바이다”*라고 하였다(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이현일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천하고 상스러운 말과 행동을 삼가고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은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금지하고 가르치신 덕분이라고 하였다.

장계향은 집안에서 부리는 하인들을 비롯하여 주변의 일까지도 공명정대하게 진심으로 응하고 다스려, 비록 여자이지만 군자로서의 덕행을 실현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인정받아 생전에 ‘여중군자(女中君子)’라는 호칭을 얻는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하당 권두인(1643~1719)이 『갈암집』에서 최초로 장계향을 ‘여중군자’라고 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윤정미, 2012).

또한 탁월한 식견과 부덕으로 재령 이씨 가문을 명가로 이름나게 하였는데 자손들을 학행으로 존중받는 영남학파의 중심인물들로 길러냈으며, 후손들 중에는 祖·子·孫 3대에 걸쳐 일곱 번이나 천작(天爵)을 받은 명문대가로 자리잡게 되었다(윤정미, 2012).

1670년경에는 자손들에게 집안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146가지의 전통요리법을 전승해주기 위하여 73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한글로 『음식디미방』을 저술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조리서이며 역사상 유일하게 민간음식의 재료 및 조리법과 저장법에 관해 저술한 것으로서 아시아에서 여성이 저술한 가장 오래된 조리서로 알려져 있다(윤정미, 2012).

[그림 11] 석천서당



1680년에 향년 83세를 일기로 영해부 석보의 넷째 아들 승일 집에서 별세하였고 남편 이시명의 묘소가 있는 안동부 수동의 산자락에 안장되었다. 사후 1689년에 셋째 아들인 갈암 이현일이 이조판서 직함을 받음으로써 아버지 이시명에게는 가선대부 이조참판(嘉善大夫 吏曹參判)이 내려졌으며 어머니인 장계향은 정부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그림 12] 장계향 비(1999년 11월 문화관광부 선정 ‘이 달의 문화 인물’ 기념비)



[그림 13] 이시명과 장계향의 묘소(안동부 수동)



<표 6> 장계향의 주요 연보

연도	나이	행적
1598	1세	안동부 금계에서 안동 장씨 장흥효와 어머니 안동 권씨의 무남독녀로 태어나다
1605	8세	『원회운세』를 스스로 깨우치다.
1606	9세	시편 ‘성인음’을 짓다
1607	10세	‘학발시’를 짓다. 정운목이 초서체로 쓴 장계향의 글씨를 보고 감탄하다
1608	11세	‘경신음’, ‘소소음’을 짓다
1612	15세	어머니가 앓아누워 장계향이 살림을 맡음. 어머니 간병을 하면서 간단한 약의 처방을 배움
1616	19세	장흥효의 제자 이시명과 혼인함.
1619	22세	첫 아들 휘일을 낳음
1622	25세	친정어머니 안동 권씨 타계하다. 아버지 장흥효 재혼시킴. 계모에게 집안 살림을 가르치고 도움.
1627	30세	둘째 아들 현일을 낳음. 정묘호란 발발하여 피난민과 걸인들을 도와줌
1631	34세	영양 석보로 분가하였으나 시아버지의 병환으로 시가로 돌아옴
1632	35세	시아버지 운약 이함 타계하다.
1633	36세	친정아버지 경당 장흥효 타계하다.
1634	37세	이복 큰동생을 데려와 가르치다.
1636	39세	병자호란 발발하다.
1637	40세	시어머니를 모시고 운약의 묘소가 있는 한밭골로 이사하다.

1638	41세	이시명이 모함으로 체포되었으나 무죄선고를 받음.
1640	43세	모은 재산을 큰조카에게 물려주고 영양 석보촌으로 다시 이사.
1644	47세	시어머니 진성 이씨 타계하다.
1652	55세	병자국치를 슬퍼하여 영양 수비로 이사. 식구 30여 명과 함께 은거하다.
1670	73세	『음식디미방』 저술을 마치다
1671	74세	조선 역사상 가장 처절한 흉년으로 100만 명이 굶어죽음. 장계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빈민을 구제함.
1674	77세	남편 이시명 84세로 별세하다.
1680	83세	영해 석보 넷째 아들 송일의 집에서 운명하다.
1689		셋째 아들 갈암 이현일이 이조판서 직함을 받음으로써 장계향에게 정부인 교지가 내려지다.

(출처: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2) 장계향의 가문

(1) 친가

장계향은 고려의 건국공신인 장정필(888~?)의 26대 손이다. 장정필은 중국 절강 성 소흥부에서 태어나 신라로 망명하였던 인물이다. 930년(고려 태조 13년)에 고창(지금의 안동)에서 안동 김씨의 시조 김선평과 안동 권씨의 시조인 권행과 함께 고려의 태조인 왕건을 도와 견훤의 군대를 물리친 공으로 고창군에 봉해지고 태사의 벼슬에 올랐다(윤정미, 2012).

그 후로 자손들이 안동을 본관으로 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장계향의 고조부는 훈련원 판관을 지낸 장흡이며, 조부는 전력부위 부장을 지낸 장팽수, 아버지는 장홍효이다. 장홍효의 호는 경당, 자는 행원이며 평생 벼슬을 하지 않고 은거하여 학문을 탐구하였다.

퇴계학파로써 영남학파의 영향을 이어받은 학봉 김성일(1538~1593)의 제자로 퇴계 이황(1501~1584)의 ‘심설(心說)’과 서애 유성룡(1542~1607)의 『심경(心經)』을 배웠으며, 한강 정구(1543~1620)로부터는 『심경발휘(心經發揮)』를 배워 이황의 심학적 전통의 합일점을 이룬 인물로 평가받는다.

퇴계 이황의 학맥을 살펴보면 우선, 학봉 김성일에서 장홍효로 이어지고 다음으로 장홍효의 외손자인 갈암 이현일에게서 대산 이상정으로 이어지는 갈래가 있다.

또 한 갈래는 서애 유성룡에서 정경세를 통하여 입제 정승로로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한강 정구에게서 미수 허목, 성호 이익, 순암 안정복으로 이어지는 기호 남인 학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갈래 중에서 퇴계 학문의 전승과 인물의 맥락에 있어서 학봉 김성일의 학맥이 가장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홍필남, 2003). 장운수(2006)는 이에 관해 “경당은 퇴계의 3제자로 평가받는 학봉 김성일과 서애 유성룡 그리고 한강 정구로부터 모두 가르침을 받았고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므로 퇴계학의 적전자로 평가받기에 손색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의 안동은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1501~1572)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학파가 형성되어 있었다. 장홍효는 퇴계학파의 전통인 경사상을 실천하여 이(理)를 궁리(窮理)하고 몸을 닦는 것의 요체로 삼았다. 그는 시·서·화 뿐만 아니라 문·사·철(文·史·哲)까지도 아우른 학자였다. 특히 역(易)에 깊은 조예를 거쳐 64괘를 절후(節侯)에 맞추어 배열하는 독득(獨得)의 일원소장도(一元消長圖)를 완성한 것으로 유명하다(홍필남, 2003).

장홍효는 평생을 실천적 학문 연구에 힘써서 퇴계의 학풍을 딸인 장계향과 외손자인 갈암 이현일에게 전승하여 영남학파의 맥이 이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퇴계 이황이 그러했던 것처럼 칠십 평생을 지경(持敬)의 삶으로 일관했다(장운수, 2008). 지경의 삶이란 ‘혼자 잘 때도 이불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혼자 길을 갈 때에는 그림자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글귀를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김춘희, 2012).

그는 17세기 경북 북부지방 성리학계의 최고의 학자였던 인물로 여러 면에서 퇴계학파의 중심에 있으며, 또한 그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퇴계학파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학문은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근본적으로 실천수양의 방면을 지향하였다.

장홍효는 외부 출입을 삼가하고 매일 자신이 행한 것과 생각을 기록하고 점검하며 학문에 몰두하였다. 비록 가난에 쪼들리는 생활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풍요로웠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사유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기를 썼는데, 성인이 된 이후부터 거의 평생을 이어갔다. 그의 일기는 자신의 수양과정을 기록해나간 공부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문하생들과의 학업과정도 충실하게 기록해 두었다.

장홍효가 쓴 공부록인 『경당일기』는 많은 부분이 유실되어 현재는 1614년(광해 6년)~1618년(광해 10년)까지의 기록인 중권과 (1619년(광해 11년)~1625년(인조 3년)까지의 기록인 하권, 총 2권만이 남아서 전해져 오고 있다.

그는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 안다고 하여도 배우고 아는 것으로 익혀지지 않으면 거짓일 뿐이고 공부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조심함을 으뜸으로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경으로 익히고 익혀 선에 도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퇴계의 심학을 강조하였다(김춘희, 2012).

이(理)를 밝히고 몸을 닦는 것을 학문의 목표로 삼고 『소학』과 『근사록』의 공부에 전념하였을 뿐, 과거를 보기 위한 공부와 같은 영달의 학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학봉 김성일은 어린 제자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의 배움은 정력(定力)이 있으니 후일 크게 성취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나의 제자 중에 이와 같은 인재를 얻으니, 자랑스럽다”며 크게 칭찬하였다(백태한, 2001).

장흥효는 자신의 정력을 이처럼 오로지 학문에 쏟았을 뿐 벼슬이나 관직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었다. 그는 70세에 병으로 누운 중에도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운명하는 날까지 제자들을 가르쳤던 교육자이기도 하였다(백태한, 2001).

장흥효는 평생에 걸쳐 실천적 학문연구에 몸을 바치고 퇴계 학통을 이어 외손자 이휘일과 이현일에게 전하여 영남학파를 잇도록 한 대학자이다. 그는 학봉 김성일의 제자이지만 서애 류성룡으로부터 더 많은 심학적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퇴계는 학문의 종류를 위인지학과 위기지학으로 나누었는데 장흥효는 그중에서도 사람의 도리를 알고 그 실천에 힘쓰는 위기지학의 자세로 생애를 일관하였다.

장계향은 아버지인 장흥효에게서 성인군자의 표본과 인격을 갖춘 완전인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그녀 또한 아버지처럼 삶을 살고자 마음에 새겼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김춘희, 2012). 장계향은 아버지 장흥효에게서 배운 성리학적 사상체계를 확립하여 그 자신 지행합일을 실현하였던 실천가이면서 시·서·화 등 예술방면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많은 작품을 남겼다.

장계향의 학문적 배경은 성리학이며 구체적으로는 심학(心學)이었다. 장계향은 성리학과 심학을 바탕으로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성리학과 심학에서 중요시하는 학문적 의의를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성리학에서는 세상을 생성과 소멸, 양과 음, 선과 악, 표와 이, 대와 소, 우와 좌, 상과 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긴다. 인간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지만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상대성으로 파악하여 이를 극복하고 상대성을 깨달아야만 군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군자의 조건은 수신과 애민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둘째, 성리학에서는 누구든지 노력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겉모습과 행위는 보통 사람과 같으며 성인은 인륜을 따라 행하므로 그것을 보고 배워 노력하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성리학에서는 더 많이 배우고 가진 자가 먼저 베푸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보았다. 세상은 이웃과 함께 이루는 것임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김춘희, 2012). 아버지의 지경의 삶을 보고 배우면서 자란 장계향은 자신도 평생을 통해 내면의 성찰과 수양을 실천하였고 이것이 후에 자녀를 키우는데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외가

장계향의 외가는 안동 권씨 가문으로 10세(世) 권수홍 계통의 북야공파에 속하는 가문이다(김미영, 2011). 외조부인 동강 권사온은 정3품 당하관인 상호군을 지낸 인물로 봉화에서 아버지 권의형과 어머니 영양 남씨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권사온의 조부인 권안성은 왕실의 족보편찬 업무를 담당하던 종부사 주부의 벼슬을 지냈고 조모는 안동 하회마을의 입향조인 류종혜의 손자 류봉수의 딸이다.

권사온은 말년에 집에서 20여리 떨어진 낙동강 상류 미천에 계송정(溪松亭)을 짓고 스스로 호를 동강(東江)이라고 지었다. 계송정은 동강이 내려다보이고 남쪽으로 우뚝 솟은 산들이 줄지은 곳에 위치하였는데 정면이 4칸이고 측면이 6칸인 口자형의 규모가 큰 건물로 좌우에는 책을 보관하는 수장고를 갖추고 있었다.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현재는 터만 남아있다.

집안의 기록에 의하면 ‘살림이 넉넉하여 세입이 수 천석에 달하고 찾아오는 친지들이 많았고 항상 손님을 위해서 술을 준비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쌀과 소금을 가득 들러 보냈다’라고 전한다. 그는 95세에서 105세까지 생존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타고난 기백이 웅장하여 아들과 서자, 친척들을 전장에 의병으로 내보냈고 본인도 79세의 고령에 전장에 나가려고 했을 정도이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군량미로 보내기도 하였다. 『봉화군지』에서는 권사온이란 인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장과 도덕이 뛰어났으나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자연 속에서 많은 글을 남겼다. 명호설립주(明湖設立主)이며 수통정대부 상호군을 제수받고 93세에 가자(加資)하였다. 특히 임란 당시에는 아들과 조카 모두를 의병에 보냈고 서자인 봉은 군공(軍功)으로 부정(副正)이었으며 선조대왕으로부터 흑궁 두 자루를 하사받았다(봉화군지, 1988).

퇴계 이황(1501~1570)과 회재 이언적(1491~1553)의 학문을 숭모하였고 학봉

김성일, 월천 조목 등과 교류하였으며 『동강시고』에 이들과 주고받은 시가 수록되어 있다. 『동강시고』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가족과 관련된 것은 자신의 딸인 안동 권씨와 사위인 장흥효를 위해 지은 시편들이 유일하게 실려있다는 점은 두 사람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딸을 위해 지은 시는 7편이고 사위를 위해 남긴 시는 12편이다.

그중 두 편을 보면,

딸을 그리워하며(憶張氏女)

네 나이 서른일곱이고
내 나이 일흔을 넘겼네.
지팡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듯이
츄고 배고픈 것을 자식에게 의지하네.
밥상을 마주하니 이가 빠진 것이 근심스럽고
거울을 보니 서리 같은 백발이 서럽기만 하구나
네가 있는 검제(金溪)로 고개를 돌리니
언제쯤이나 돌아와서 나에게 문안할까(김복희, 2013)

딸 안동 권씨를 생각하며 지은 시이다. 딸을 향한 그리움과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위를 보내며(送張行原還家)

만 리길 걸어서 돌아가는 저 모습
문에 기대어 동쪽을 돌아보니
내 마음 얼마나 슬픈가!
저녁노을 속에서 늙은이 홀로 서서
그대를 보내는
이 마음 견디지 못하네(김복희, 2013).

장흥효의 저서 『경당일기(敬堂日記)』에도 위의 시 두 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장계향의 문학적 재능은 외조부의 영향도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시가

장계향의 시아버지인 이함(1554~1632)은 좌승지였던 이은보의 둘째 아들로 조선조 중기의 문신이다. 이함의 자는 양원이고 호는 운악으로 본관은 재령 이씨이다. 증조부 이맹현(1436~1487)이 1459년(세조 5년)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임금의 총애를 받으면서 가세가 급격히 부흥하게 되었다. 조부인 이애(1469~1494)는 8세 때 아버지 이맹현이 돌아가시자 영해부사로 부임하는 숙부 이중현(1449~1508)을 따라와 영해에 살게 되었다.

이애는 지역의 부자인 진성 백씨 집안의 사위가 되어 영해에 정착하면서 재령 이씨 영해파의 입향조가 되었다. 이애는 1515년에 무과에 급제한 후 선전관을 거쳐 사헌부 감찰, 도총 부도사 등을 지냈다. 이애의 아들인 이은보(1520~1580)는 안동의 유수 가문인 안동 김씨, 영양 남씨, 전의 이씨 등과 혼맥을 맺으면서 재령 이씨 가문의 기반을 넓혀나갔다.

운악 이함

이함은 1588년(선조21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그다음 해에 김천 도찰방에 임용되었다. 1600년(선조33년)에 문과에 올랐으나 답지에 장자의 말을 인용하였다는 이유로 곧 박탈당하였다. 1609년(광해1년)에 영해에서 처음으로 문과에 급제함으로써 고장의 학문을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나 당시 정세의 혼란함을 보고 실망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였다.

그 후 그는 퇴계 이황, 학봉 김성일, 서애 유성룡 등과 친분 관계를 맺으면서 학문의 기반을 더욱 넓혀나갔다. 이는 후일 재령 이씨가 영남지역의 중요한 가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권병도, 2016).

이함은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지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 집에 편하게 있을 수가 없어서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집안의 창고를 열고 쌀을 털어 죽을 끓여 먹이고 가산을 내놓았다. 도토리를 주워다가 삶아 그릇에 담아 내놓고는 구걸하는 자가 오면 집에 들여 머물게 하면서 그것을 먹여 주거나 식량거리를 자루에 담아서 보내기도 했다.

굶주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들어서 이렇게 모인 사람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이나 되었으니 이함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난 사람이 많았다. 그는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며 슬프고 분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고,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당시 순찰사 한효순(1543~1621)이 안동에서 군대를 데리고 진보를 지나는데 중군인들에게 먹일 식량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함은 자신의 쌀 수십 석을 운반하여 군인들의 허기를 채우고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이함은 적선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이러한 시아버지의 덕행은 장계향의 덕성과도 잘 결합되는 바였다(김구현, 1999).

석계 이시명

이함의 셋째 아들인 이시명은 경당 장홍효의 외동딸인 장계향과 혼인하였다. 장계향은 아버지로부터 지경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성장하였다. 결혼 후에는 시아버지인 이함으로부터 교화와 구제라는 사회적 실천의 모습을 보고 배웠으며 평생에 걸쳐 이를 실천하는데 힘썼다. 즉, 장계향은 친가와 시가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개인과 사회적으로 실천하면서 성리학의 삶을 온전히 살았던 것이다(장윤수, 2015).

1607년에 이함이 의령 현감으로 나갔을 때 이시명의 나이는 18세였다. 그는 어느 양반집 자제들이 일탈과 방종을 일삼을 때도 한 눈 팔지 않고 부단히 스스로를 단련하며 키워나갔다. 의령 출신의 의병장이자 성리학자인 곽재우(1552~1617)는 이시명의 됬됨이를 보고 “내 보건대, 벼슬하는 집 자제들이란 노래와 기생, 술과 바둑 등으로 즐겨하지 않음이 없는데, 자네는 이같이 지조를 갖고 있음을 보니 다른 집의 자제들보다 훨씬 정도가 높구나”라고 칭찬하였다(김태안,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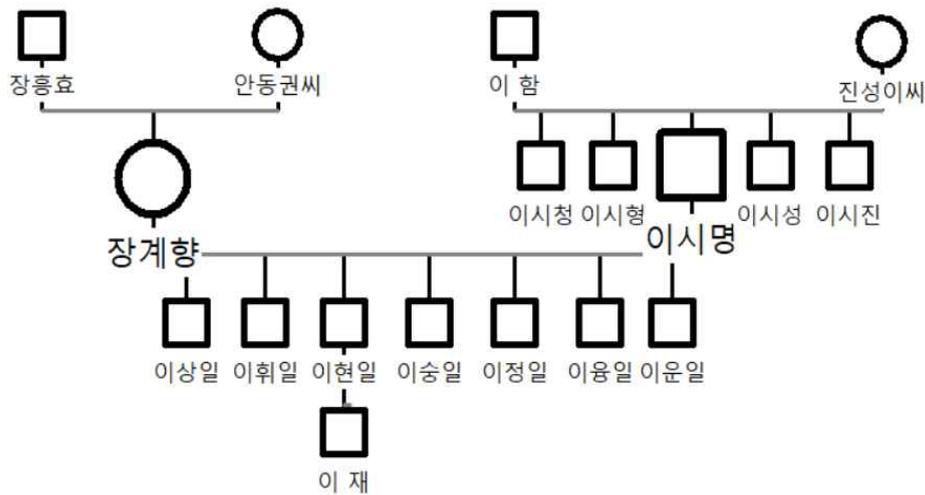
영남지방의 이름난 선비였던 이시명은,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인목대비를 몰아내게 되자 벼슬에 대한 뜻을 버리고 퇴계의 학맥을 이어받은 장인 장홍효의 문하에서 퇴계학을 전수받았다. 후에 이시명이 가문에 시·예를 전승할 수 있었던 것은 장홍효에게 받은 가르침이 있어 가능했던 것이었다(김태안, 1997).

이시명은 광해군의 폭정으로 어지러운 나라를 보고 벼슬하기를 단념하였다. 1636년(인조 14년) 병자호란 이후에는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은거하여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마음을 두었다. 이시명은 자녀들에게 행실과 예를 가르쳐 성현의 도를 닦게 하였고 독서로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덕을 쌓으라고 하였다. 또한 독서를 열심히 하되 찾아오는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할 것과 세상을 사는 목적이 오직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니 독서와 사색을 통하여 옛 현인들을 배우라고 가르쳤다.

칠현자(七賢者)

칠현자는 조선시대에 학문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시명과 장계향 내외의 아들 7명을 이르는 것으로 정목재 이상일, 존재 이휘일, 갈암 이현일, 항재 이송일, 정우재 이정일, 평재 이용일, 광록 이운일을 말한다. 장계향은 아버지 장홍효의 가르침대로 시부모를 받들고 남편을 보필하며 7남 3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었고 아들들을 모두 학식과 덕망 높은 학자로 성장시켜 영남학파의 기틀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신경진, 2013).

[그림 14] 장계향 가계도



일곱 형제가 모두 석학으로 칭송받았지만 그중에서도 둘째 아들인 이휘일과 셋째 아들인 이현일은 『홍범연의』라는 정치 철학서를 집필한 대학자들로 중국 송나라의 유명한 형제 철학자인 명도 정호, 이천 정이 형제에 비견되기도 하였다. 이휘일(1619~1672)과 이현일(1627~1704)은 8살의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학문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휘일은 13세 때 외조부 장홍효의 문하에 들었는데 15세에 외조부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불과 2년이라는 짧은 동안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장홍효를 통해 접했던 퇴계학과 성리학은 이휘일의 평생의 삶과 학문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다(최영성, 2018). 그 후 이현일은 형인 이휘일을 스승으로 받들어 외조부 장홍효의 학문을 이어받았다.

그는 학문과 품행이 널리 알려져 숙종 때에 이조판서에 올랐으며, 영남학파의 맥을 퇴계 이황, 학봉 김성일, 경당 장홍효, 존재 이휘일, 갈암 이현일로 이어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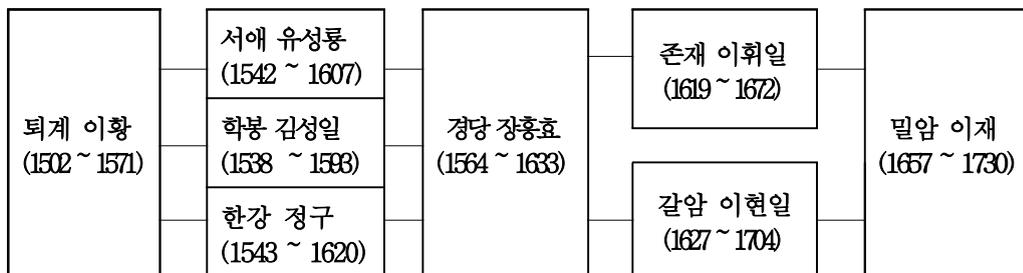
한국 성리학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다.

경당 장흥효는 퇴계의 학문대통을 학봉 김성일 · 서애 유성룡 · 한강 정구로부터 이어받아 자신의 외손자인 존재 이휘일 · 갈암 이현일에게 물려주었고, 이들 형제는 다시 이현일의 맏아들인 밀암 이재에게 물려주었으며, 밀암 이재는 다시 외손자인 대산 이상정과 소산 이광정 형제에게로 학통을 전승하여 영남학파의 맥을 형성하였다(백태한, 2001).

장계향은 아버지 장흥효를 통해 이어받은 퇴계의 경 사상을 실생활에서 실천하였으며 자리아타의 정신과 극기복례의 의식을 널리 확산시켰다. 장계향은 자신의 시를 통하여, 때로는 글을 통하여, 때로는 그림을 통하여 경 사상을 드러내었으며, 그 정신은 자손들에 의해 이어져 재령 이씨 가문이 퇴계 학맥의 주류가 되게 하였다(윤정미, 2015).

퇴계 이황의 학맥이 한 가문의 자손들에 의해 대대손손 적통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경진(2013)도 ‘학맥과 학통 그리고 혈맥이 겹치고 이어지는 그 중심에 장계향이 우뚝하게 서 있다는 점에서 장계향의 학덕과 부덕이 가문의 가학을 이루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표 7> 장계향 가문을 중심으로 본 퇴계 학맥 계보



2. 장계향의 생태체계 분석

Kemp(1998)의 이론에서는 생태체계를 미시체계와 중간체계 그리고 거시체계의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Kemp(1998)의 모형은 미시수준에는 개인적 수준의 변수들(개인적 행동, 성격, 개인적 동기, 정신병리학적 측면) 등을 포함하였고, 중간수준에는 가족체계 내에서 기능하는 것들을 포함하였으며, 거시수준에는 지역 사회와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였다(송영달, 손지아, 박순미, 2010).

1) 개인체계

(1) 타고난 총명함

장계향이 열 살 무렵에 장홍효가 제자들에게 원회운세(元會運世)의 운수(運數)를 가르쳤으나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장홍효는 강의를 마치고 장계향을 불러서 “내가 수업을 하다가 보니 저만치서 네가 귀를 기울이는 것 같더구나. 그래 우주의 1년인 대주기가 몇 년인 줄 알겠느냐? 그리고 1회는 몇 년이고 소개벽은 언제 일어난다고 하더냐?”하고 물었다.

장계향은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우주의 1년은 12만 9600년이라 하셨고 그게 원(元)이고 원을 12로 나눈 것이 회라고 하셨으니까 1회는 1만800년이지요. 그리고 바로 1회마다 소개벽이 일어나는 것이고요(김복희, 2013).” 더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묻자 장계향은 “1회를 30운으로 나누면 1운은 360년이 되고 이를 다시 12로 나누면 1세가 되는데 그러면 1세는 30년인 셈이고 이는 우주로 치면 한 시간에 해당하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 세대인 30년은 우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1시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김복희, 2013).”라고 하였다.

장홍효는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였다. 제자들에게 원회운세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을 했을 때 이같이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열 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 하나하나 숫자를 대면서 대답하는 게 아닌가. 열 살짜리 아이가 정식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귀동냥으로 듣고 어려운 이치를 깨달았던 것이다.

(2) 예술적 재능

장계향은 열 살 전후부터 글을 짓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보여주었다. 당대의 초서 대가로 알려진 청풍자 정윤목(1571~1629)이 장흥효의 집에 왔다가 장계향이 쓴 ‘적벽부’를 보고 그 글체에 놀라워했다는 일화가 기록에 남아 있다. “글씨의 획에 드러나 있는 힘이 굳세고 강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사람의 서법과는 다르니 아마도 중국 사람이 쓴 필적이 아닌가 싶네.”라고 정윤목은 평가하였다(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글씨뿐만 아니라 빗소리에 대해 읊은 ‘소소음’과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신음’ 같은 시를 지은 것도 이 무렵의 어린 나이였다.

비 내리는 소리(蕭蕭吟)

窓外雨蕭蕭	창문 밖에 솔솔 내리는 빗소리
蕭蕭聲自然	솔솔 내리는 빗소리는 자연스럽기도 하네
我聞自然聲	자연스런 빗소리를 내가 듣고 있으니
我心亦自然	내 마음도 빗소리처럼 자연스러워지네

(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이를 포함하여 출가 전에 지은 시는 ‘성인음(성인을 노래함)’, ‘학발시 3장(백발 늙은 몸의 시)’이 있다. 출가 후에 지은 시는 ‘수국춘색(바다의 봄빛)’, ‘증손성급(손자 성급에게 주는 시)’, ‘증손신급(손자 신급에게 주는 시)’, ‘희우시(드물고도 드문 시)’, ‘무제’, ‘시생’, 등으로 장계향의 시는 총 9편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림에도 재능을 보여 송하맹호도와 낙화 두 작품이 남아 있다. 송하맹호도는 호랑이의 모습을 살아있는 듯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고 낙화는 인두를 사용하여 자연풍경을 그린 작품이다.

(3) 효심

효도는 인격형성의 근본이자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 가정 먼저 실천해야 할 도리이다(장선희, 2020). 논어에서는 효에 관해 “효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죽어서 장사 지낼 때도 예로 모시고, 제사도 예로 지내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효’의 개

넘은 자기의 처지에 맞는 예로써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장계향의 친구는 아버지가 학당의 스승이었기에 학문을 이야기하러 찾아오는 사람들과 문하생들이 끊임없었다. 병약했던 어머니가 장계향에게 일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으나 장계향은 자진해서 살림을 맡았다. 시집가기 두 해 전에는 어머니가 일 년 가까이 병석에 누워있었다.

때문에 열일곱 살이던 장계향은 끊임없이 손님을 접대하고, 많은 문인들의 시중을 들며, 아버지를 섬기는 일을 몸종 몇 사람과 함께 묵묵히 감당해 나갔다. 후에 어머니의 병이 나은 다음에도 일을 놓지 않고 도맡아 해나가니 장계향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심진희, 2015).

(4) 평등사상

장계향은 신분제 사회에서 살면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귀천을 따지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했다. 삼남 이현일은 다음과 같이 장계향의 일화를 기록하였다.

어린 여종을 마치 자신의 딸처럼 돌보아 주었고 만일 거느리는 노비들이 병들게 되면 반드시 손수 음식을 장만하여 먹여주고 간호하여 온전히 편안함을 얻도록 하였으며 그들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조용히 가르치고 타일러서 스스로 뉘우치고 복종하도록 하니 남의 집 종들도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모두가 장계향택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또한, 장계향은 부모를 잃은 아이나 자식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하였다. 그들의 어려움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여겨져, 설사 자신의 처지가 어려울 때에도 그들을 돕는 일을 멈춘 적이 없었다. 남모르게 옷이나 음식 등을 굶주린 이에게 보내고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니 후에 이를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다 장계향의 은덕에 감동하여 복을 빌어주었다.

이와 같이 외롭고 어려운 사람이나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장계향의 태도는 귀천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평등한 존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겸손의 자세이자 사랑의 실천으로 이를 통해 장계향이 지녔던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과 평등의식을 엿볼 수 있다(장선희, 2020).

(5) 리더십

비록 혼인하기 전 어린 시절에 스스로 학문하기를 포기했던 장계향이었지만 타고난 기상과 품격은 크고 훌륭하였으며 건문과 학식은 맑고 원대하였으므로 바깥세상의 돌아가는 모습을 모르는 것이 없었다. 장계향은 중국의 오랑캐들이 조선을 침략하여 나라의 안위가 불안한 것을 분하고 원통하게 여겨 탄식하였다.

1636년(인조 14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나라와 백성들에게 미치는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청나라 군사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다는 소식을 들은 부인은 이를 한탄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옛날 중국 제나라의 충신이었던 노중련(魯仲連)의 일화를 이야기했다. “저 진이라는 나라는 예의를 버리고 단지 싸움터에서 적의 목을 많이 베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잔인무도한 침략주의 국가이다. 만약 진왕이 중국을 군림한다면 나는 그런 임금 밑에서는 살 수 없으니 동해를 밟아 죽을 뿐이라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충렬인가!(김구현, 1999)”라고 하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모두 의병으로 나서 나라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6) 성인을 꿈꾸다

장계향은 어린 시절부터 장흥효에게 받은 교육의 영향으로 성인이 되기를 꿈꿨다. 성리학이 진정한 학문임을 인식한 장계향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성인이 되는 길’이라고 믿었다.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였으며, 자신이 가진 강한 지도력으로 이웃을 돕고 보살핌을 실천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또한, 장계향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극복하는 수신(修身)과 수기(修己)인데, 나눔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모습이 참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믿었다(정동주, 2013).

다음은 장계향이 10여 세 전후에 쓴 시로 어린 나이임에도 성인의 삶을 지향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성인에 대하여(聖人吟)

不生聖人時	내가 성인이 살았던 시대에 나지 않았으니
不見聖人面	성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네
聖人言可聞	<그러나> 성인의 말씀은 들을 수가 있으니
聖人心可見	성인의 마음도 볼 수가 있겠네(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장계향은 자녀들에게도 성인의 삶을 살기를 늘 가르치고 장려하였다.

“성인이 된 사람은 과연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보다 지나치고 보통 사람보다 아주 뛰어난 일이 있다면 진실로 따라갈 수 없겠지만, 성인의 용모와 언어가 처음부터 보통 사람보다 다른 데가 없으며, 성인의 행동도 또한 모두가 인륜의 날마다 늘 하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성인을 배우지 않는 것을 근심할 뿐이지, 진실로 성인을 배우게 된다면 또한 무엇이 어려운 일이 있겠는가(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장계향의 이 말은 성인이 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을 잘 실천하고 힘쓰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장계향은 보았다. 성인이란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성으로 완성된 이상적 인간형이다(이순구, 2012). 성리학의 궁극적 목표는 성인이 되는 것에 있으며 장계향 또한 이러한 뜻을 가슴에 품고 실천했다.

장계향은 손자들에게도 성인이 되기를 장려하는 시를 남겨주었다.

증손성급(贈孫聖及)

新歲作戒文	새해에 네가 자신을 경계하는 글을 지었으니
汝志非今人	네 뜻은 지금의 사람과는 다르구나
童子已向學	어린 아이가 벌써 학문에 뜻을 두니
可成儒者眞	참다운 선비를 이루게 될 것이다

증손신급(贈孫新及)

見爾別友詩	네가 벗을 작별한 시를 보니
中有學聖語	그 시 속에 성인을 배우려는 말이 있었다
余心喜復嘉	내 마음이 기뻐서 다시 칭찬하여
一筆持贈汝	짧은 시 한 편을 지어 너에게 준다

(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2) 가족체계

(1) 가족 구성원

① 친가

아버지 경당 장흥효

퇴계 이황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벼슬과 관련된 양상을 3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유성룡, 김성일과 같이 약관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 능력을 인정받고 평생을 지낸 인물들을 지칭하는 적극사환파가 있고, 비록 벼슬길에 오르는 것은 했지만 관직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생의 대부분을 향촌에서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을 한 중간파가 있다.

그리고 과거에 급제를 못했거나 혹은 소과에만 급제한 후에 평생을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전념하며 벼슬을 마다하고 처사로서의 지조를 지킨 순수처사파가 있다(주승택, 1997). 장흥효는 위의 세 가지 분류 가운데에서 순수처사파에 속하는 인물로서 벼슬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었고 오직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1633년(인조 11년) 봄에 창릉참봉에 임명되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처사문인이라 할 수 있는 장흥효는 일찍이 학봉 김성일을 찾아 그를 스승으로 모시며 사제지간의 인연을 맺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소학』과 『근사록』을 한결 같이 읽으며 이(理)를 밝히고 실천수양하는 것을 학문의 요체로 삼았을 뿐 벼슬을 하기 위한 공부와 같은 영달의 학문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다(신경진, 2016).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붕당의 폐해로 인한 여러 차례의 반정과 왜란 등의 이유들이 존재한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지방의 선비들은 중앙으로 진출하여 출세하기보다는 산림에 은거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덕을 닦음으로써 도학을 실천하는 데 매진하는 것이 선비 본연의 의무라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정동일, 2005).

장흥효는 우주의 이치를 밝히고 수양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높이는 학문을 연구의 지표로 삼았으며 성리학의 핵심을 담아놓은 『근사록(近思錄)』을 주로 삼아 모든 경전에 널리 통했다. 진리를 탐구하고 사유하며 배운 것을 힘써 실천하여 스스로의 품성과 인격을 높이는 것을 맡겨진 임무로 알면서 학자의 길을 나아갔다(김구현, 1999).

이웃 사람들조차 장흥효의 얼굴을 본 사람이 드물 정도로 외부 출입을 삼가면서

학문에 몰두하였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식량이 떨어지는 일도 많았지만 전혀 근심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에 그를 따르는 선비들이 많았으며 자신의 자녀를 장흥효에게 맡겨 가르침을 받게 하였다.

스승이었던 학봉 김성일은 “이 사람의 배움은 정력이 있으니 후일에 크게 성취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나의 제자 중에 이와 같은 인재를 얻었으니 자랑스럽다”라고 장흥효의 인물됨을 극찬하였다(정동일, 2005). 장흥효의 삶은 지경으로 일관한 삶이었으며 학자로서의 직분에도 충실했다.

그에게 있어 경은 성인에 이르는 수양의 방법이자 성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양의 핵심이었기에 평생 성리학적 사유를 벗어나지 않으려 힘썼다. 이에 대해 손자인 존재 이휘일은 『경당집』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경(敬)’을 크게 오른쪽에 써 붙이고 이로써 자호(字號)하였다. 평소 아침에 첫 닭이 울면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관을 갖추어 가묘를 배알하였다. 이를 마친 뒤에는 주자화상에 나아가 절을 하였다. 물러나 서재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토록 곳곳이 앉아 책을 읽기도 하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생각에 잠겨서도 깨달음이 없으면 밤새 잠을 자지 않았다. 깨달음이 있을 때는 한밤중이라도 그 내용을 붙을 썬다 하여 글로 옮겼으며, 적을 것을 늘 곁에 두었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적었으며, 날마다 연마한 것을 점검하였고, 공부한 정도가 어떠했는지 살폈다5).

장흥효는 조선의 대학자였지만 일평생 벼슬도 마다하고 제자들과 학문을 논하며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냈다. 혼인한 지 18년만에 외동딸 장계향을 낳았고 그녀는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학문을 접하게 되었다(심진희, 2015). 퇴계의 심학 학통을 계승한 아버지 경당 장흥효의 가학적(家學的) 집안 분위기 덕분에 장계향은 당시 여성으로서 남다른 학문을 쌓을 수 있었다(장선희, 2020).

어머니 안동권씨

친정어머니 권씨 부인은 동강 권사온(1514~미상)과 옥천 전씨 사이에 태어난 딸로 장흥효와 혼인하여 장계향을 낳았다. 안동 권씨는 온화한 성품을 지녔고 여유사행(女有四行)⁶⁾을 몸소 행하는 아주 예절 바른 여인이었고 가족과 이웃을 두루 살피

5) 장흥효, 『경당집』 2권, ‘행장’.

는 분이였다. 음식솜씨도 뛰어나서 장계향의 저서 『음식디미방』에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배운 외가의 음식을 맛질방문이라는 명칭을 붙여 수록하고 있다.

장홍효와 안동 권씨는 매사에 경으로써 부부간에 서로 예를 다해 실천궁행(實踐躬行)을 하였다.

외조부 동강 권사온

장계향의 외가는 봉화에 있었다. 외조부인 동강 권사온은 정3품의 상호군을 지냈으며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기록에는 105세까지 장수하였다고 되어있으나 정확한 생몰년도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79세의 나이에든 말을 타고 전장에 나가려고 할 정도로 웅장한 기백과 강건한 신체를 지녔던 인물이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아들 1명과 서자 3명, 그리고 일가친척 5명을 의병으로 내보냈다.

그의 재산은 세입이 수천 석에 이를 정도로 풍족하였다. 만년에 지었던 계송정은 정면이 4칸이고 측면이 6칸인 비교적 규모가 큰 건물로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까지 갖추어 놓았었다.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늘 집안에 술과 안주를 마련해 놓았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쌀과 소금을 가득 채워 넣은 자루를 들려 보냈다고 한다. 자신의 재산을 털어 군량미로 보내는 활약도 있었다고 전한다.

김성일과 조목 등의 문인들과 교류하고 퇴계 이황의 학문을 숭모하는 등 학문에도 관심이 깊었고 문학적인 재능도 있어 여러 편의 시를 남겼다. 특히 사위 장홍효와 딸 안동 권씨를 각별히 아꼈으며 늘 마음에 품고 그리워하였다.

② 시가

시아버지 운악 이함

이함은 타고난 심성이 인자하고 통달 민첩하여 부친이신 사직공이 병으로 누워 계신 지 오래되었는데도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으며 몸소 약을 달여 먹여 드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3년 상을 치르는 효를 행했다. 1591년에 모친상을 당했을 때도 슬퍼하는 가운데에서도 망자에 대한 공경의 예를 갖추기를 빈틈없이 하였다.

어머니의 3년 상을 치르던 중인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기근이 이어져 사

6) 유교사회에서 부녀자가 반드시 행하여야할 덕목으로 부덕(婦德)과 부언(婦言), 부용(婦容), 부공(婦功)의 네 가지 행동강령.

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자 이함은 비록 부모님의 상을 치르는 중이지만 그 처절함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집안의 창고를 개방해 굶주린 이들의 배를 채워 주고 모자라면 도토리를 주워 삶아서 놓고 먹게 하였다.

지금도 경북 영양군 석보면 두들 마을에는 오래된 굴참나무와 함께 ‘배고픔을 즐기라’는 뜻의 낙기대(樂飢臺) 자리가 남아 있는데 보릿고개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을 위해 이함 가문에서 구휼식량을 배급하던 자리이다(김복희, 2013).

또한, 이함은 시간이 날 때마다 몸소 향교에 가서 유생들을 불러 모아 『소학』과 사서를 가르쳤는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 대한 우애를 지키는 효제의 도를 힘쓰게 하였고 배워야 할 것 등을 지적해 주어 성취시킨 바가 많았다(김복희, 2013). 영해 사람들은 공에 대한 사모함을 오래도록 잊지 않았다고 한다. 이함의 구빈철학은 나눔의 실천이었으며, 후학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남편 석계 이시명

이시명은 선조 23년(1590) 11월에 영해부 인량리의 나랏골에서 재령 이씨 이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자는 회숙(晦叔)이며 호는 석계(石溪)이다. 이시명은 어린 시절에도 놀 때와 공부할 때 재기가 넘쳤으며, 동네의 어른들이 행동거지에 대해 칭찬해 마지않던 총명하고 진취적인 소년이었다.

성인이 되어서는 장흥효에게서 퇴계학맥의 적통을 계승하였음을 인정받았는데 이시명의 학맥이 영남 남인의 퇴계학맥에 밀접하게 닿아있음은 ‘논우율종사소(論牛栗從祀疏)’⁷⁾의 기록으로 확인된다(김태안, 1997).

이시명과 장흥효는 스승과 제자, 장인과 사위로서의의 관계 이상이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시명은 『경당집』 2권 경당의 추모 제문에 “문하에 데릴사위가 되어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완악함을 다스리어 날로 이름이 있기를 바랐으니, 은혜로는 부자 관계와 같음인즉 어찌 사제의 관계뿐이라 하리오.”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이시명이 장흥효를 스승과 장인 이상으로 존경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설명하여 준다. 이시명은 장흥효에게 가르침 받은 대로, 자식을 가르침에 있어서 ‘경’을 중요시하였다. 성장한 자식들에게는 옛 성현들을 닮은 삶을 살도록 가르쳤으며 아직 어린 자식에게는 입효출제(入孝出悌)의 도리를 가르쳐서 궁리수신(窮理修身)의 공부를 하도록 하였다. 행동거지 하나하나에서도 정성과 조심스러움을 다하게 하였다.

7) 석계 이시명(1590~1674)의 문집중 하나로 이이(李珥)의 이기설(理氣說)과 성훈(成渾)의 출처(出處)를 비판하고 문묘종사를 반대한 소로 1650년에 경상도 유림을 대신하여 지은 것이다

선비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과거를 보아 명예를 얻기 위한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니, 평생의 뜻을 헛되이 포기하지 않고 조용한 곳에 방 하나를 마련하여 글을 읽고 사색하는 것으로 대유(大儒)가 되기를 바라는 것 또한 하늘이 내려준 바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김복희, 2013).

이시명은 뜻이 크고 기개가 높아 당대에 이름을 날리고 나라를 보좌할 큰 꿈을 가졌던 진취적인 인물이었지만(김태안, 1997), 1612년에 광해군의 난정을 보고 한탄하며 과거를 단념하였다. 그는 정치와 권력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도덕적인 면을 중시하였으며 임금을 도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싶은 뜻을 가졌었으나 그 뜻을 이루기 어려워지자 정치와의 인연을 끊어버렸다. 1636년에는 병자호란으로 자신이 세웠던 인생의 계획들이 모두 무너져 버리자 석보에 은둔하여 평생 은거생활을 하였다.

자녀들

장계향이 혼인하기 전에 이시명에게는 전부인이 낳은 1남 1녀가 있었다. 여섯 살인 아들 상일과 두 살된 딸이었다. 장계향은 두 아이를 자신이 낳은 자식처럼 극진히 사랑하고 훈육하였다. 후에 장계향은 아들 상일을 서애 류성룡의 손주사위가 되도록 하였다.

시집와서 3년 되는 해인 1619년(광해군 11년)에 장계향은 처음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존재 이휘일로, 장성하여서는 학문과 덕행이 크게 이루어 동생인 이현일과 함께 『홍범연의』라는 정치 철학서를 남겼다. 이휘일은 후손이 없는 작은 아버지 이시성에게 양자로 갔으며 영해 인량리 인산서원에 제향 되었다.

1627년(인조 5년) 30세 되던 해에 장계향은 둘째 아들 이현일을 낳았다. 이시명에게는 셋째 아들이고 장계향이 낳은 아들로는 둘째이다. 이현일은 숙종 때, 그 학행이 널리 알려져 이조판서까지 올랐던 인물로 영남학파의 적통을 되게 이황→학봉 김성일→경당 장흥효→존재 이휘일→갈암 이현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 한국 성리학상 가장 뚜렷한 학자 중 한 분이다.

장계향이 낳은 셋째 아들은 승일로 장계향이 혼인한지 15년 되던 해인 1631년(인조 9년)에 출생하였고 호는 항재(恒齋)이다. 이승일 역시 학문과 덕행으로 추천되어 세마(洗馬)·현감의 벼슬을 지냈으며 활발한 저술활동으로 문집 16권을 남겼다. 그는 두들마을에서 말년의 장계향을 모시고 살았다. 작가 이문열이 이승일의 12대손이다. 넷째 아들은 정일(靖逸)로 1635년(인조 13년)에 태어났다. 학문이 높았고

문장가로 이름이 알려졌으며 호는 정우재(定于齋)이다.

여섯째 아들이자 장계향이 낳은 다섯째 아들은 이름이 융일(隆逸)이며 호는 평재(平齋)이다. 경세가(輕世家)이고 예학(禮學)에 통달했다. 장계향이 낳은 여섯째 아들은 이름이 운일(雲逸)이고 호는 광록(廣鹿)으로 문장이 뛰어나고 시문을 잘 지었으나 30세로 요절하였다.

2) 가족관계

(1) 친정부모와의 관계

장계향의 아버지 장홍효는 조선 중기의 학자로 본관은 안동이고 안동부(安東)에 살았다. 어머니 안동 권씨는 첨지 권사온의 딸이고 권사온 가족은 봉화군 명호면 일대에 살았다. 장홍효와 혼인한 지 18년 만에 아이를 낳은 어머니 권씨는 더 이상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지 못한데 대하여 남편 장홍효에게 너무나 미안했지만 장홍효는 어렵게 얻은 딸을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기뻐했다.

그는 귀하게 얻은 자식이 바르게 자라서 성인(聖人)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향(桂香)이라고 이름지었다(장선희, 2020). ‘계(桂)’는 온갖 약 중에서 최고의 약이 되는 계수나무를 뜻하고 ‘향(香)’은 누구든 필요할 때 약으로 쓸 수 있는 향기를 뜻하여 ‘세상 모든 아픈 이들의 병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라’는 염원이 담긴 이름이다. 장계향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믿고 공경하여 실천하면서 이것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려 하였다.

장계향은 출가 후에도 친정 부모에 대한 효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 자신이 외동 딸임을 잊지 않고 시집인 영해와 안동의 거리가 200여 리가 넘는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친정부모를 찾아뵈어 안부를 묻고 보살폈다. 17세기에 남편 조씨 가문의 조씨 부인이 쓴 『병자일기』를 보면 출가한 여성들이 친정에 다니러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무인년. 9월5일·6일

오늘 나의 친정 부모님 제사이나 제사 참례도 못하니 딸자식같이 쓸모없는 것이 어디 있으랴(이순구, 2012).

어머니 안동 권씨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친정아버지를 모셨고

아버지가 재혼하신 다음에 시가로 돌아왔다. 친정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계모와 동생 4남매를 집으로 데리고 와 집을 지어서 살게 하였다. 당시의 사회에서 이것이가능했던 이유는 효가 성리학적 삶의 실천에 있어 가장 근간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2) 남편과의 관계

장계향은 19살에 여덟 살 차이 나는 이시명의 재취로 혼인하였다. 하지만 부부는 평생에 걸쳐 귀한 손님을 대하듯 서로 존경하는 삶을 살았다. 장계향은 모든 일을 남편에게 설명하고 그의 조언에 따랐으며, 남편이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했다. 이시명도 존경하는 스승의 딸이자 성리학적 삶을 실천하는 아내의 말을 존중하고 귀담아 들었다.

부친께서 시사(時事)에 대해 즐겨워하지 않았기에 세간의 영리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부인께서 부친과 뜻을 같이 하셨기에 비록 자주 거주를 옮기는 곤란을 겪었지만 원망하고 탓하는 기색이 없었다. 음식과 의복은 간소하고 담박했으며, 완전히 청결한 것만 취할 뿐이었다. 그런 까닭에 세속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려하고 진기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았다(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장계향은 시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이시명이 시묘살이에 여념이 없을 때 남편을 대신하여 혼자서 집안을 규모 있게 운영하였고 남편에게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말년에 안동으로 이사하였던 기록들을 볼 때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이었던 장계향은(정동주, 2013) 이시명이 성인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기를 원했다. 장계향은 병자호란 후 실의에 빠져 은둔하고 있는 이시명에게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을 권유하였고 이시명은 아내의 권유를 따라 안동 도술원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는 서당을 열어 후학들을 길렀는데 이 서당이 청계 김진이 1578년에 건립한 영산서당으로 1655년에 이시명이 선현배향과 문풍진작을 위하여 영산서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퇴계 이황과 학봉 김성일을 배향하게 되었다(박무영 외, 2004).

(3) 자녀교육

장계향은 19세에 이시명과 혼인했다. 이시명은 이미 2년 전에 전 부인을 사별하고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장계향은 나이 어린 새색시답지 않게 전 부인의 소생인 1남 1녀를 자신이 낳은 자식처럼 지극한 사랑과 훈계와 깨우침으로 키웠다. 아들 상일이 장계향을 새어머니로 맞은 것은 여섯 살 때였다. 장계향은 상일이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게 하고 싶어서 남쪽으로 5리가 되는 곳에 사는 선비를 찾아 가르침을 부탁하였다.

매일 아침 상일을 업어서 학당에 데려다 놓고 집에 돌아왔다가 공부가 끝날 무렵이 되면 다시 상일을 데리러 학당으로 가고는 했다. 이렇게 근 5년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업고 다니면서 상일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돌보았다. 혼인시킬 때는 자신이 낳은 자식들보다 더 좋은 혼수와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었다. 자신이 낳은 자식들과 한 치의 차별도 하지 않고 똑같은 사랑과 훈육으로 전 부인의 자식들을 양육하였다. 이러한 정성으로 상일은 후일에 훌륭한 학자가 되었고 딸은 훌륭한 부녀로 고향에서 이름이 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홍필남, 2003).

장계향은 전부인 소생을 포함하여 모두 10남매를 키웠다. 마을에서나 집안에서나 틈날 때마다 자녀들을 가르치고 깨우쳤는데 늘 효도와 우애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충실과 신의로 공경을 지킬 것과 게으름을 경계할 것, 예절에 대해 가르치면서도 대인의 품모를 잃지 않았다.

“너희들이 비록 글을 잘 짓는다는 명성은 있지만 나는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선행(善行)이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나는 문득 기뻐하면서 잊지 않고 있을 뿐이다.”

“선행은 사람들이 다 하고자 하는 바이다. 지금 어린아이에게도 가르키면서 말하기를 ‘네가 착하다’고 하면 기뻐할 것이고 ‘네가 착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아이가 성을 낼 것이니 선행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은 사람들 마음이 다 같이 그렇게 여기는 바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일찍이 세상 사람들이 물욕으로써 의리를 해치는 일을 근심하고 있는데 의리는 소중한 것이 되고 물욕은 가벼운 것이 되니 어찌 소중한 의리를 버리고서 가벼운 물욕을 취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의리의 중함을 일러 주셨다. 아들 여섯과 딸 둘을 두었는데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아주 지나쳤지만 과실이 있으면 잘못을

바로잡아 꾸짖고는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장계향은 자식들에게 부모를 향한 효성과 형제간의 우애가 중요함을 늘 강조했는데, 다음은 이휘일의 『존재 선생 문집』에 기록된 내용이다.

선천적으로 효성과 우애가 깊었기에 백씨(伯氏, 이상일)가 병을 앓아 위독해지자, 어머니가 근심할 때 함께 근심하였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조금 나누어주면 번번이 사양하고 먹지 않으며, “남겨두었다가 형에게 주자”고 말했다(이휘일, 2009).

이와 같이 학문 이상으로 품성과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활 속에서 숭선수범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 장계향의 교육관에 의해 열 남매가 모두 훌륭하게 성장하여 당대의 학자들로 명성을 떨쳤으며 형제간에 우애가 깊었다.

3) 사회체계

(1) 정치적 상황

장계향이 태어날 무렵은 국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였다. 임진왜란에 이은 정유재란(1597년)으로 인하여 인명의 살상과 물질적인 큰 피해를 입었고 국토도 황폐해졌다. 두 차례에 걸친 일본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문란했던 조선 사회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관료들은 극도로 부패하기 시작하였다.

임진왜란을 겪은 광해군은 중국 명나라의 쇠퇴와 후금의 발흥이라는 정세변화를 주시하면서 중립적 외교정책을 펴나갔다. 그러나 반대세력에 의해 1623년에 인조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은 축출되었다. 이로써 나라의 실권을 잡은 서인세력은 친명 배금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1627년(인조 5년)에 후금의 침입으로 정묘호란을 맞게 되었다.

이후 후금이 팽창된 세력을 배경으로 조선에 대하여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서 1636년(인조 14년)에 제2차 침입인 병자호란이 발발하였다. 정묘호란은 형제지국(兄弟之國)으로 전쟁이 종결되어 국토와 백성들에게 끼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았으나 병자호란은 조선이 청나라와 군신지맹(君臣之盟)의 관계를 맺으며 끝맺었기 때문에 그 피해와 규모가 매우 컸다(김춘희, 2012).

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효종은 재야의 인재를 발탁하고, 군비를 확충하는

등 원대한 북벌계획을 세웠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즉위한지 10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1659년에 즉위한 현종(1641~1674)은 재위하는 15년 동안에 예론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지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662년(현종 3년)에 호남지방에 대동법을 시행하였고, 1668년(현종 9년)에는 10여 만자의 동철활자를 주조하였으며 천체관측기구인 ‘혼천의’를 만드는 등 천문관측과 역법의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또한, 청나라에 대한 북벌을 비밀리에 계획하다가 당시의 국제관계와 국내의 사정으로 중단하는 대신 군비증강에 힘써 훈련별대를 창설하였다.

숙종은 1674년에 즉위하였는데 재위하는 동안 조선 중기 이래 계속되어온 봉당정치가 정점에 이르면서 그 파행적 운영으로 부패가 심화되고 봉당정치의 파탄이 일어났다. 남인은 청남과 탁남으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으며 다시 노론이 화당과 낙당 그리고 파당으로 나뉘는 등 당파 내에서의 이합집산으로 정국은 혼란을 더해갔다.

장계향이 살았던 시대는 그녀의 사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그녀가 출생하여 성장하는 동안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것들은 모든 민중들이 생존하기 위해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던 것들이다(장선희, 2020).

(2) 기후재난

조선시대의 기후에 관하여 연구한 학자들은 조선시대의 특정한 시기에 평년의 기온에 비해 아주 낮은 저온의 소빙기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것이 기근과 재해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소빙기의 발생시기에 대한 의견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소빙기의 출현과 그로 인해 발생한 기근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정형지, 2003). 『조선왕조실록』과 강우량의 기록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소빙기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김연희(1996)는 1511년부터 1560년까지를 1기로, 보았고, 1641년부터 1740년까지는 2기, 1801년부터 1850년까지를 3기로 보았다. 1기 소빙기 이후에는 여름이 춥고 강우량이 많았으며 겨울에는 이상난동 현상이 나타났다. 2기의 경우에는 여름에 춥고 가뭄이 심하였다. 3기 소빙기에는 비가 가장 많이 내렸으며 일조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저온 기후 현상을 보였다.

1655년(효종 6년) 봄에는 강원도 삼척과 강릉의 바닷물이 얼어붙었고 두어 달 후에는 제주도에 폭설로 말 9백여 필이 동사하는 일이 생겼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도 바다가 얼어붙는 일이 생겼고 북미지역의 뉴잉글랜드 앞 바다는 한 달 동안

얼어 있는(김문기, 2010) 등 소빙기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었다.

이로 인하여 강과 호수, 바다의 이상 결빙 현상, 폭우, 폭설, 우박, 서리 등 각종 재해와 전염병의 창궐, 병충해 발생으로 농사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고 백성들은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다. 정형지(2003)의 연구에 따르면 17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까지 52회의 비교적 큰 규모의 기근이 있었다.

채소와 곡물생산 등의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80~90%에 달하고 그 생산물로 식량을 삼던 농업국가인 조선에 미치는 이상기후의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었다(라종일, 1982). 단화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생존 자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재난이 계속되자 지속적인 흉년이 반복되었다. 기근은 대다수의 백성들을 혹독한 굶주림의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장계향이 살았던 17세기의 상황은 1651년(효종 2년)부터 1660년(효종 11년)까지의 시기와 1671년(현종 12년)부터 1680년(숙종 6년)까지가 가장 기근이 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현종개수실록』에 따르면 1671년(현종 12년)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은 백성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은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종실록개수』⁸⁾의 기록에 따르면 1671년(현종 12년)에 연산의 사비가 병으로 죽은 자신의 아이들을 삶아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굶주린 사람들과 떠돌이 거지들이 갓 죽은 사람들의 묘를 파서 시체를 파내어 먹은 사건도 있었다는 승정원(1670년)의 기록이 있다.

이처럼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방방곡곡으로 떠돌아다니게 되자 인구의 변동이 발생하고 인구의 감소로까지 악화되었다. 이러한 농민들의 농토 이탈과 유민 현상은 노동력의 상실로 이어지고 마침내 국가재정의 급격한 감소와 사회불안의 커다란 요인이 되었다.

(3) 여성의 사회적 지위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척불숭유(斥佛崇儒)라는 종교적 패러다임에로의 전환은 비록 유교와 불교가 정치적인 측면과 가정적인 차원에서 각각 다른 작용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대승불교에서 주자학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유교를 국가정책의 근간으로 삼아 조선을 유교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그 의지를 국정 전반에 펼치기 위한 일환으로 『주자가례』와 『삼강행실도』, 『국조오례의』 등의 윤리와 관련된 내용의 서적과 의례 관련 지침서가 보급되었

8) 조선 후기 제18대 왕 현종의 재위 기간의 역사를 기록한 『현종실록』을 수정한 실록(현종실록개수청, 1683/1994).

다. 『주자가례』는 중국 명나라 때 관혼상제에 관한 주자의 학설을 집대성한 책이고, 『삼강행실도』는 15세기부터 보급되기 시작하여 조선왕조의 윤리 덕목을 모아 놓은 유교 윤리의 대표적인 서적이며, 『국조오례의』는 사회관계와 정치질서를 규정하는 국가의례인 가례, 기례, 흉례, 군례, 빈례를 총망라해 놓은 서적이다.

당시에는 남녀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성은 정치를 비롯한 바깥일을, 여성은 길쌈을 비롯한 집안일을 주로 담당했다. 가정 내에서 여성이 상속과 경제활동에 의해 어느 정도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성이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작위를 받을 수 없었고 남편이나 아들의 작위만이 인정되는 사회였다.

16세기까지의 조선 전기 사회는 일부일처제의 가부장적 질서가 존재하였다. 혼인은 가문과 가문 간의 결합이라는 의미로 ‘예법상 두 번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중혼과 개가를 금지하였다. 중혼 금지는 사회체제의 유지를 위한 법적인 제도였고 개가 금지는 도덕의 유지를 위한 풍속적인 제재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16세기 후반까지 여성의 개가는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되기도 하였다. 법적인 의미를 지녔다기보다는 도덕적 의미가 강한 일종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정절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였다.

특히 도덕 운동의 경우, 양반 가문의 여자가 주요 대상이었고, 일반 백성들의 경우는 직접적인 제재보다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도덕적 가부장제는 여성에게 있어 가정 내에서 최소한의 지위와 권위를 유지 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다. 여성은 단순히 남성의 부속물이 아닌 가정교육을 위한 하나의 도덕적 주체로 받아들여졌고 이러한 전통은 조선 후기에도 이어졌다.

17세기에 병자호란을 전후하여 성리학의 실천운동이 전개되면서 『주자가례』 및 종법 질서를 각 가정에서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하려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당시 조선의 시대적 과제인 청나라에 대한 북벌론과 연계되면서 널리 수용되었고 이는 사대부 집안에서 여성 교육을 강화하는 결과가 되었다. 북벌이 결행될 경우 전쟁에 나간 남성들을 대신하여 집안을 꾸려가야 할 여성들에게는 생활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교육과 강한 품성이 절대적 필요 요건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는 남자와 여자로서 지켜야 할 내외법이 엄격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지만 부부간에 서로 동지로서 공경하는 자세가 더욱 강조되었다. 또한 여성에 대한 교육이 강화됨으로써, 성리학적 여성관을 넘어 중용의 도를 실천하는 군자가 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이순구(1995)는 조선 초기 사회에서 여성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지

만 이후 종법(宗法)의 확립과 그것에 기초한 여성에 대한 일상생활의 규제, 강화된 가부장제, 혼인제도의 변화, 여성에 대한 상속권과 봉사권의 제한 등은 점차 조선 사회 여성들의 지위를 위축시켰다고 하였다.

이배용(2000)도 조선 전기에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낮은 편이 아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라의 정책과 가부장적 질서의 강화로 인해 크게 낮아졌다고 보았다. 그러나 유교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억눌리기만 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기도 했다는(이순형, 1993) 의견도 있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지위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조선 전기에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재산상속권을 지녔었고 가정 내에서의 발언권, 자유로운 재혼 등의 권리를 누렸다. 조선 중기까지, 혼인한 여성은 친정에서 가지고 온 재산과 친정과의 유대가 남아있어서 어느 정도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여성은 상속권의 축소, 남성에 대한 순종, 재가 금지 등으로 권리가 축소되었고 점차 지위가 낮아지게 되었다.

이처럼 사대부가의 여성들이 성리학적 유교 윤리의 지배하에 억눌려 있던데 반해 일반 평민과 노비층은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3. 장계향의 가족 레질리언스 분석

Walsh(2002)의 가족 레질리언스 모델은 신념 체계와 조직과정, 의사소통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념 체계는 역경에 대한 의미 부여와 역경을 보는 긍정적 시각, 이데올로기 등 3개의 하위요소가 포함된다. 조직과정은 가족의 중재 또는 완충장치로서 융통성과 연속성, 사회 및 경제적 자원의 하위요소로 구성된다. 의사소통과정은 가족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주요 요인으로 명료성과 개방적 정서 표현, 상호협력적 문제 해결의 3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발달과 생활주기에 따라 장계향의 성장기와 혼인 이후로 나누어 원가족과 현 가족의 가족 레질리언스를 각각 분석하였다.

1) 신념 체계

(1) 성장기

① 역경에 대한 의미 부여

- 역경과 고통의 개념화 및 정상화

장흥효의 직계 가문은 자손이 귀한 집안이었다. 고조부 장흠과 증조부 장이무는 형제가 없었고 조부 장흠은 삼형제였으나 조부의 자손은 없고 동생들의 자손만 이어졌다. 아버지 장팽수에게는 형제가 없고 누이뿐이었다. 장흥효에게는 남동생 한 명과 여동생 세 명이 있었지만 그중에 남동생 한 명과 여동생 한 명이 각각 젊어서 사망하였는데 장흥효가 제사를 주관하여 지냈다.

따라서 장흥효에게는 종형제도 없는 셈이어서 4대 봉사를 한다고 해도 제사를 주관할 직계 혈족이 재종제 몇 명밖에 없었다(우인수, 2012). 더구나 장흥효는 혼인한지 오래도록 자식이 없다가 어렵게 낳은 자식이 딸이었다. 당시의 사회상으로 볼 때 장흥효는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는 자신을 죄인으로 느꼈다.

장계향이 태어난 다음 해에 조부모 묘소에 성묘하면서 딸을 조상님에게 인사시켰는데 장흥효는 불효했다는 생각에 잣나무를 부여잡고 배회하며 괴로워했다(정부인 안동장씨실기, 2018).

② 긍정적 시각

- 불평등을 극복하는 자신감

조선 중기라는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장계향은 장홍효의 딸이라는 특별했던 가정환경으로 말미암아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조선의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몇 가지가 있었다. 장계향은 그중에서 ‘또 다른’ 조선의 딸이 되기로 선택한다. 읽고 쓰고 셈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범위를 이미 넘었고 그 당시 여성들이 받아야 했던 수신과 인륜, 가사, 그리고 자녀교육의 내용을 내면화하고 실천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기초교육과 기본교육을 바탕으로 교육의 깊이를 더하고 지평을 확대해 나가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부모에게서 천부적인 유전자를 물려받고 개인의 능력과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시대가 그것을 허락해야 하고 정치와 경제, 사회제도 등 외부적인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장계향은 비록 시대적인 조건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슬하에서는 누구 못지 않게 재주를 부리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운아였다.

장계향은 어릴 때부터 영민하였고, 아버지에게 학문적 가르침을 받았으며, 어머니에게 규방 일을 배우는 것도 등한시하지 않았다. 비록 그 당시 남성 중심이었던 공교육이라는 혜택을 공식적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로부터 퇴계학파의 사상과 정신을 고스란히 전수받는다. 17세기 조선의 제약과 사회환경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따랐다. 그는 평생을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예를 갖추는 삶을 산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것이 바로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여성들과 장계향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홍순희, 2015).

③ 이데올로기⁹⁾

- 보다 큰 가치들과 목적

장홍효는 퇴계의 학맥을 이은 학자 중에서도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간 본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생을 자연 속에서 자기 수양을 실천한 학자이다.

9) p. 21 각주2) 참조

관란현에 올라 바라보니 지나가는 것들은 정녕 저 물과 같구나.
천리가 유행하는 곳에도 인심이 때로 인다네(경당속집; 백태한, 2001 재인용).

장흥효의 우음(偶吟; 우연히 읊음)이라는 오행시이다. 자연에 묻혀 마음을 다스리고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장흥효의 마음이 담겨있다. 관직을 갖는 일이나 출세하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고 내공을 쌓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다(홍순희, 2016).

이를 위해 장흥효는 자연과 더불어 지내며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삶의 진실과 모든 학문의 진리, 도와 덕의 참된 의미가 자연의 이치 속에 깃들어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의 깨달음은 장계향과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장계향은 그것을 자신의 아들과 손주들에게로 이어지게 하였다.

(2) 혼인 이후

①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 의미있고, 이해할 수 있고, 관리할만한 도전으로서의 위기

장계향이 이시명과 혼인할 당시 시가의 상황은 가세가 몰락하는 형세였다. 4년 전에 이시명의 만형 이시청이 과거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37세로 객사하였고 같은 해에 바로 윗 형인 이시형도 과거를 보고 오다가 27세의 나이에 원인 모를 병으로 요절하였다. 두 해 전에는 이시명의 전부인 광산 김씨가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한 해 전에는 이시형의 처인 둘째 동서가 남편의 3년 상을 마치고 슬퍼하다가 자결하였다.

몇 년 사이에 아들 둘과 며느리 둘을 잃은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장계향은 셋째 며느리였지만 시댁으로 들어간 첫날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많은 식구를 뒷바라지하는 실질적인 만며느리 역할을 해야 했다(장선희, 2020). 게다가 이시명에게는 전부인의 자식인 1남 1녀가 있었으니 장계향은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야 했다.

시아주버니 두 분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자결한 윗 동서가 남긴 조카들 그리고 전부인의 소생, 혼인하지 않은 시동생까지 많은 식구의 살림을 맡아야 한다는 부담을 장계향은 기꺼이 수용하였다. 시부모님을 섬기는데 성심을 다하였고 남편 이시명에게도 손님을 대접하듯 정중하게 대하였다.

그리고 전설 광산 김씨가 낳은 1남 1녀를 자신이 낳은 자식과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였으며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아끼고 돌보아주었다. 전부인 소생 1남 1녀에게 장계향이 베푼 사랑은 시아버지 이함의 『운악선생 문집』에 기록되어 있다.

시아버지인 이함은 새색시가 어린 자식을 타이르는 태도가 마치 자식 여럿을 키운 아낙처럼 말이 절실하고 극진한 것을 보면서, 저 아이는 어미를 잃은 것이 아니라 죽은 어미가 살아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기뻐했다(이함, 연도미상: 김춘희, 2012 재인용).

장계향이 이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려 애쓰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며 역할을 수행한 것은 자아실현의 자기수양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장선희, 2020).

② 긍정적 시각

- 가능한 것의 정복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의 수용

장계향이 혼인하여 낳은 첫아들 휘일과 막내아들 운일 그리고 딸 두 명은 장계향보다 먼저 죽었다. 장계향은 자식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게 되어 행여 장계향이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이 염려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자신이 함부로 하는 것은 불효이므로 자신의 몸을 소중히 간수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하였다(배영동, 2011).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부인께서 반드시 슬픈 감정으로 인해 자기의 생명을 손상시키게 될 것이다’고 여겼으나 부인께서는 곧 감정을 줄이고 슬픈 마음을 억제하여 지나치게 상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애통이 절박하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내 몸을 훼손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장계향은 어렸을 때부터 예(禮)의 가장 근본이 되는 효를 어릴 적부터 몸소 실천하였다. 효에 관한 장계향의 마음가짐은 그의 시편 ‘경신음(敬身吟)’에 나타나 있다.

此身父母身	이 몸은 부모님께서 낳으신 몸이니
敢不敬此身	감히 몸을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此身如可辱	이 몸을 만약 욕되게 한다면
乃是辱親身	이는 곧 아버지의 몸을 욕보이는 것이다

(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③ 이데올로기¹⁰⁾

- 타인을 돕는 헌신: 사회적 책임감

시아버지 윤학 이함은 비록 관직에 오래 있지 않았고 높은 관직에까지 오른 적도 없지만 나라와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학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힘을 쏟았다(장운수, 2015).

나라의 어려운 상황과 민족을 생각하고 분하고 애통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집안의 재산을 털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그는 자신과 가족들만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므로 굶주린 이들을 살려내는 것을 자신이 해야 할 사명으로 여겼다.

집안의 창고를 개방하였고 식량이 부족하면 산에서 도토리를 주어다가 솥에 쭈어서 그릇에 담아 내놓고는 구걸하는 이가 오면 집에 들어오게 하여 그것을 먹이거나 혹은 자루에 담아서 보내주기도 하였다. 여기저기에서 이런 소문을 듣고 모여든 인파가 하루에도 수백 명이 넘었는데, 당시 이함의 구휼활동에 힘입어 살아난 사람이 대단히 많았다.

시아버지 이함의 구제활동을 통한 인애의 삶은 며느리인 장계향에게로 이어진다. 장계향은 이함의 경제제민의 사상을 직접 보고 옆에서 경험하였고 후에 석보에서 살던 시절에 도토리나무를 심어 굶주린 사람은 누구든 와서 먹을 수 있게 하였다. 지금도 약 400년 된 나무 400그루가 그곳에 남아있다.

장계향은 친가와 시가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개인적 수양과 사회적 실천을 모두 겸비한 성리학적 삶을 실현하였다(장운수, 2015).

10) p. 21 각주2) 참조

2) 조직과정

(1) 성장기

① 융통성

- 안정성과 변화의 균형

이시명은 장홍효의 사제 중의 한 사람이었다. 글씨도 잘 쓰고 시문에도 능했던 이시명은 영남지방에서 이름난 선비였다. 그는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폐출시키자 출사의 뜻을 버리고 퇴계의 학맥을 이어받았다고 평가받는 장홍효의 문하에 들어 퇴계학의 정통을 배웠다.

이시명은 당시 장홍효의 문하에서 수학하던 의욕적인 젊은이였다. 당시에 이미 소장 학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장홍효가 기대를 했던 젊은이였다. 그는 이시명을 자신의 학문을 계승할 만한 능력을 충분하게 갖춘 제자로, 후세에 빛낼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 당시 이시명은 전부인 광산 김씨와 사별하고 자식도 둘이나 있었으나 장홍효는 이시명에게 자신의 사위가 되어 줄 것을 먼저 청하였다. 평소 이시명의 학문과 사람 됨됨이를 눈여겨보던 장홍효는 자신의 딸과 이시명을 혼인시켜 한 집에서 데리고 살고 싶었던 것이다(정동주, 2013).

장계향은 비록 자신보다 8살이나 연상이고 한번 상처한 경력이 있는 이시명이었지만 아버지 장홍효를 믿고 뜻을 따랐다. 이로써 장홍효의 학문이 장계향과 이시명의 혼인으로 재령 이씨 가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장홍효와 이시명은 사제관계로서 ‘학문적 연속성’을 확보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장서관계를 뛰어넘은, 흡사 부자관계와도 같은 ‘긴밀한 삶의 연속성’을 쌓게 되었다.

후대의 학자들은 이시명이 장홍효로부터 심학의 도를 듣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이시명의 가학의 연원을 장계향에게로 소급하였다. 결과적으로 장계향의 친가와 시가의 가학은 그녀의 존재로 인해 ‘연계된 공통성’을 가지게 되었다(남권희 외, 2017).

② 연결성

- 가족 구성원에 대한 양육, 보호, 안내

조선 사회에서, 유교는 ‘가족에 관한 사상이다’라고 할 만큼 가정을 중시하였고

이러한 가족주의에 입각하여 유가(儒家)는 “우주는 한 몸, 한 동포이며, 만물은 한 가족이다”라고 역설하였다(임헌규, 2011).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장흥효의 가족 사랑은 남달리 지극하였다. 그는 집안의 대소사를 두루 신경 쓰고 챙겼으며 부인과 딸의 건강을 챙기는 등 가족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지극하였다.

장계향이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앉아 성인에 대한 담론을 나누었고, 아내의 병환을 지켜보는 딸의 모습에 안타까워하였다. 장계향이 이시명과 혼인하여 시가로 간 후에는 딸과 편지를 주고받았고, 직접 사돈댁을 방문하여 회포를 풀었으며, 외손자를 지극히 아끼는 모습을 드러낸다.

또한, 그 당시 봉제사는 당연히 해야 할 책무였지만, 집안의 모든 모임과 제례를 자신이 참석 주관하였고 관리하였다. 그는 몸이 약한 부인이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것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장흥효는 그의 저서인 『경당일기』에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기록하였다.

(가) 20일 甲子

집에 病患이 있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27일 辛未

머리를 빗지 않았다. ○ 拜禮를 폐하였는데 집에 병환이 있었기 때문이다(장흥효, 2012).

장흥효는 항상 선조에게 배례를 하고 머리와 용모를 단정하게 했다. 위의 일기처럼 배례를 폐하였다는 것은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조심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이다. 장흥효는 늘 많은 손님을 치루어야 하는 아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졌고, 병약한 아내를 보며 안타까워 했다(김종구, 2021). 아내가 아파서 걱정 되는 마음을 자신의 일기에 담고 있다.

장계향이 출가한 후에도 편지를 통해 안부를 물었고 딸의 모습을 보기 위해 직접 사돈댁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장흥효는 가족과 집안에 대해 지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정신은 외손자 이현일에게 이어져 이현일 역시 자신의 가족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김종구, 2021).

③ 사회 및 경제적 자원

- 확대된 친지와 사회적 지지의 동원: 모델들과 멘토들

장계향의 아버지 장흥효(張興孝)는 퇴계(退溪)선생의 학통을 이어받은 학봉 김성일의 제자로 당대의 학자로 인정받은 인물이다. 정밀하게 탐구하고 신중히 생각하며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자신의 품성과 인격을 높이는 것을 소임으로 아는 학자였다(김복희, 2013).

그는 17세기 경북 북부지방 성리학계의 최고의 학자였던 인물로 여러 면에서 퇴계학파의 중심에 있으며, 또한 그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퇴계학파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학문은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근본적으로 실천수양의 방향을 지향하였다. 그는 외부 출입을 삼가하고 매일 자신이 행한 것과 생각을 기록하고 점검하며 학문에 몰두하였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풍요로웠다.

어머니 안동 권씨는 동강 권사온과 옥천 전씨 사이의 3남 4녀 중 딸이다. 온화한 성품으로 당시의 여성으로서 지녀야 할 덕목을 몸소 행하는 규범 있는 부인이었다.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두루 살피고 챙겼으며 음식솜씨도 뛰어났다. 경당 선생과 안동 권씨는 모든 것에 경으로써 예를 다해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장계향의 외조부 권사온은 기백이 웅장하고, 당시에는 드물게 95세~105세까지 장수했다고 알려질 정도로 강건한 인물이다. 전쟁이 나자 자신의 아들 1명과 서자 3명 그리고 인척 5명을 의병으로 내보낼 정도로 의협심이 강하였고 사재를 털어 군량미를 보낼 정도로 부유하였다. 안동 권씨 가문의 기록에 의하면 “살림은 넉넉하여 세입이 수 천석에 이르고 항상 친지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고 가난한 사람의 자루에 쌀과 소금을 가득 채워주었다. 또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서 항상 술을 준비하였다(김복희, 2013)”고 한다.

사위 장흥효와 마찬가지로 퇴계 이황의 학문을 숭모했고 문인들과도 교류하며 다수의 시편들을 남겼다. 딸과 사위 장흥효를 각별히 생각하여 두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집 『東江詩稿』 여러편의 시를 수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장계향의 부모와 외가 모두 성리학적 실천수양의 삶을 지향하는 가풍을 지녔다.

(2) 혼인 이후

① 융통성

- 안정성과 변화의 균형

장계향이 혼인하고 영해로 떠난 뒤에 200리 떨어진 안동 친가에는 돌보아드릴 자식 하나 없이 늙어가는 두 분 부모가 살고 계셨다. 더구나 평소 몸이 허약했던 친정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밤낮없이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다. 늘 기운 없는 친정어머니가 생각날 때면 장계향은 큰 죄인이 된 기분이 들고는 했다. 그래서 그녀는 친정 부모님을 뵈려고 1년에 한 번씩 친정을 다녀왔다.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장계향이 혼인한 지 6년 만인 1622년에 어머니 안동 권씨는 세상을 떠나게 된다.

친정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홀로 남으신 친정아버지를 두고 차마 떠날 수 없었던 장계향은 시아버지와 남편의 적극적인 혜량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더 친정에 머물며 친정아버지를 보살폈다(김영순, 2015). 게다가 당시 아버지의 나이가 60에 가까웠는데 대를 이을 자손이 없어 이를 걱정하던 장계향은 남편과 의논한 뒤 손수 물색하여 새어머니를 맞이한 뒤에야 시댁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경당 선생이 회갑이 되던 해인 1624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출가를 했음에도 시아버지와 남편의 허락하에 친정에 2년을 더 머물면서 아버지를 모셨다고 한다. 9살, 6살, 4살, 2살의 4남매 동생들을 영해의 나랏골로 데리고 와서 집을 마련해주고 친정인 장 씨의 사당까지 지어서 조상의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으며 또 동생 형제를 남편 석계에게서 학문을 배우게 하였다. 부인께서는 친정인 안동의 금계마을에 다시 집을 마련해 그들 3남매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문을 형성하여 살도록 터전을 마련하였으니 하마터면 끊겨질 경당의 가문을 잇게 하였다. 이런 일들은 덕망 높으신 시부모님의 허락도 훌륭하셨으나 석계 선생의 배려심도 감복할 일이라고들 하는데 사람들은 선군자의 의리를 강하게 여기면서도 부인의 효성을 칭찬했던 것이다(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많은 시댁 식구들의 살림을 맡고 있었던 장계향이 이처럼 친정 안동까지의 먼길을 1년에 한 번씩 다닐 수 있었고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2년을 더 시가를 떠나 있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아버지 이함과 남편 이시명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연결성

- 가족 구성원에 대한 양육, 보호, 안내

1622년에 친정 어머니 안동 권씨가 돌아가신 후 자식도 없이 홀로 늙어가는 아버지를 위해 장계향은 스물한 살의 안동 권씨와 재혼시켰고 장흥효는 예순을 훨씬 넘은 나이에 두 번째 부인에게서 3남 1녀의 자식을 얻게 되었다.

계모인 안동 권씨는 장계향보다 세 살이 어렸고 집안 살림이 서툴렀다. 장계향은 1624년까지 친정에 머무르며 새어머니에게 경당 가의 살림을 가르쳐주고 새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자 산바라지까지 하고 3년 만에 시가로 돌아갔다.

1633년에 아버지가 70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복동생들은 9살, 6살, 4살, 2살의 어린 나이였다. 장계향은 아버지 없이 남겨진 새어머니와 동생들이 가여워서 자신이 살고 있는 영해로 데리고 와서 집을 마련해 주고 돌보았다. 남편 이시명은 어린 처남들에게 학문을 가르쳐 주었으며 친정의 제사도 장계향이 주관하여 모셨다. 이복동생 4남매 중 일찍 죽은 둘째 동생을 제외한 3남매는 제 나이에 혼인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왔다(배영동, 2011).

또한, 친가인 안동의 금계 마을에 다시 동생들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해 고향으로 돌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는 등 남매의 만으로 보호자 역할을 다 하였다. 이러한 장계향의 노력으로 장흥효의 후손이 없어 대가 끊어질 처지였던 친정 가문의 맥을 이을 수 있었다.

③ 사회 및 경제적 자원

- 확대된 친지와 사회적 지지의 동원:모델들과 멘토들

장계향이 공동체적 삶을 실천한 가정과 향촌 사회는 시가의 삶의 범위와도 겹친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장계향의 실천적 삶의 배경에는 시댁의 가풍, 그중에서도 시아버지 이함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유학적 공동체 이념은 장계향과 이함의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시아버지와 며느리로서 한 가족을 이루며 가정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가풍으로 형성하였다.

장계향은 친정아버지인 장흥효에게서 성리학의 핵심이라고 할 지경의 삶을 직접 보고 배웠으며, 이를 통해서 평생에 걸쳐 내적 성찰과 수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또한, 시아버지 이함과 시가의 가풍으로부터는 교화와 구제라는 사회적 실천의 가르침을 보고 배웠으며 자신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시가의 재력이

뒷받침되어 가능했던 면도 있다.

장계향은 아버지 장홍효로부터 이어받은 가학의 정신을 아버지의 제자이기도 한 남편 이시명과 함께 자신들이 이룬 가정의 정신으로 계승하였으며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였다. 이들의 자녀들은 가학의 전통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이를 통해 자기성찰이라는 내성의 이념과 평천하의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주력하였다.

3) 의사소통과정

(1) 성장기

① 명료성

- 명확하고 지속적인 메시지(말과 행동들)

장홍효는 장계향이 비록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총명함이 번득일 때마다 딸로 태어난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딸에게 군자가 되기 위한 입문서인 『소학』과 세상 돌아가는 실체를 알기 위한 중국의 역사서인 『십구사략』을 가르쳐 주었는데 장계향은 어려워하지 않고 잘 받아들였다(김춘희, 2012).

하루는 장홍효가 문학생들을 데리고 『황극경세』의 이론인 원회운세(元會運世)를 가르치다가 질문을 하였는데 어려운 내용이어서 제대로 대답하는 이가 없었다. 장홍효는 딸을 불러 그 학설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장계향이 막힘없이 대답하자 감탄하였다. 직접 가르쳐준 적이 없는 내용을 어린 딸이 방밖에서 듣고 스스로 깨우쳤던 것이다.

선생께서 일찍이 문인소자들과 원회운세의 운수를 말하게 되자, 이 학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조금 뒤, 돌아와 안방에 들어와서 부인(장계향)을 불러서 그 학설을 물으니, 부인은 나이가 겨우 열 살 남짓한데도, 잠시동안 말없이 잠잠히 앉아 있다가 그 수를 날날이 세어서 대답하므로, 선생이 아주 기특하게 여겼다(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이후로 장홍효는 아침 저녁으로 직접 장계향을 데리고 앉아 성현들의 좋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장계향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생활 속에

서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부인은 성품이 총명하고 자효하며 훈계가 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였다(정부인안 동장씨실기, 2018).

② 개방적 정서 표현

- 광범위한 감정공유

장홍효는 자신의 공부일기인 『경당일기』를 통해 사대부 가문의 근엄한 선비가 아닌 자연인으로서의 꾸밈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경당일기』에 수록된 내용들이다.

10일 癸丑

○ 죽인의 초대에 나아가 과음하여 안으로 심지를 어둡게 하고 밖으로 위의를 잃었으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외부활동에서 과음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행위를 반성하고 잠시동안이나마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경을 잃었던 모습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다.

3일 丙子

들으니 오경허 군이 석방되어 집에 돌아왔다 하므로 무슨 기쁨과 다행이 이와 같겠는가? ○ 밤에 꿈속에서 사람들의 다그침을 받았다

오경허라는 인물이 석방되어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에 장홍효는 자신의 일인냥 즐거워하고 있다.

24일 丙申

선현배례를 폐하였다. ○ 권극경 군이 찾아왔다. ○ 권대립이 질병으로 집에 돌아갔다. 바람이 차가운데 어찌 견디며 가겠는가?

선현에 대한 배례를 하지 않고 권대립의 질병을 걱정하고 있다. 아픈 몸으로 찬 바람을 맞으며 돌아가는 모습에 마음 아파하는 심경이 잘 나타나 있다.

4일 乙丑 맑음

이회숙의 처가 해산하는데 날이 이미 진시가 되었다. ○ 온 집안이 분주하고 바빴다. 집사람이 이 때문에 병이 심해져 집안일을 살피지 못할 지경이 되었으니, 그 민망함을 말할 수 있으랴! ○ 세수하지 못하고 머리를 빗지 못하였다.

장계향이 친정에 와서 딸을 낳는 모습이다. 아내인 안동 권씨가 아픈 몸으로 딸의 해산을 돕는 것을 보고 미안함과 안쓰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장홍효는 가족뿐만 아니라 인척, 제자, 이웃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 해도 그런 내밀한 속마음을 선비가 직접 기록을 남기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대에 자신의 일기가 공개될 수 있음에도 숨김없이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

③ 상호협력적 문제 해결

- 목적에 초점 두기: 구체적인 단계 밟기

장홍효는 평생 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했다. 그는 은구지사이었기에 더욱 지경을 철저히 하고 실천하고자 했다. 오직 순수처사의 자세를 견지하며 ‘경(敬)’으로 일관된 올바른 삶을 살다 가신 은구지사인 장홍효에게 지경은 삶의 전부였다.

그러한 삶 속에서도 장홍효는 가족과 동류에 대한 의식이 강했는데, 이러한 정서를 시로 표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잔잔한 인간애가 넘치는 시가 많은데, 가족애와 향수 등을 포현한 시가 다수 존재한다.

위로 부모님께 늘 근심을 끼쳤고,

아래로 가족들에게 탄식케 했네.

덕(德)이 적어 안회(顔回)의 즐거움에 미치지 못해

오래 궁박한 살림살이로 온종일 슬펐다네(경당속집; 백태한, 2001 재인용)

장홍효는 늘 부모님께 근심을 끼쳐드렸고 가족들로 하여금 탄식하게 했다고 표현했다. 가난을 즐기던 안회(顔回)의 성품을 따르고 싶었지만 덕이 적어서 그리하지 못하였고 늘 궁박한 살림살이로 인해 슬프다고 한탄하고 있다. 안회는 공자의 제자

들 중에서 덕의 실천에서 가장 뛰어났던 제자로 가난하고 불우한 생활 속에서도 오로지 연구하고 덕을 쌓는 일에만 전념하여 공자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으며 겸허한 구도자의 상징이 된 인물이다.

실사 장홍효 자신은 안희가 가졌던 덕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주변 가족들의 힘듦과 삶의 고통을 생각하면 절로 미안해지는 마음은 스스로도 가눌 길이 없었을 것이다. 학자로서의 이상과 가족을 거느린 가장으로서의 궁핍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선비의 아픔이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홍효는 안희의 덕을 쌓기 위해 평생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

(2) 혼인 이후

① 명료성

- 명확하고 지속적인 메시지(말과 행동들)

장계향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늘 옛 성현들의 말씀을 존중하고 본받으라고 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성현들의 좋은 말씀을 읽고도 행실은 본받지 않는 폐단을 탄식하였다. 평소에 장계향은 자애롭고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였지만 자식들이 잘못된 일이 있으면 엄하게 꾸짖고 잘못을 바로잡도록 했다.

일곱 아들과 세 딸을 키우는 데 있어 어떤 일이든 칭찬이나 꾸중이 늘 적절했으며 잘못이 있으면 그 옳지 못함을 낱낱이 들어 깨우치는데 그 가르침이 절실하여 감히 불만을 생각할 일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자녀가 깨치지 못함이 있었다더라도 장계향의 거듭되는 간곡한 훈도에 깨치고 뉘우쳐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었다(김구현, 1999).

부인께서 아들 6인과 딸 2인을 두셨는데,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아주 지나쳤지마는 과실이 있게 되면 잘못을 바로잡아 꾸짖고는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었다.

언제든지 틈이 생길 때면 여러 아들과 딸들을 가르쳤다. 부모를 잘 섬기는 일, 아우가 형에게 공손하는 일, 마음이 성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공정하면 질서가 서고 태만하면 사업이 실패하며, 의리를 따르면 세상에 나아가 자기의 지위를 확고하게 세우며, 욕심을 따르면 망신당한다는 것을 자세하고 간곡하게 타일러 말하고, 되풀이해서 더욱 자상하게 설명하셨다. 나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더러는 무슨 말씀이신

지 제대로 살펴 알아듣지 못하였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참으로 자상하게 내 컷가에 남아있다(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자식들에게 뿐만 아니라 집안 살림을 보살피는 일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일의 시작과 끝맺음을 정리하는데도 법도 있고 분명하여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였다.

② 개방적 정서 표현

- 상호 감정이입: 차이에 대한 관용

장계향과 이시명은 57년을 해로하면서 부부간에 예절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였으며 이시명은 8살이나 어린 아내를 깊은 사랑으로 지극히 대하였다(김복희, 2013). 장계향은 남편을 받들어 섬기며 서로가 손님을 대하듯이 공경하였고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실행하였다.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이 의견을 내야 할 때는 분명하게 전달하였다.

이시명은 엄격한 성품을 지녔지만, 장계향의 인품과 세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 학문적 깊이를 신뢰하여 조언을 귀 기울여 들은 듯하다.

부인께서는 비록 학문과 재능을 숨겨서 스스로의 지조를 지키고 자기 몸을 낮추고 순종하면서 스스로 처신하고 있었지만, 기상과 품격은 호방하고 쾌활하며 견식과 도량은 청아하고 원대하였기 때문에 고금의 사변에 대해서도 모두 이해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선군자께서 성품이 엄격하셨는데, 무릇 성을 내는 일이 있을 때마다 부인께서 조용히 성낸 일을 풀어드려서 과격한 행동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셨다(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③ 상호협력적 문제 해결

- 예방적 자세: 문제예방, 위기의 전환, 미래의 도전에 대한 준비

장계향은 남편에 대해 무조건 순종하고 단순히 따르기만 하는 아내가 아니고 동반자이자 협력자 그리고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다음은 3남인 갈암

이현일의 기록이다.

부친을 받들고 섬기면서 거의 60년 동안 서로 손님을 대하듯이 공경하였으며, 모든 일을 먼저 남편에게 아뢰어 조언을 받은 뒤에 실행하였다(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선군자에게 도와서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는 이미 세상을 피해 살면서 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마땅히 시경(詩經) 과 예기(禮記)로써 아들과 손자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이 세월에 맞추어서 어른과 아이들을 거느리고서 학문을 강론하고 예절을 익히도록 하여, 전대를 빛내고, 후진을 계발시키는 사업을 크게 이루지 않으십니까?”라고 하니, 선군자께서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는 가는 곳마다 매양 초하루와 보름에는 소학(小學)과 성리학(性理)의 글을 강론하고, 간혹 향사례(鄉射禮)와 사상견(土相見)의 의식을 시행하여 후학들을 면려하였으니, 부인이 가장을 도와준 공로가 많았던 것이다(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

남편 이시명이 병자호란으로 조선이 오랑캐의 나라에 굴복하였다고 상심하여 세상을 등지고 삶의 지향점을 잃었을 때 장계향은 이시명에게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배영동, 2011). 이를 보면 부부간에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장계향은 모든 일을 남편에게 설명하고 때로는 남편의 지시에 따르기도 하면서 남편이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오늘날 한국의 가족은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출산율의 저하, 이혼율의 급증 등으로 인해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으며 다양해진 삶의 양식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게 현실이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본단위이며, 개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가정의 건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정의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족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가족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고 배울 수 있는 롤 모델이 필요한 시대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갖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몰락하는 가문을 일으켰으며 인성을 중시하는 참교육으로 자녀들을 훌륭하게 성장시켜 사회의 모범이 되었던 장계향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장계향은 당대에 여중군자로 칭송받았으며 그의 가문은 조선 중기부터 현 시대에 이르기까지 몇 세대를 이어 명문가로 꼽히고 있다.

장계향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연이은 전쟁과 ‘소빙기’라는 참혹한 기후 재난으로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몰락해 가는 가문을 일으키며 가정을 번성하고 건강하게 유지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주변의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등 애민사상을 실천하였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장계향이 여성으로서 전인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바탕은 무엇이며 생태체계는 어떠하였고 가족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장계향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고, 장계향의 업적 중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음식디미방』을 저술했을 때 장계향의 나이는 70세에서 73세로 추정된다. 지금에 비해 평균수명이 짧았던 17세기에 70대의 상당한 고령임에도 건강을 유지하여 『음식디미방』을 직접 집필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장계향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장계향의 생애 연구를 통하여, 성공적인 자녀교육과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고, 지금 가족 위기의 시대를 살고있는 우리에게 장계향이라는 인물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장계향의 생

애에 관한 기록들은 3남인 갈암 이현일이 집필한 『정부인안동장씨실기』와 장홍효의 공부록 『경당일기』, 시문집 『경당집』에 수록되어 있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의 한 형태인 생애사 연구로 장계향의 생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문헌분석을 하였다. 장계향의 생애를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성장기와 혼인 이후로 나누어 구성한 뒤 생애와 가문, 생태체계, 가족 레질리언스, 『음식디미방』의 저술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계향의 생애와 가문을 분석한 결과, 장계향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날로 낮아지던 조선 중기에 경당 장홍효와 안동 권씨 사이의 무남독녀 외동딸로 태어났다. 비록 딸이었지만 아버지 장홍효는 총명함을 타고난 딸에게 어려서부터 톡톡이 성현들의 말씀을 가르쳤다. 학자의 딸이라는 특별한 가정환경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개인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것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 사회제도 등 시대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장계향은 여성으로서의 시대적 조건은 좋지 않았지만 가정에서는 마음껏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총명함을 발휘할 수 있는 행운을 가지고 있었다.

퇴계의 학통을 이어받은 성리학자였던 장홍효는 일신의 영달을 꾀하지 않고 오로지 성리학의 실천수양과 후학양성에 힘써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당대의 대학자였다. 장계향은 그런 아버지에게서 지경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성장하였다.

장계향은 19세에 아버지의 주선으로 아버지의 제자인 이시명과 혼인하였다. 이시명은 23세에 생원 진사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들어갔지만 광해군의 폭정을 겪고 과거를 단념하여 성균관을 나왔다. 그 후에 퇴계 문하의 학봉 김성일과 서애 유성룡의 가르침을 받은 장홍효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시아버지 윤악 이함은 영해에서 처음으로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당시 정세의 혼란함을 보고 실망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였다. 그 후 그는 퇴계 이황, 학봉 김성일, 서애 유성룡 등과 친분관계를 맺으며 학문의 기반을 넓혔다. 또한,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여기고 구휼활동에 힘썼다.

장계향의 성장기와 혼인 이후의 생애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아버지 장홍효와 남편 이시명, 시아버지 이함은 모두 개인적인 출세나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군자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성리학자였던 것이다. 장계향이 평생 지경의 삶을 실천하고 ‘여중군자’로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가학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둘째, 장계향의 생태체계를 Kemp(1998)의 모형을 적용하여 개인체계와 가족체

계, 사회체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개인체계를 분석한 결과, 장계향은 총명하고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으며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또한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하였으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받은 성리학 교육의 영향으로 실천수양하였으며 성인의 삶을 지향하였다.

가족체계에서 아버지 장홍효의 가학적 집안 분위기 덕분에 장계향은 당시 여성으로는 드물게 학문을 쌓을 수 있었고 남편 이시명은 존경하는 스승의 딸이자 성리학적인 삶을 실천하는 장계향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체계에서는 전쟁과 정치적 혼란으로 남편 이시명이 은거하여 세상과 인연을 끊고 학문과 후학양성에 몰두하게 되었다. 기후재난으로 발생한 흉년과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반복되자 시아버지 이함은 구휼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를 돕던 장계향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구휼활동을 하였다.

17세기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점점 낮아지고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성리학 실천운동의 전개로 『주자가례』를 각 가정에 적용하려는 운동이 시작되고 이는 사대부 집안 여성 교육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교육의 강화는 성리학적 여성관을 넘어 군자가 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받기도 하였고 장계향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창조적이고 발전적으로 적응한 여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장계향이 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우선, 개인적인 특성의 발현과 함께 친가와 외가 그리고 시가 모두 퇴계 이황의 경 사상을 숭모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의 시대적 상황은 장계향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두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이러한 배경은 장계향이 자식으로, 아내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통한 실천수양과 자녀교육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것 그리고 애민사상을 실천하는 바탕이 되었다.

셋째, 장계향의 가족 레질리언스를 살펴본 결과, 3가지 핵심요소에서 친가와 시가 모두 높은 가족 레질리언스가 존재하였다. 신념체계에서 양가 집안의 학문적 뿌리와 가족의 힘은 모두 성리학에 있었다. 아버지 장홍효와 남편 이시명, 시아버지 이함은 모두 벼슬에 오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탐하지 않고 학자로서 실천수양하는 삶을 택하였다.

장계향의 친가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사대부 집안으로 아버지가 학당을 하였고, 손님들을 맞아 대접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 외가는 ‘세입이 수천 석에 이른다’고 할 정도의 부자였다. 시가 또한 시아버지가 의령 현감을 지냈고 후손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권이 넘는 서적을 모았으며 임진왜란으로 사람들이 굶주리자 자신의 곳간을 털어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경제적으

로 부유한 집안이었다.

장계향은 성장기와 혼인 초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있었고 따라서 자신이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었다. 성리학에서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먼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도덕적인 의무라고 보았다. 장계향은 성리학의 실천수양을 통해 이미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있었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조직과정의 경제적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병자호란의 발발로 좌절된 이시명은 노비들을 포함한 식솔 30여 명을 데리고 영양 석보촌으로 이사하였다. 이시명과 장계향은 재산 상속을 포기하고 전에 아버지로부터 상으로 받았던 땅 십여 마지기만을 가지고 나왔다. 게다가 계속된 흉년으로 생활은 말할 수 없이 궁핍했지만 굶주리는 이웃을 위한 장계향의 선행은 멈추지 않았다.

애써서 일군 전 재산이 노비의 실수로 불타 없어졌을 때도 장계향은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았고 자식 넷이 죽었을 때에도 ‘감정을 줄이고 슬픈 마음을 억제하여 지나치게 상심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지는 않았다(정부인안동장씨실기, 2018)’고 한다. 이는 장계향 개인의 레질리언스와 가족의 레질리언스가 모두 높게 존재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장홍효는 가족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않는 선비였다. 몸이 아픈 부인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을 일기에 남겼고 부인을 대신해 자신이 집안의 대소사를 두루 챙겼다.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다른 시대였지만 장홍효와 부인 안동 권씨는 서로 예를 갖추어 대하는 수평적 관계를 이루었다. 친정부모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란 장계향은 혼인 후에 모든 일을 남편 이시명과 상의하였고 이시명도 장계향의 말을 존중하고 귀담아 들었다.

자녀와 관련하여 레질리언스와 특히 관련되는 부분은 의사소통과정이다. 장계향은 평소에 인자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였지만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엄격하게 훈계하였다. 장계향은 효가 성리학적 삶의 실천에 있어 가장 근간이라는 신념으로 자녀들에게 효 사상을 강조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제공하였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규칙을 제공함으로써 자녀들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장계향의 양육방식은 현대의 부모가 갖추어야 할 양육태도인 구조제공과 자율성 지지, 따스함과 일치하고 있다. Skinner et al.(2005)가 제시한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 유형인 구조제공과 자율성 지지, 따스함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와 내재적 동기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구조제공은 규칙의 설정이나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명확하게 자신에게 기대되는 행동이나 과제를 인식하게 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조절된 행동을 하게 돕는다(Vansteenkiste et al., 2012). 자율성 지지는 자녀가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자기성찰의 과정을 통해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따스함은 부모가 온정적인 태도로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자녀의 자아 개념이 향상되고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행복감을 증진시킨다.

부모의 이러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효과적인 학습전략 사용을 촉진하고 자기조절 학습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다(정유경, 2022). 장계향의 자녀 양육방식은 자녀들이 스스로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했고 7명의 아들은 조선의 칠현자로 불리는 훌륭한 학자들이 되었다.

넷째, 『음식디미방』의 저술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조리서이며, 동아시아에서 여성이 쓴 가장 오래된 조리서로 당시의 식생활과 조리법, 식재료 등의 음식문화를 담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사료이다.

또한, 이전까지의 조리서가 중국의 한자로 쓰여진 내용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그친 반면에 이 책은 당시의 양반가에서 실제로 조리해서 먹던 음식들을 기록한 실용적인 한글 조리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내용면에서 『음식디미방』은 과학적인 재료 계량법과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저장법이 수록되어 있고, 음식 방문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았다. 특징을 보면, 책의 출처와 집필자, 조리법의 출처 지역을 확실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다른 조리서와 구별된다.

장계향이 이 책을 집필한 시기는 70세에서 73세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시대의 평균수명이 35세로 추정된다는 서울대 의대 황상의 교수의 연구(2013)와 비교하면 장계향은 평균수명의 2배 이상의 장수를 누렸다고 볼 수 있다. 장계향의 친가와 시가는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이었는데 친정아버지가 70세, 외조부가 95세~105세, 시아버지가 79세, 남편이 85세까지 살았고 장계향 본인도 83세까지 장수하였다. 장수의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물려받은 유전자의 영향이 있겠지만 평소 섭취하는 음식물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서호찬(2011)에 의하면 최근에는 유전적인 요인보다 식생활과 생활양식 그리고 환경이 장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한다. 노화와 영양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도 식생활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Son & Lee, 1999). 이런 면에서 『음식디미방』을 통해 본 장계향의 친가와 시가의 식습관은 장수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북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에 위치한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에서는 장계향의 업적을 기리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음식디미방』의 조리법으로 재현한 전통음식을 준비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조리서에 수록된 음식중 70여 종을 재해석을 통하여 한정식 메뉴로 정착시켰으며 주류 중에서 감향주와 백화주, 두강주 등 14종의 주류를 복원하여 상품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장계향문화체험관, 2019).

마지막으로 『음식디미방』의 가치를 살펴보면, 첫째, 전통음식의 조리법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료이다. 둘째, 17세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던 당시의 한글로 쓰여 있어 국어학적 관점에서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전통이 담긴 문화유산으로 한국의 음식 문화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남권희 외 2017).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조선시대에 여중군자로 칭송받았던 장계향의 생애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음식디미방』을 집필하여 현대의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겼다.

둘째, 성공적인 자녀 양육의 모델이다. 어질고 바른 어머니인 장계향은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자녀들이 스스로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을 키웠고, 자녀가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자기성찰의 과정을 통해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들을 훌륭한 학자들로 키웠다.

셋째,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장계향은 군자로서의 실천수양과 생활 속에서 선행을 실천하는 것, 자신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숭선수범하였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 사회 가족 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단위인 부모와 자녀는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하는 친밀한 관계이다. 가족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교육의 장이며 개인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성장시켜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중요한 곳이다.

우리 사회는 고도의 성장과 산업화로 전통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 부부 중심의 가족으로 변화하여 원가족 부모와의 왕래가 뜸하고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이 열어지고 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전통도 거의 사라지고 더 나아가 부모학대라는 사회적 문제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장계향이 실천한 ‘효’의 모습은 부모에 대한 공경과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장계향의 ‘효’ 실천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에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부부간에 있어서도 장계향과 이시명은 평생을 ‘손님을 대하듯 서로 간에 공경하였다’고 한다. 이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여 결혼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완화하는 행동지침이라고 하겠다. 부부관계가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은 삶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이며 가정의 분위기와 자녀의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양육에서 부모의 행동양식과 태도는 자녀의 무의식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잘못된 양육방식은 자녀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부정적 행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올바른 양육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장계향이 자신이 낳은 자녀들과 전부인 소생의 자녀들을 차별없이 사랑하고 훈육하여 모든 자녀가 훌륭한 학자와 인격자로 성장한 것은 자녀양육의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0남매를 학문과 인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인물로 키워낸 장계향의 군자교육관은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의 양 영역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장계향의 군자교육관은 현대의 교육이 통합교육, 인문 교육, 전인 교육, 리더 교육, 부모 교육, 여성교육 등을 중시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장계향이 자신의 삶에서 보여준 교육관이 시사하고 있는, 자녀에게 끼치는 부모의 선한 영향력,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 모델과 지침의 발굴은 현대의 부모

들에게도 설득력을 가진다. 이렇듯 장계향은 건강한 가정의 생성과 유지, 자녀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룬 인물로서 현대의 가족관계와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장계향의 생애에 나타난 생태체계와 가족 레질리언스의 힘을 바탕으로 자녀를 교육하는데 적용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활성화되어 가족의 건강성 회복에 본 연구가 디딤돌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남숙. (2023). 생태 체계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연구-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 강민수. (2011). 신사임당의 정서능력 발현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강숙희. (2013). 국내 학위논문을 통해서 본 생애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교육연구*, 28(1), 1-22. <http://www.riss.kr/link?id=A105246569>
- 강유진. (2014).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주의.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77-91. UCI(KEPA) : I410-ECN-0101-2015-520-002648331
- 강현옥, 황혜원 (2009). 여성결혼이민자가 인지하는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1, 55-78.
UCI : G704-001921.2009..31.004
- 구나연. (2023). 코로나19 시기 기혼남녀의 적응유연성이 가족탄력성과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권병도. (2016). 葛庵 李玄逸의 삶과 시세계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권부옥. (2014). 17世紀 張桂香의 生涯에 나타난 女性리더십 유형과 現代的 照明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기화, 정남운. (2004). 만성질환 아동을 둔 가족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가족 탄력성 모형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1-24.
UCI : G704-000533.2004.9.1.011
- 김가연, 홍송희. (2022).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관련 질적 연구 동향 분석. *인문사회* 21, 13(5), 57-70. DOI 10.22143/HSS21.13.5.5
- 김경순. (2010). 이혼여자 한부모 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가 모의 심리적 안녕 및 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모자보호시설 입소자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김구현. (1999). 貞夫人 安東張氏: 위대한 어머니. 貞夫人安東張氏記念事業會.
- 김규리. (2021). 중년여성의 생태체계 요인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한영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남웅. (2019). 한국특수교육에서의 생애사 연구 동향분석. *특수교육논총*, 35(1), 67-93. DOI : 10.31863/JSE.2019.04.35.1.67
- 김미애. (2021). 은퇴한 교장 생애에 나타난 역경과 개인 및 가족 레질리언스 행복

- 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미영. (2011). 전통의 오류와 왜곡의 경계선. **비교민속학**, 46, 437-469.
UCI : G704-000738.2011..46.012
- 김미옥. (2001). 장애아동의 가족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7, 34-70. <http://www.kasw.org>
- 김필양. (2014). 위기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김복희. (2013). 17世紀 張桂香의 生涯에 나타난 意識과 禮節의 現代的 照明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김수정. (2019). 장계향의 삶과 인성 리더십 교육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시범. (2014). 여중군자 장계향의 생애 고찰을 통한 만화기획 방향성 연구. **문화산업연구**, 14(2), 11-22. UCI : G704-SER000010126.2014.14.2.003
- 김시진. (2019). 생태체계이론에 기반한 국내 여성리더십 형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안자. (2009). 가족레질리언스가 가족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7, 73-101. DOI : 10.16975/kjfs.2009..27.003
- 김엽식. (2017). 「음식디미방」의 조리서사적 가치와 음식문화사적 가치에 관한 문헌 연구. **외식산업경영연구**, 13(1), 57-72. <http://www.riss.kr/link?id=A105394090>
- 김영천, 한광웅. (2012). 질적연구방법으로 생애사 연구의 성격과 의의. **교육문화연구**, 18(3), 5-43. DOI : 10.24159/joec.2012.18.3.5
- 김영천, 정상원. (2015).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 문서분석. **교육문화연구**, 21(6), 253-285. DOI : 10.24159/joec.2015.21.6.253
- 김종구. (2021). 경당 장홍효의 가족에 및 가문 형성과 그 의미-『경당일기』를 중심으로-. **가족과 커뮤니티**, 4, 75-108.
<http://www.riss.kr/link?id=A108339451>
- 김지현, 최영준. (2021). 코로나19 시기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남성 가사분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pp. 539-570). DOI : 10.47042/ACSW.2021.02.70.101
- 김춘희. (2012). 장계향의 여중군자상(女中君子像)과 군자교육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김태안. (1997). 石溪 李時明의 思想과 文學. **退溪學**, 9(1), 115-173.
- 김현정. (2023). 화가 이중섭 생애에 나타난 작품경향과 생태체계 및 가족레질리언

- 스 연구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김형수. (1972). 石溪夫人 安東張氏에 對하여. **여성문제연구**, 2, 229-263.
UCI I410-ECN-0102-2009-300-007678958
- 김환철. (2020). **초기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남권희, 박록담, 배영동, 백두현, 임기영, 장운수, 주영하, 차경희. (2017). **음식디미방과 조선시대 음식문화**. 경북대학교출판부.
- 도문학, 허만세. (2015). 노인자살의 생태체계요인에 대한 탐색연구. **社會科學研究**, 31(2), 45-72. UCI : G704-001638.2015.31.2.006
- 민성은, 김영천, 정정훈. (2015). 생애사 연구를 위한 효과적인 자료 분석 방법 탐구. **교사교육연구**, 54(4), 621-638. DOI : 10.15812/ter.54.4.201512.621
- 박경희. (2023).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중학생 자녀의 회복탄력성, 학업적 실패내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 성별에 의한 다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박근화. (2019). **개인기록의 문화자원적 활용과 기록적 가치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대학원].
- 박성희. (2002). 여성학 연구를 위한 생애사 연구법. **여성연구논총**, 17, 243-264.
<http://www.riss.kr/link?id=A76523166>
- 박용순, 배극수, 강창교, 권영길, 길옥연, 박준섭, 서인균, 이광석, 이영주, 이영희, 장우심, 전대성, 정현대, 조영순. (2012). **사회복지조사론**. Pacific Books.
- 박정현. (2018). **영유아자녀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박지현. (2009).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진옥. (2014). **여성역사인물 인지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지역 사회 정체성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장계향과 신사임당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박혜란, 전귀연. (2012).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현황과 과제. **한국생활과학회지**, 21(6), 1059-1081. DOI : 10.5934/KJHE.2012.21.6.1059
- 박혜란. (2014). **한국 중년기 가족 레질리언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박희택. (2015). 기획논문:여성선비의 덕성과 맥락. **퇴계학과 유교문화**, 56, 83-126.
UCI : G704-001229.2015..56.002

- 백두현. (2001). 『음식디미방』 [규곤시의방]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연구. **嶺南學**, 1, 249-280. UCI I410-ECN-0102-2009-910-000337978
- 백두현. (2006). **음식디미방 주해**. 글누림.
- 백지은, 원종숙, 김성길. (2019). 결혼이주 다문화가정의 가족레질리언스 형성요인에 관한 질적 탐구. **Andragogy Today**, 22(2), 1-26.
DOI <http://dx.doi.org/10.22955/ace.22.2.201905.1>
- 백태한. (2001). **敬堂 張興孝 研究 : '敬恩想'과 '詩世界'를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 변영인. (2006). 현대가정의 역기능성 문제와 그 회복. **지역사회**, 54, 30-35.
<http://www.riss.kr/link?id=A76461202>
- 봉화군 봉화군지편찬위원회. (1988). 안동권씨북야공파세보, **봉화군지**(p.817). 경상북도. <http://www.riss.kr/link?id=M1097807>
- 서선희. (2003). 한국사회에서 '가족중심주의'의 의미와 그 변화. **가정과삶의질연구**, 21(4), 93-101. UCI : G704-000320.2003.21.4.009
- 서호찬. (2011). 장수노인의 섭생에 관한 연구. **뇌교육연구**, S, 65-91.
UCI I410-ECN-0102-2015-500-000155648
- 설흔. (2020). 장계향과 학발여인. **월간 샘터**, 610, 42-43.
<http://www.riss.kr/link?id=S4800>
- 손숙미, 이윤나. (1999). 부천시 노인들의 영양상태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관한 연구 I. 체격지수 및 생화학적 영양상태.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28(6), 1391-1397. <http://www.kfn.or.kr>
- 손승영. (2006). 한국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과시-지속과 변화-. **담론201**, 9(2), 245-274. UCI : G704-001340.2006.9.2.006
- 송가영. (2023). **무형문화재 춤 보유자 2세대 고선아의 내러티브에 관한 생애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 송영달, 손지아, 박순미. (2010).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분석. **한국노년학**, 30(2), 643-660.
UCI : G704-000573.2010.30.2.003
- 신경진. (2013). **장계향의 생애와 한시세계**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심유화. (2015). **직업군인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변인 탐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 심유화, 정미경. (2015). 직업군인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한국군사회복지학**, 8(2), 61-95. UCI : G704-SER000003069.2015.8.2.002

- 심재필. (2022). **생태체계 요인이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 심지윤. (2021).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선택적 재현과 관광자원화**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 심진희. (2015). **17세기 張桂香의 生涯에 나타난 價値觀의 現代的 照明**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안순옥. (2008). **가족탄력성이 재혼가족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안연선, 전해정. (2010). 알코올 중독자 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3), 155-174.
UCI : G704-001334.2010.15.3.008
- 양외금. (2022). **중년 후기성인의 생태체계 관점에 따른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 인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오승아. (2002). 장애아동 가족의 수입, 내구력, 누적 스트레스, 의사소통, 가족적응에 대한 구조모델검증.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9), 175-189.
UCI : G704-000012.2002.40.9.012
- 옥선화, 이미숙, 이주리, 권희경, 남영주. (2006).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레질리언스 (Resilience)척도개발 연구: 척도의 타당화 검증을 중심으로. **Human Ecology Research**, 44(1), 59-74. UCI : G704-000012.2006.44.1.007
- 우인수. (2012). 17세기초 경당 장흥효 가문의 제사 관행. **국학연구**, 21, 445-473.
DOI : 10.36093/ks.2012..21.013
- 유순희, 정민자. (2013).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질적분석. **Human Ecology Research(HER)**, 51(6), 603-612.
DOI : 10.6115/fer.2013.51.6.603
- 유용식. (2007). 치매노인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8, 31-50. DOI : 10.21194/kjgsw..38.200712.31
- 윤경원. (2018). **위인 마리 퀴리를 활용한 "가족 레질리언스 향상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 윤서연. (2019). **한국 傳統醱酵食品의 書目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 윤수희. (2004). **가족 탄력성이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윤정미. (2012). **張桂香의 書藝世界**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윤정미. (2015). 張桂香의 『음식디미방』 書體美 研究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윤종희, 김리진, 하수민. (2006). 장애아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탐색. **가정과삶의질연구**, 24(2), 149-163.
UCI : G704-000320.2006.24.2.012
- 이동성. (2013). 생애사 연구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방법에 대한 탐구. **초등교육연구**, 26(2), 71-96. UCI : G704-000649.2013.26.2.006
- 이동성. (2017). **생애사 연구**. 아카데미 프레스.
- 이미경. (2018).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가야대학교 대학원].
- 이민아. (2006). **가족탄력성이 정신분열병 환자 가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이배용. (1995). 유교적 전통과 변형속의 가족윤리와 여성의 지위. **여성학논집**, 12, 11-38. <http://www.riss.kr/link?id=A2007876>
- 이상중. (2018). **가정폭력 피해자의 레질리언스 연구 :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분투 속 전환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이선애. (2004). **만성질환아동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이순구. (1994). **朝鮮初期 宗法의 수용과 女性地位의 변화** [박사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이순형. (1993). 조선시대 가부장제의 유학적 재해석. **韓國學報**, 19(2), 2092-2119.
UCI I410-ECN-0102-2008-910-000439560
- 이은희. (2000).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맞벌이 남녀의 대처전략과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5, 288-314. <http://www.kasw.org>
- 이은희. (2009).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결혼이민자 여성의 적응 연구: 탄력모델을 적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14(1), 73-94. UCI : G704-001932.2009.14.1.007
- 이은희, 옥경희. (2012). 결혼이민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비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2), 197-215. UCI : G704-001334.2012.17.2.011
- 이재복, 김희수. (2023). 노년기에 진로전환한 3인의 생애사 연구. **진로교육연구**, 36(2), 77-101. <http://www.careeredu.net>
- 이정란. (2012).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이정숙. (2016). 부모양육태도 차이가 청소년의 자신감과 불안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6), 319-337.
UCI : G704-001586.2016.16.6.001
- 이춘양, 김영순. (2020). 가정해체를 경험한 이주여성의 자녀 언어학습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열린교육연구**, 28(1), 19-46.
<http://www.riss.kr/link?id=A106587505>
- 이현지. (2004). 한국 가족주의의 변화과정과 미래방향 ; 유교적 가족관계관, 현대 가족위기의 대안인가. **유교사상문화연구**, 20, 97-119.
UCI I410-ECN-0102-2009-150-003011131
- 이효지. (1984). 要錄의 調理學的 考察. **韓國 生活 科學 研究**, 2, 73-83.
<http://www.riss.kr/link?id=A3104066>
- 임계성. (2021). **조선후기 여성인물전과 여성문집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임유미. (2007). **이혼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임현규. (2011). 유교의 인간이상과 보편적 가족주의. **東洋古典研究**, 45, 337-361.
UCI : G704-001739.2011..45.007
- 장선희. (2020). **장계향의 삶과 철학에 나타난 자아실현 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장윤수. (2006). 敬堂 張興孝와 17세기 경북 북부지역 성리학에 관한 연구. **철학연구**, 99, 313-365. UCI : G704-000640.2006.99..014
- 장윤수. (2008). 敬堂日記를 통해서 본 張興孝 學團의 地形圖와 性理學的 思惟. **哲學研究**, 107, 329-371. UCI : G704-000640.2008.107..007
- 장윤수. (2015). 여중군자 장계향과 운악 이함의 사회적 실천. **퇴계학과 유교문화**, 56, 279-312. UCI : G704-001229.2015..56.009
- 장현희. (2019). **음란물 매체에 노출된 고등학교 청소년의 성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 전수연. (2022). **예술가-교사(teaching artist)의 정체성 구축 과정에 관한 생애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동주. (2013). **장계향 조선의 큰어머니**. 한길사.
- 정민자, 윤선아. (2014). 다문화가정의 모의 특성과 가정환경변인이 유아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4, 259-282.
<http://www.kce.or.kr/>

- 정민자. (2016).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십대 손자녀가 지각한 역경과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질적 분석. **복지상담교육연구**, 5(1), 21-41.
UCI : G704-SER000004204.2016.5.1.010
- 정민자, 윤경원. (201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인의 최근 동향 분석.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6(11), 1311-1336.
DOI : 10.22251/jlcci.2016.16.11.1311
- 정수경. (2010). 가족 레질리언스: 역경을 이기는 힘. **사회과학논총**, 26(1), 1-15.
UCI I410-ECN-0102-2012-300-001756736
- 정유경. (2023). 부모의 구조제공이 중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업성취, 학교생활 만족도, 청소년 활동, 동아리 활동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정치영. (2007). 이순신 장군의 지도자적 역량과 임진왜란 전쟁수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정형지. (2003). 조선시대 기근과 정부의 대책. **梨花史學研究**, 30, 231-257.
UCI I410-ECN-0102-2009-910-002356731
- 정혜경, 윤경수, 김미혜. (2015).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에 나타난 조리법 비교.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30(1), 41-53.
DOI : 10.7318/KJFC/2015.30.1.041
- 조신호. (2015). 이순신 리더십의 성격과 교육적 가치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조영선. (2005).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부적응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모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조추용. (2013). 노인의 우울과 사회적 지지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생태체계적 관점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8, 1-20.
UCI : G704-SER000003121.2013..8.001
- 조희금, 김경신, 정민자, 송혜림, 이승미, 성미애, 이현아. (2013). **건강가정론 3판**. 신정.
- 주승택. (1997). 퇴계학자료총서해제(제2차분): 학친집. **退溪學**, 9, 349-374.
UCI I410-ECN-0102-2009-150-008376575
- 천정웅. (2019). **질적연구방법 : 총론**. 양서원.
- 최영성. (2018). 『홍범연의洪範衍義』를 통해 본 존재存齋·갈암葛庵의 학문. **국학연구**, 35, 9-41. DOI : 10.36093/ks.2018..35.001
- 최은주. (2019). '장계향' 연구 및 활용 성과와 지역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 재탐색. **충청학과 충청문화**, 27(1), 241-267.

<http://www.riss.kr/link?id=A108058076>

- 최재목. (2014). 聖人을 꿈꾼 조선시대 여성철학자 張桂香. **양명학**, 37, 143-175.
DOI : 10.17088/tksyms.2014..37.005
- 최홍준. (2021). **유가족의 복합비에와 외상후 성장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 한경혜. (2005). 생애사 연구를 통해 본 남성의 삶.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30. <http://www.riss.kr/link?id=A107693104>
- 한복희. (2019). **안중근 생애에 나타난 역경과 가족 레질리언스 및 가족 생애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 한선영. (2015). **회복탄력성, 일-삶 균형과 직무만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학중. (2022). 『음식디미방』의 ‘디미’에 대하여. **영남학**, 81, 395-429.
UCI I410-ECN-0102-2023-900-000677871
- 한희숙. (2003). 조선시대 여성사 연구의 최신 동향 (1991년 이후~). **人文科學研究**, 8, 21-47. <http://www.riss.kr/link?id=A40024793>
- 허철희. (1996). **장계향학문헌자료下**.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홍순희. (2016). **장계향 삼중지도 3.0**. 빛을여는책방:계명대학교 출판부.
- 홍정남. (2007). **알코올중독자가 지각하는 가족탄력성이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 홍필남. (2003). **安東 張氏의 藝術世界** [석사학위논문, 경주대학교 대학원].
- 황동섭. (2013).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스트레스와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위덕대학교 대학원].
- Benzies, K., & Mychasiuk, R. (2009). Fostering family resiliency: A review of the key protective factors. *Child & Family Social Work*, 14, 103-114.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e, A. L. & Knowles, J. G.(2001). *Lives in context: The art of life history research*. NY: AltaMira Press.
- Coyle, J. P. (2005). *An exploratory study of the nature of family resilience*.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 Dulmen, R. V. (2005). **개인의 발견: 어떻게 개인을 찾아가는가**. (최윤영 역). 현실문화연구.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 Dhunpath, R.(2000). Life history methodology: 'Narradigm' regained.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13(5), 543-551.
- Garmezy, N. (1993).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Studying livethrough time: Personality an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377-398.
- Greene, R. R., Galambos, C., Lee, Y. (2004). Resilience Theory Theoretical and Professional Conceptualization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Volume 8*(4), 75-91.
- Hawley, D, R. (2000). Clinical implications of family resilienc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2), 101-116.
- Herrmn, H., Stewart, D. E., Grandos, D. N., Berger, E. L., Jackson, B., Yuen, T. (2011). What is Resilience?.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6(5). 266-272.
- Hermann Klevber. (2006). **삶의 목적인 행복**. (박경숙 역). 카톨릭출판사.
- Kemp, A. (1998). Abuse in the family : An introduction. NY : Book/Cole.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McCubbin, H. L., & McCubbin, M. A. (1988). Typologies of resilient families: Emerging roles of social class and ethnicity. *Family Relations*, 37, 247-254.
- McCubbin, H. I., McCubbin, M. A. & Tompson, A. I.(1933). *Resiliency in families : the role of family schema and appraisal in family adaption to crises*, 153-177. In T. H. Brubaker(ed), Family Relations: Challenge for the futur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Silliman, B. (1994). Rational for resilience families concept paper. National Network for Family resiliency.
- Sixbey, M. T. (2005). Development of the family resilience assessment scale to identify family resilience. a dissertation presented for the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Florida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University of Florida.
- Skinner, E. A., Johnson, S., & Snyder, T.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Thompson, P. R.(1988).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Valentine, L., & Feinauer, L. L. (1993). Reality and my thin family life:Changes across generation. *Journal of Psychotherapy and the family 4*.

Vansteenkiste, M., Sierens, E., Goossens, L., Soenens, B., Dochy, F., Mouratidis, A., Aelterman, N., Haerens, L., & Beyers, W.(2012). Identifying configurations of perceived teacher autonomy support and structure: Associations with self-regulated learning, motivation and problem behavior. *Learning and Instruction, 22*(6), 431-439.

Walsh, F. (1996). The concept of family resilience crisis and challenge. *Family process, 35*(3), 261-281.

Walsh, F. (2002). 가족과 레질리언스. (양옥경, 김미옥, 최명민 공역). 나남. (Original work published 1998)

경상북도. (2020). 지정문화재 현황(문화재자료 제658호).

https://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culture/page.do?mnu_uid=5111&cmd=2&id=002541

다음. (2023). 레질리언스. 다음 사전. 2023. 7. 26. 검색,

<https://dic.daum.net/search.do?q=%EB%A0%88%EC%A7%88%EB%A6%AC%EC%96%B8%EC%8A%A4>

문화재청. (2021).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자료」, 228-260.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1019&mn=NS_03_03_04

장계향선양회. http://www.janggyehyang.or.kr/bbs/content.php?co_id=jlife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https://www.yyg.go.kr/jghcenter/jgh>

통계청. (2023). 인구상황판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Detail.do>

황상익. (2013. 05. 21). 수명이야기(1). 다산포럼.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

부 록

『음식디미방』

1. 『음식디미방』의 저술 과정
2. 『음식디미방』의 내용
3. 『음식디미방』 조리법의 특징
4. 『음식디미방』의 음식 분류표

1. 『음식디미방』의 저술 과정

『음식디미방』은 장계향이 조선 후기 1670년경에 저술한,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조리서이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고 장계향의 나이 70세~73세 무렵에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식디미방』은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조리를 직접 담당했던 주부가 자신이 개발하였거나 전해 받은 조리방법을 자손들에게 전수할 목적에서 쓴 조리서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식생활과 조리방법, 식재료 등의 음식문화를 담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또한,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요리서이자, 아시아에서 여성이 쓴 가장 오래된 도서라는 측면에서 그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음식에 관한 책은 있었지만 모두 한문으로 쓰인 것이었으며, 대략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에 그친 반면에 이 책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거나 장계향이 스스로 개발한 음식 등 양반가에서 먹는 각종 특별한 음식들의 조리법을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다(김영순, 2015).

경상북도 영양 지방의 유서 깊은 사대부 가문의 여성이었던 장계향이 집안의 자손들을 위해 남긴 기록서로 1600년대 조선조 중엽과 말엽에 경상도 지방의 가문에서 실제 만들던 음식의 조리법과 저장 발효식품, 식품 보관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에는 자신의 종가뿐만 아니라 외가의 요리도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음식디미방』과 비슷한 시기에 남성들에 의해 엮어진 조선시대의 조리서로는 『요록(要錄)』과 『치생요람(治生要覽)』 등이 있다. 『요록』은 숙종 초기인 1680년경에 한자로 쓰여진 작자 미상의 책이고(이효지, 1984), 『치생요람』(1691)은 17세기 말의 식품과 농업에 관한 필사본(윤서연, 2019)으로 위 두 서적은 중국의 여러 조리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많은데 반해 『음식디미방』은 예부터 전해 내려오거나, 직접 조리를 담당했던 가정주부가 스스로 만들었던 우리 전통음식의 조리방법을 그대로 기록한 조리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요록』은 조리항목을 분류하지 않고 각종 조리법을 나열해 놓았으나 『음식디미방』은 14개의 항목을 재료별로 나누고 각 항목의 조리법을 한 조목씩 설명함으로써 본격적인 조리서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김업식, 2017). 그리고 한문 조리서의 식품과 조리 용어를 한글로 바꾸고, 한자로 표현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용어들을 여성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쓰이는 말로 기록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음식의 조리를 일반화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음식디미방』이 신창 맹씨 가문 호군공파의 자손 맹세형(1588~1656)의 부인 해주 최씨(1591~1660)가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기록한 ‘최씨 음식법’보다 후기

에 저술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해주 최씨의 생물연도가 1660년이므로 장계향의 『음식디미방』의 집필년도로 예상되는 1670년보다 앞선다는 점에서 ‘최씨 음식법’이 최초의 한글 조리서라고 보는 시각이다.

‘최씨 음식법’은 해주 최씨(1591~1660)로부터 맹흠구의 아내에 이르기까지 7대에 걸친 신창 맹씨 가문 여인들의 국문 수적 34편을 모아 놓은 『자손보전』이라는 서첩 속에 수록되어 있는데(박채린, 이진영, 2015), 『자손보전』은 해주 최씨의 조리법을 비롯하여 노비문서와 한글로 쓴 편지 20여 건, 행장, 비망록 등 다양한 내용의 한글 수적 34편을 담고 있는 문집이다. 그러므로 『자손보전』을 온전한 조리서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저자와 출처 그리고 연대가 명확하고 책에 수록된 조리법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음식디미방』이 체계적으로 저술된 최초의 한글 조리서로 인정받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음식디미방』은 김사엽이 1960년에 경북대학교 논문집에 수록하여 학계에 처음 알려졌다. 1981년에는 조선왕조의 궁중요리 전문가인 황혜성이 규곤시의방 해제를 원본 영인과 더불어 단행본으로 펴냄으로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림 15] 『음식디미방』의 표지와 내용



<표지>

<권두>

이후 관련 학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1999년 11월에 저자인 장계향을 ‘이 달의 문화인물’로 선정하여 높은 업적을 기리는 학술발표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를 전개하였고 『음식디미방』은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책의 표지에는 한문으로 『규곤시의방』(閨壺是議方)이라 되어있고 책의 내용 첫머리에는 한글로 『음식디미방』이라 쓰여 있다. 앞과 뒤의 표지를 포함하여 전

체 30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장계향의 친필본으로 알려져 있다.

표지와 본문의 명칭이 다른데 대해 김사엽(1960)은 본문에 쓰여진 『음식디미방』은 장계향이 쓴 것이고 표지의 『규곤시의방』은 남편 이시명이 외형상의 격식을 갖추기 위해 새로 지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문화재청, 2021)¹¹⁾.

『규곤시의방(閨壺是議方)』의 ‘閨壺’은 여인들이 거처하는 안방과 안뜰을 의미하고, ‘是議方’은 ‘올바르게 풀이한 방문’을 의미하므로 『규곤시의방』은 ‘여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올바르게 풀이한 방문(백두현, 2001)’으로 해석된다. 『음식디미방』의 명칭에 대하여는 ‘디미’의 한자 표기가 ‘地味’(김사엽), ‘知味’(황혜성), ‘至味’, ‘旨美’(한학중) 외에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바이다.

조선시대 중기의 음식 문화는 유교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충효를 중시하였던 유교의 사상에 따라 위로는 궁궐에서 아래로는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웃어른들에게 지극한 정성을 담아 만든 음식을 올리는 것을 예의로 여겼다. 또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올리는 것과 손님을 극진히 접대하는 것은 중요한 의식이었다(윤정미, 2015). ‘경’과 ‘효’를 중시하는 이러한 사상의 토대 위에서 음식 문화의 다양한 발달이 이루어졌다.

장계향은 이황의 학맥을 이어받은 가학의 영향으로 위기지학의 근본을 경으로 삼았으며, 생활 속에서 경을 실천할 수 있는 근본이 여성들의 유일한 공간인 부엌 안에 있다고 여겼고 알고 이를 실행하였다. 더구나 장계향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장홍효로부터 학문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그 자신도 과학적인 사고가 가능한 인물이었다.

당시의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학문과 사상의 기초가 확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장계향이 직접 조리서를 집필했다는 것은 사물에 대한 관찰력과 분석 그리고 경험 등 과학적 사고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장계향의 어머니 안동 권씨는 평소에 몸이 허약하여 안색이 늘 창백하고 기력이 없었다고 한다. 장계향이 17세 되던 해에 안동 권씨는 장질부사에 걸려 1년 가까이 병석에 눕게 되었다. 장계향은 이전부터 어머니를 도와 부엌살림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인을 거느리고 매일 아버지 장홍효를 찾아오는 손님들과 제자들을 시중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안동 권씨로부터 부엌살림에 관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물려받은 것이다.

이시명과 혼인한 후에는 시아버지 이함이 의령 현감이었고 시가가 당시 영남 지역에서 큰 부자였기 때문에 제사나 손님 접대 등을 위해 품격있는 음식을 만드는 일이 잦았을 것이다. 그 예로 이 책에는 육류나 생선, 조개 등 일반 백성들은 구하

11) 문화재위원회,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자료」, p251.

기도 어려운 재료의 저장법과 요리에 대한 내용이 제법 담겨 있다.

『음식디미방』의 권두에는 유려한 필치의 한시가 쓰여 있다.

시집은 지 삼일만에 부엌에 들어 손을 씻고 국을 끓이지만
시어머니의 식성을 몰라서 어린 소녀를 보내어 먼저 맛보게 하네(백두현, 2006).

이 시는 중국 당나라의 시인 왕건(768~830)이 지은 ‘신가낭사(新嫁娘詞)’의 일부로 갖 시집은 새색시가 음식을 만드는 일에 있어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장계향은 이 시를 통해 딸과 며느리들에게, 음식을 만듦에 있어 사람을 섬기고 정성을 다하는 경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최재목,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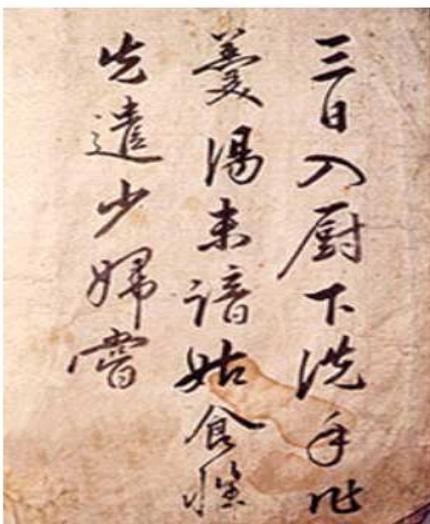
장계향은 『음식디미방』을 집필한 소감을 책의 말미에 직접 이렇게 적고 있다.

이 책을 이렇게 눈이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
자식들은 베껴가되, 이 책을 가져갈 생각일랑 절대로 내지 말며, 부디 상하지 않게
간수하여 빨리 떨어져 버리게 하지 말아라(백두현,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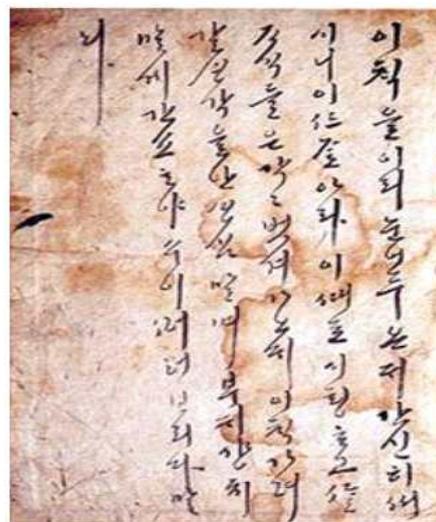
칠순의 고령에 불편한 몸으로 어렵게 쓴 책이 잘 보관되고 후대로 이어져 자손
대대로 가문의 조리법이 전수되기를 바라며 당부하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도 나타나 있듯 『음식디미방』은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던 당시 대

[그림 16] 음식디미방 권두 한시



[그림 17] 음식디미방 권말 필사기



부분의 자료와 비교하여 우리 말을 그대로 문장화하고 있다. 17세기 한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경상북도 방언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백두현, 2006).

장계향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슬하에서 상당한 학문적 지식을 쌓았고 타고난 명민함을 지녔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여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스스로 공부를 중단하였다. 그리고 여성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두었다. 당시 여성이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 일이었다.

매일 가족들을 위해 음식 만드는 일을 하면서 여성들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장계향은 유교사회인 조선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여성의 요건에 해당되는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체득한 지식’의 일부를 『음식디미방』으로 저술하였고(배영동, 2017) 그것은 남성들만의 영역이었던 학문의 울타리 밖에서 이루어낸 실용학문의 결과물이었다.

2. 『음식디미방』의 내용

『음식디미방』에는 총 146종의 조리법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크게 면병류와 어육류, 주류 및 초류의 범주로 분류하고 다시 소제목을 달아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전체 내용을 보면 면병류 18항목, 어육류 74항목, 주류 및 초류 54항목으로 총 14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는 현재 남아있는 것도 있고, 쓰이지 않는 재료도 있으며 내용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음식이 되어버린 것도 있다(윤정미, 2015).

이 중에서 특별히 ‘맛질방문’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는 장계향의 외가에서 전수받은 조리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음식디미방』의 내용상의 특징은 제철에 나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조리하여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선 재료로서의 효과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인 면병류가 제일 앞 순서에 있고 찬류가 그 다음에 있으며 주류는 끝부분에 편성되어 있다. 이는 실제 음식을 조리하는 여성의 입장이었던 장계향이 가족과 손님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식사 종류에 해당하는 면병류와 어육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밥과 죽에 관한 조리법이 없고 우리나라의 식생활에 필수 재료인 장을 담그는 법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밥과 죽, 장류는 우리나라의 일상식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계향이 『음식디미방』을 저술한 목적은 후손들에게 일상적인 상차림을 전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님을 접대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조리를 직접 담당하였었고 또 그 결과로 남성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했던 여성들이 쉽게 읽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로 저술되었던 『음식디미방』은 여성들을 위한 여성 문화의 소산이다(남권희 외, 2017).

『음식디미방』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분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식류

주식에 해당하는 밥과 죽은 수록되어 있지 않고 국수와 만두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다. 면병류에는 면과 만두, 떡, 조과류의 조리방법 18가지가 수록되어 있는데 국수, 만두, 빈대떡, 밤설기, 다식 등이 포함된다.

①면류

면류는 면, 세면, 착면, 녹두나화, 난면으로 세면에는 맛질방문, 착면에는 별법과 맛질방문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면의 재료는 메밀과 밀, 녹두가 사용되고 국물은 간장국, 참깨를 갈아 넣은 토장국, 꿩 국물, 오미자국 등을 사용하였다. 면과 세면, 난면은 반죽을 구멍 뚫린 바가지나 국수틀에 내린 압착면이다. 착면과 녹두나화는 반죽을 얇게 밀어서 칼로 썰어 만든 면이다.

②만두

만두 항목에는 만두법, 상화법, 수교애법, 어만두법, 석류탕 송어만두(맛질방문)가 수록되어 있다. 만두와 수교애, 어만두는 삶아서 먹는 만두이고 상화는 찢만두, 석류탕과 송어만두는 탕으로 끓여 먹는 만두의 종류이다.

(2) 찬물류

① 국

국의 종류에는 와각탕, 별탕, 족탕과 개장 고는 법, 썩탕과 순탕 등이 수록되어 있다. 와각탕은 조개를 씻어서 맹물에 삶아 국물과 함께 먹는다. 족탕은 우족을 고아서 차게 굳혀 채소를 넣어 즙을 끼얹어 먹는 냉국으로 먹는다. 개장 고는 법은 솥에 물을 적게 넣고 개고기를 무르게 익혀 끓여 먹는 방법이다.

② 찜과 선

찜은 붕어찜, 연계찜, 개장찜, 수증계(맛질방문), 가지찜, 외찜이 있고 선은 양숙편과 동아선이 수록되어 있다.

③ 구이/적, 전

닭 굽는 법(맛질방문)과 동아적이 있다. 닭을 굽기 전에 물을 여러 번 바른 후에 기름간장을 발라서 구워내면 꿩고기보다 더 맛이 좋다.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한 닭구이일 것으로 여겨진다. 대합 연근채나 옹장을 구워서도 먹을 수 있다.

④ 느르미

느르미란 지지거나 익힌 재료에 묽은 밀가루 반죽을 끼얹어 먹는 음식으로 노리미, 느름이라고도 한다. 느르미는 대구껍질 느름, 개장국 느르미, 개장꼬지 느르미,

가지 누르미 등 5가지와 해삼을 이용한 누르미도 있다. 소고기, 꿩고기, 개고기, 생선, 석화, 낙지, 대구 껍질, 동아 등이 재료로 이용되었으며, 18세기 이후에는 누름적의 형태로 바뀌어졌다.

⑤ 채와 무침

대구껍질채, 외화채, 동아돈채, 잡채, 연근채, 해삼초 무침 등이 있다. 그중에 잡채의 종류는 20여 가지가 되는데 채소와 고기를 볶아 위에 꿩고기즙을 끼얹었다. 꽃이나 과일을 이용하여 즙을 내어 음식에 붉은 물을 들여 색감을 내는 정성스럽고 예쁜 음식이다. 그러나 장계향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재료를 다 구할 수 없을 때는 있는 재료만 가지고 조리해도 된다는 융통성을 발휘하였다.

⑥ 회

우리나라에서는 싱싱한 어패류나 짐승의 내장을 날로 먹는 생회와 끓는 물에 살짝 익힌 숙회와 채소류를 살짝 데쳐 먹는 강회를 즐겨 먹었다. 회 항목으로 따로 기록한 것은 없지만 대합탕과 대합구이를 설명하면서 날 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초간장에 찍어서 먹어도 좋다고 덧붙이고 있다. 『음식디미방』에는 고추에 대한 기록이 없고 고추장 대신 초간장을 이용하여 회를 먹었다.

⑦ 편과 순대

별미와 양숙편, 개장이 수록되어 있다. 별미는 닭고기와 대구를 푹 고아서 양념하여 굳힌 것으로 목의 형태이다. 양숙편은 소의 양 부위를 삶아서 만든 편으로 생강과 후추, 달걀지단 등의 고물을 올려낸다. 개장은 순대의 종류로 개고기와 각종양념을 섞어 개의 창자에 채워넣고 시루에 담아 약한 불로 오랫동안 쪄낸다.

⑧ 숙육

천연 연화제를 사용하거나 약한 불에 오랫동안 무르게 고아서 고기를 연하게 조리하는 방법이다. 소고기와 누렁개 삶는 법, 질긴 고기 삶는 법(맛질방문), 야제육(멧돼지고기), 웅장숙육이 있다.

⑨ 젓갈과 식해

각종 생선젓 담는 법, 게젓, 약게젓, 청어 염해법(맛질방문), 방어젓, 참새젓 담는 법이 있는데 다양한 생선을 이용하여 젓갈을 담아 먹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

록지리지(1454)』에서 『신증 동국여지승람(1530)』에 이르기까지 소금은 중요한 생산물로 기록되어 있다(남권희, 2017). 생선을 소금에 절여 만드는 것같은 당시의 조선인들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조미료 역할을 하였다.

⑩ 볶음

가제육, 생치짬지히, 생치지히, 양숙, 양 볶는 법(맛질방문), 해삼볶음 등이 있다. 양숙과 양 볶는 법(맛질방문)은 소의 양을 이용한 요리로 양숙은 삶아서 볶는 요리이고 양 볶는 법(맛질방문)은 삶지 않고 조리하는 방법이다. 가제육은 명칭에 나타나듯 집에서 기른 돼지의 고기를 이용한 요리로 기름간장에 채워서 밀가루를 묻혀 볶는다.

생치지히와 생치짬지히는 외지히와 꿩고기를 함께 볶은 요리인데 외지히의 껍질을 벗기는지 그냥 쓰는지와 외지히의 짬맛을 빼는지 안 빼고 조리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⑪ 수란

달걀을 물에 넣어 반숙으로 익히는 조리법으로 난탕법과 계란탕법(맛질방문)이 있다. 난탕법은 수란을 담그는 물에 소금을 넣었고 계란탕법(맛질방문)은 새우젓이나 간장을 넣어서 감칠 맛이 나게 하였다.

⑫ 침채

산갓침채와 생치침채법이 있다. 산갓침채는 산갓을 따뜻한 물을 담은 항아리에 넣어 발효시킨 침채이고 생치침채는 삶은 꿩고기에 외지히를 썰어 넣어 나박김치처럼 담은 국물김치이다.

(3) 떡류

① 찌 떡

증편법, 석이편법, 밤설기법이 있다. 증편법은 멥쌀을 불려 빵은 가루에 술을 넣고 발효시켜 찌 부드러운 떡으로 쉽게 굳지 않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석이편법은 백미와 찹쌀을 섞어 만든 쌀가루에 석이버섯을 넣고 시루에 안쳐 찌는 떡인데 쪄쪄마다 으깬 잣가루를 곁물로 얹는다. 밤설기는 말린 밤을 가루로 내 찹쌀가루와 섞어 꿀물로 반죽하고 잣가루를 곁물로 하여 석이편과 같은 방식으로 쪄낸다.

② 친 떡

인절미를 구워 먹는 법으로 인절미 속에 엷을 꽃아 넣고 약한 불로 구워서 아침에 식사 대응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③ 잡과편법

삶은 떡이다. 되직하게 반죽한 찹쌀가루를 동그랗게 썰어 삶은 후 꿀을 바르고 꽃감, 삶은 밤, 대추, 잣을 으깨어 고물로 묻힌다.

④ 지진 떡

빈자법과 전화법, 섭산삼법이 있다. 빈자법은 녹두를 갈아 끓는 기름에 조금씩 떠 넣는다. 그 위에 꿀로 반죽한 팔로 소를 넣고 다시 녹두 간 것으로 덮어 굽는다. 전화법은 화전법으로 찹쌀가루와 메밀가루를 섞고 꽃잎을 넣어 기름에 바바삭하게 지진다. 한 김 식으면 꿀을 얹는다.

섭산삼법은 껍질 벗긴 더덕을 두드려 찹쌀가루를 묻히고 기름에 지진 후 꿀에 재운다.

(4) 과정류

① 유과류

박산법과 빙사과(맛질방문), 강정법(맛질방문)이 있다. 박산법은 찹쌀가루를 청주로 반죽하여 찢 다음 대나무로 밀어 차곡차곡 쌓아 팔알만하게 썰어서 말린다. 먹을 때 꿀을 발라 썰어서 상에 낸다. 빙사과(맛질방문)는 박산법과 유사하나 찹쌀가루를 만드는 법과 반죽에 꿀을 넣어 숙성시키는 과정이 첨가된다.

강정법(맛질방문)은 반죽 발효→바탕 만들고 말리기→바탕 지지기→고물 묻히기의 조리단계를 거친다. 『음식디미방』에 수록된 조리법 중에 사용빈도가 높고 중요한 과정류라서 만드는 법이 까다롭다.

② 유밀과류

약과법(맛질방문)과 연약과법, 중박계(맛질방문)가 있다. 약과법(맛질방문)은 밀가루 1말, 꿀 2되, 기름 5홵, 술 3홵, 물 3홵을 반죽하여 즈청 1되와 물을 타서 묻힌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외 조리방법은 기록이 없다. 연약과법은 볶은 밀가루 1말, 청밀 1되 5홵, 참기름 5홵, 청주 3홵으로 반죽하여 기름에 지지 즈청을 묻힌다. 중

배끼(맛질방문)는 가루 1말, 꿀 1되, 기름 1홉, 뜨거운 물 7홉을 합하여 미지근하게 만들라는 기록만 담겨 있다.

③ 과편과 다식류

과편류에는 앵두편법이 있다. 앵두의 씨를 바르고 살짝 데쳐서 꿀을 넣고 졸여 굳으면 썰어서 쓴다. 다식법에는 잔말다식법이 있다. 볶은 밀가루에 꿀과 참기름을 섞고 기와 속에 모래를 깔아 그 위에 종이를 얹은 후에 다식을 올리고 약한 불로 은근히 구워서 익힌다.

(5) 음청류

세면과 착면, 녹두나화는 음료에 속하는데 면병류에 올라 있다. 세면, 착면, 녹두나화, 별착면, 차면은 모두 토장국과 오미자국에 말아서 먹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 중에 세면, 착면, 녹두나화는 꿀을 넣은 오미자차에 말아 먹는다고 하였으니 음료에 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남권희 외, 2017).

(6) 양념류

양념류에는 초법, 초 담은 법과 매자초가 있다. 식초용 누룩은 폭 무를 정도로 찢 밀을 닥나무잎으로 덮어서 15일 동안 띄워서 말린다. 7월 초하룻날에 누룩과 밥, 밀, 물을 섞어 생삼 스물한 가닥을 묶어 싸매고 다복쑥으로 덮어두었다가 일주일 후에 휘저어서 숙성시킨다. 매자초는 씨를 뺀 오매 1되를 독한 식초 5되에 담갔다가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 두고 필요할 때 물에 타서 식초로 사용한다.

(7) 주국방문(술과 누룩 만드는 방문)

술을 빚는 방법과 술 제조의 발효제인 누룩을 띄우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가정마다 가양주를 담궈서 이를 가지고 제사상에 올리는 전통이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술 담그기는 집안 행사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행사의 한 가지였다.

『음식디미방』에 수록된 표제어 146항 중에 술 빚는 법이 51항을 차지하는데 이는 전체 조리법 항의 34.9%에 해당한다. 누룩 빚는 법이 2종이고 술의 종류는

38종에 달한다. 이화주법과 삼해주법은 각각 4가지씩의 주조법이 실려 있고 삼오주, 절주, 벽향주, 칠일주, 소주는 각각 2가지씩의 주조법이 실린 것으로 보아 이들 일곱 가지 술이 당시 가장 애용 되던 술 종류임을 짐작할 수 있다.

같은 술이라 하더라도 완성된 술의 양과 재료의 처리 방법에 따라 다양한 주조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보면 이화주법은 이화주 한 말 빚기와 이화주 닷 말 빚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장계향이 사대부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집안 어른들과 접빈객들에게 정성껏 빚은 맛있는 술을 대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광산김씨 예안과 종가의 조리서인 『수운잡방』은 김유(1481~1552)가 1540년경 집필하였다. 총 121항의 내용 가운데 술 빚는 법이 60항을 차지하고 있다. 의성 김씨 내앞 종가의 조리서인 『온주법(蘊酒法)』은 책명이 ‘술법을 모아놓은 책’으로 풀이된다. 이 책은 김시온(1598~1669)의 사적을 엮은 『송정처사 표은 김송사적략(崇禎處事瓢隱金公事蹟略)』에 실려 있는데 『온주법(蘊酒法)』의 지은이와 간행 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대략 1700년대로 보고 있다. 총 130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룩 빚는 법이 3항이고 술 빚는 법이 57항으로 역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례에 있어서와 빈객의 대접에서 술을 중요하게 여겼던 당시의 음식문화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3. 조리법의 특징

『음식디미방』의 조리법을 보면 조리에는 필요한 다양한 전처리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평생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음식 재료의 산출량과 조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식의 맛과 색의 변화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다. 양념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과, 조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이용하는 등 보고 따라하기 쉽게 기록하였다.

① 재료의 모양과 크기, 상태, 온도, 농도 등을 조리도구나 음식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② 식품을 장기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식품을 건조하는 법, 염장하는 법, 저장하는 법 등이 기록되어 있다.

③ 음식을 조리할 때 재료의 분량을 잴 수 있도록 부피측정용 계량도구와 사발, 주발, 병, 대야, 동이, 수저, 국자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무게를 재는 데는 돈, 근, 냥을 썼고, 수량을 재는 데는 장, 줌, 마리, 개 등의 단위를 사용했다.

④ 장계항은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면도 고려하여 음식에 맛과 멋을 더하였다. 그릇에 음식을 담을 때도 큰 그릇에 돌려서 담고 위에 지단채를 뿌린다거나 각 재료의 색상이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음식에 색을 입히기 위해 맨드라미나 머루를 이용해서 붉은 물을 들이고 갖가지 고명을 올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응용하기도 하였다.

음식을 내가기 전에 고명을 올리면 아직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음식을 대접한다는 의미로 음식을 받는 사람에게 대한 존중을 표하는 의미도 된다(남권희 외, 2017)

4. 『음식디미방』의 음식 분류

<표 8> 『음식디미방』의 음식 분류표(남권희 외, 2017)

구분	조리법	음식명
주식류	국수	면, 토장법, 녹두나화, 세면법, 세면법(맛질), 난면법(맛질), 착면법, 별착면법(맛질), 차면법(맛질)
	만두류	만두법(소만두), 상화법, 수교애법, 어만두법, 석류탕(맛질), 송어만두(맛질)
찬물류	국(탕)	대합(대합탕), 와각탕(모시조개탕, 가막조개탕), 별탕, 족탕, 개장 고는법, 썩탕, 순탕(천어순채국, 붕어순채국), 해삼탕, 전복탕, 연어알국
	찜	붕어찜, 해삼찜, 개장찜, 수증계(맛질), 가지찜, 외찜, 연계찜, 양숙편
	선	동아선
	구이/적	닭 굽는법(맛질), 동아적, 대합구이, 연근채적, 웅장구이
	전	어전법
	누르미	대구껍질 누름, 개장국 누르미, 개장꼬지 누르미, 동아 누르미, 가지 누르미, 해삼 누르미
	채	연근채(연근초무침), 동아돈채, 잡채, 대구껍질채, 외화채
	무침	해삼초무침
	회	대합회
	편/순대	별미(닭·대구편), 양숙편, 개장(개순대)
	숙육	쇠고기 삶는 법, 질긴 고기 삶는 법(맛질), 누렁개 삶는 법, 웅장숙육, 야제육
	젓갈/식해	게젓 담는법, 약게젓, 청어 염해법(맛질), 방어젓, 참새젓, 각종 생선젓
	볶음	양숙, 가제육, 양 볶는법(맛질), 생치짬지히, 생치지히, 해삼볶음
	수란	난탕법, 계란탕법(맛질)
	침채	산갓침채, 생치침채법
	기타	국에 타는 것, 해삼 다루는 법
떡류	찜떡	증편법, 석이편법, 밤설기법
	찐떡	인절미 굽는 법(맛질)
	삶은 떡	잡과편법
	지진 떡	섭산삼법, 전화법, 빈자법
과정류	유밀과류	연약과법, 약과법(맛질), 중배끼(맛질), 방미자, 행인과
	유과류	박산법, 방사과((맛질), 강정법(맛질)

	과편류	앵두편법
	다식류	다식법
	정과류	순채정과
음청류	화채	세면법, 토장법, 녹두나화, 착면법, 별착면법(맛질), 차면법(맛질)
양념류	식초	초 담는 법, 초법, 매자초
가공 및 저장법	건조법	고기 말리는법, 고기 말려 오래 두는 법, 해삼 말리는 법, 전복 말리는 법, 연어알(건조법, 염장법), 참새 말리는 법, 건강법
	간수하는 법	복숭아 간수법, 수박 간수하는 법, 동아 간수하는 법, 가지 간수하는 법, 생포 간수법
	담는 법	동아 담는 법, 고사리 담는 법, 마늘 담그는 법
	기타	비시나물 쓰는 법
주류	술과 누룩	주국방문(술과 누룩 만드는 방문), 순향주법, 삼해주 스무 말 빚기, 삼해주 열 말 빚기, 삼해주(2), 삼오주(2), 이화주 누룩법, 이화주법 한 말 빚기, 이화주법 닷 말 빚기, 이화주법(2), 점감청주, 감향주, 송화주, 죽엽주, 유화주, 향은주, 하절삼일주, 사시주, 소곡주, 일일주, 백화주, 동양주, 절주(2), 벽향주(2), 남성주, 녹파주, 칠일주(2), 두강주, 별주, 행화춘주, 하절주, 시급주, 과하주, 점주, 점감주, 하향주, 부의주, 약산춘, 황금주, 오가피주, 자주법, 소주(2), 밀소주, 찹쌀소주

ABSTRACT

A Study on the Ecological System and Family Resilience through Jang Gye-hyang's life, the author of 『Eumsikdimibang』

Kim, Jihyeon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Ulsan University

Major Advisor: Jung, Min-Ja, Prof.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necessary for the family to restore its health and original functions through the ecological system and family resilience revealed in the life of Jang Gye-hyang who lived in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and was the author of 『Eumsikdimibang』, the first Korean cookbook written by a woman.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Mrs. Chung Andong Jangssi Silgi』, written by Galam Lee Hyun-il, and 『Gyeongdang Diary』, a study book of Jang Heung-hyo, her father, as primary data as well as 『Eumsikdimibang』 and research papers and books on key figures related to Jang Gye-hyang. She was called a female gunja in the 17th century and raised her seven sons as sages despite the adversity of the times and the loss of her children. She also showed unstinting filial piety to her parents-in-law and her parents and revitalized the dwindling noble family into a prestigious family. Furthermore, she practiced compassionate thought by caring for people dying in wars and famines without discrimination. Throughout her life, she practiced the Kyoung Idea of Lee Hwang, and her spirit was passed on to her children. Consequently, she played a pivotal role for the Yeonghae branch of the Jeryeong Lee clan in inheriting the direct lineage of Taegae School in the Yeongnam region. The ‘noblesse oblige’ of Jang Gye-hyang and the Jeryeong Lee clan has been passed down to their descendants for over 400 year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her life

and family showed that although Jang Gye-hyang was born as a woman in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when the social status of women was declining, she could learn from her father, a Neo-Confucian scholar, and grew up watching and learning from him as he practiced the life of Jigyeong. Lee Ham, her father-in-law, spent his life engaged in social practices of edification and relief, such as opening his storeroom to feed the hungry. Jang Gye-hyang took the teachings of her family and her husband's family to heart and strived for practical and social action.

Second, the analysis of the ecological system revealed that Jang Gye-hyang could be recognized as a female gunja owing to the manifestation of her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 environmental influence where Jang Heung-hyo(her father), Lee Ham(her father-in-law), and Lee Si-myeong(her husband) all pursued a life of Neo-Confucian Jigyeong. Moreover, the devastating famine resulting from several wars and harsh climate disasters motivated Jang Gye-hyang to actively engage in almsgiving activities to help the vulnerable in society. This setting provided the foundation for Jang Gye-hyang to exhibit compassion through her roles as a child, wife, and mother, and to lead by example in the education of her children.

Third, the analysis of family resilience indicated that her family and her husband's family had high resilience. Among the belief systems, ideology is a common aspect in both her family and her husband's family. Her father, father-in-law, husband, and Jang Gye-hyang all placed more value on self-discipline, charity work, and nurturing future generations than on personal distinction. In the process of formation, the flexibility of Jang Heung-hyo, her father, led to the marriage of Jang Gye-hyang and Lee Si-myeong, which resulted in the descent of Taegae School into the Jeryeong Lee clan. The flexibility of her father-in-law and husband allowed Jang Gye-hyang to continue her filial piety to her biological parents even after she married. In the communication process, Jang Heung-hyo's clear and open expression of emotions was passed on to Jang Gye-hyang's parenting. It was found that Jang Gye-hyang and Lee Si-myeong had a horizontal relationship and solved problems collaboratively through conversation.

『Eumsikdimibang』 is a cookbook written by Jang Gye-hyang for her descendants. It is an excellent historical record that presents a glimpse into the food culture of the time, including dietary habits, cooking methods, and ingredients. It has great historical value as it is the first cookbook written in Korean and the oldest cookbook written by a woman in Asia.

『Eumsikdimibang』 is the practical result that was accomplished outside the confines of academia, which was the domain of men in the Confucian society of Joseon, through the method of cooking, which was the domain of women.

The holistic life of Jang Gye-hyang manifests her as a good wife, wise mother, poet, painter, calligrapher, educator, thinker, scientist, and social worker. Jang Gye-hyang strived to reach the state of a saint through the attitude of Jigyeong by maintaining an alert mind, neat behaviors, and a solemn demeanor in the face of devastating national realities and unequal times for women.

To limit Jang Gye-hyang's value by describing her as someone who prioritized her responsibilities as a woman would be unfair. Jang Gye-hyang should be evaluated as a gunja, not as a good wife and wise mother according to the gender norms of Neo-Confucianism at the time because she was filial to her parents, supported her husband, and raised her children well to revive the Lee family. Jang Gye-hyang's role as a compassionate mother and her parenting have a lot to teach even us today. Additionally, her respectful and egalitarian communication with people of all statuses and her compassionate care for those in distress align with contemporary societal concern for the underprivileged. In this respect, Jang Gye-hyang should be viewed not as a great woman who lived in a certain era in the past, but as an educational role model that we should learn, study, and practice today.

Keywords: Jang Gye-hyang, Life History, Ecological System, Family Resilience, 『Eumsikdimibang』